

KDI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8. 02

February



KDI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18. 2

KDI 북한경제리뷰 편집진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이 석 (KDI 선임연구위원)

| 내부 편집위원

이종규 (KDI 연구위원)

김규철 (KDI 부연구위원)

김민정 (KDI 전문위원)

| 외부 편집위원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강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편집

최영운 (전문연구위원)

이우경 (연구위원)

한별이 (연구위원)

전선미 (연구위원)

전은경 (행정원)

KDI 북한경제리뷰는

북한경제의 실태, 남북한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정리하여

정책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월별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44-550-4086

팩스번호 044-550-4090

본 자료는

KDI 홈페이지(<http://www.kdi.re.kr>)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동향과 분석

03

총괄: 2017년 북한 거시경제 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 | 이석

22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2017년 동향 및 2018년 전망 | 이종규

31

2017년 북한의 산업 동향 | 이석기

40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 정형곤

54

2017년 북한의 시장실태와 2018년 전망 | 임강택

71

2017년 북한 농업 주요 동향과 전망 | 김영훈

81

2017년 북한 군수산업 동향 및 2018년 전망 | 조남훈

경제 자료

97

북한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 | 최영운

부문별 주요 기사

(1월 1일~1월 31일)

136

대내경제, 대외경제

동향과 분석

총괄: 2017년 북한 거시경제 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
| 이석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2017년 동향 및 2018년 전망
| 이종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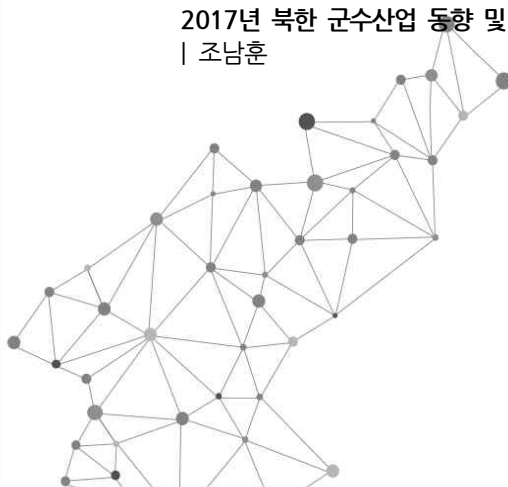
2017년 북한의 산업 동향
| 이석기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 정형곤

2017년 북한의 시장실태와 2018년 전망
| 임강택

2017년 북한 농업 주요 동향과 전망
| 김영훈

2017년 북한 군수산업 동향 및 2018년 전망
| 조남훈



총괄: 2017년 북한 거시경제 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

이석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uklee@kdi.re.kr

I.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2017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18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쓰인 여섯 편의 각 분야별 북한경제 관련 논문들을 총괄하는 것이다.¹⁾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개별 논문들의 내용을 하나로 집약하고, 이렇게 집약된 내용들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의 이야기 틀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각의 분야별 논문들이 말하는 2017년 및 2018년의 북한경제 모습을 총망라하여 이에 대한 공통의 종합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간단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 각 분야별 북한경제 논문들이 제공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일치하고 조화로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충돌하고 대립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의 실질적 작업은 앞서 언급한 여섯 편의 논문들을 개념적으로 해체하여 이들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2017년과 2018년 북한경제의 기본적 추세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추세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 추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경우, 이들을 어떻게 화해시켜 하나의 일관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고에서는 2017년 및 2018년 북한경제에 대한 분야별 분석 논문들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추세들을 세 가지의 단어로 집약한다. 그것은 바로 ‘대북제재’와 ‘경제침체’, 그리고 ‘악화 전망’이라는 단어들이다. 2017년의 북한경제는 점점 더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1) 이에 대해서는 이 글과 함께 게재될 이종규,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2017년 동향 및 2018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김영훈, 「2017년 북한농업 주요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등을 참고하라.

인해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었고, 만일 이러한 대북제재가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지속된다면 2018년의 북한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들 분야별 논문들 속에서 제시하는 북한의 여러 경제추세들 가운데 서로가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부분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2017년 및 2018년의 북한경제에 관한 한 앞서 제시한 세 가지의 단어들이 매우 뚜렷하게 제반 경제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들 세 가지 단어들을 중심으로 2017년과 2018년의 북한경제 모습을 총괄하되, 이를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본고의 나머지 부분은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장은 2017년 북한경제 동향을 점검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과 산업 생산, 농업 및 시장동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대북제재’와 ‘경제침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전체 경제와 각 분야별 경제추세로 나타나는지를 토론한다. 3장은 2018년 북한경제를 간단히 전망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8년에도 계속 유지되거나 심지어는 더욱 강화된다는 가정 아래, 올해의 북한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4장은 결론 부분으로 앞서의 논의들을 토대로 2017년 및 2018년의 북한경제 모습을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명제로 집약하여 제시한다.

II. 2017년 북한의 거시경제동향 평가

2017년 북한경제의 모습은 여러 면에서 2016년 북한경제와 대비된다.²⁾ 양자는 모두 점점 더 강력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외부적 환경을 공통의 요인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서로에게 많이 달랐다. 2016년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의 진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거나, 설사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영향은 경제가 진행될수록 약화되어 북한경제는 나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반면 2017년의 북한경제에서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매우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의 정도 역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2017년 북한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2) 2016년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이석, 「총괄: 2016년 북한경제 동향 평가와 설명 가설」,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7를 참고하라.

1. 대외무역 — 현실화된 대북제재의 충격

2017년 북한경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외무역에 있어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매우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³⁾ 실제로 북한 대외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액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연속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감소세는 2017년 9월 이후 더욱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 역시 기존의 무연탄과 철광석 등 광물자원은 물론 섬유 및 수산물 등 거의 모든 북한의 주요 수출품 거래를 전면 규제하는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와 같은 강력한 추가적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대중수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61%, 최대 83%에 이른다. 이는 2017년 초반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북한의 대외수출이 하반기에는 사실상 거의 봉쇄의 수준으로까지 축소되는 추세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권 밖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되어 온 북한의 수입 역시 2017년 들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중수입 규모는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정제유의 수출을 제한한 앞서의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이후에는 이러한 대중수입 규모의 감소폭이 눈에 띄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과 9월의 경우 북한의 대중수입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그 하락 폭은 전년 대비 약 6%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 폭은 2017년 10월에는 전년 대비 15%, 11월에는 18%, 그리고 12월에는 23%로 점점 더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적어도 2017년 10월 이후에는 북한의 대중수입에도 급격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현상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는 대북제재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점점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수출이 연초인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연말에는 거의 봉쇄되는 수준으로까지 하락하는데다, 그간 제재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고 평가되어 온 북한의 수입 역시 하반기인 8월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연말로 갈수록 그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3)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상세한 토론은 정형곤,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을 참고하라.

〈표 1〉 2017년 북한의 월간 대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2017.01	201.1 (13.3)	241.5 (14.5)
2017.02	172.8 (6.7)	151.9 (-5.9)
2017.03	109.3 (-52.3)	328.0 (39.1)
2017.04	92.9 (-42.4)	288.2 (7.5)
2017.05	115.89 (-34.0)	319.8 (33.6)
2017.06	152.43 (-27.6)	326.8 (13.4)
2017.07	150.4 (-33.8)	299.8 (55.7)
2017.08	282.9 (-1.00)	316.0 (-6.1)
2017.09	137.3 (-39.9)	266.3 (-6.7)
2017.10	85.1 (-63.0)	244.1 (-14.8)
2017.11	99.73 (-61.0)	287.8 (-18.0)
2017.12	50.8 (-82.6)	257.7 (-23.3)

자료: KITA(www.kita.net, 접속일: 2018. 2. 22).

2. 산업생산과 농업 — 침체 또는 위축

대외무역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2017년 북한의 산업활동과 농업 생산 역시 침체 또는 위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관찰이다. 우선 한국의 농촌진흥청 등은 2017년 북한의 농업 생산이 전년에 비해 약 2% 정도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⁴⁾ 가뭄과 같은 불리한 일기조건과 대외무역에 있어서의 수입의 정체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 조건이 전년에 비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2016년 북한의 곡물 생산이 정곡 기준으로 390만 톤을 상회할 정도로 작황이 좋았다는 점에서 2017년의 농업 생산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식량 사정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북한의 농업 생산 추이

구 분	계	쌀	옥수수	서류	맥류	콩류	잡곡
재배면적 (천ha)	1,869	571	711	343	85	131	28
수량 (kg/10a)	-	384	246	160	187	122	70
2017년 생산량(만톤) (A)	471	219	167	53	15	15	2
2016년 생산량(만톤) (B)	481	222	170	55	17	15	2
2016년 대비	증감량(만톤) (A-B)	△10	△3	△2	△2	-	-
	증감비율 (%)	△2	△1	△2	△4	△12	-

주: 김영훈, 「2017년 북한농업 주요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의 〈표 1〉을 개인용함.

자료: 농촌진흥청, 「북한 올해 곡물 471만 톤 생산…전년대비 소폭 감소」, 보도자료, 2017. 12. 21.

4) 2017년 북한의 농업생산 추세 및 이의 함의에 대한 상세한 토론은 김영훈, 「2017년 북한농업 주요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을 참고하라.

2017년의 가뭄은 북한의 수력발전 등 전력 생산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관찰된다.⁵⁾ 그리고 이로 인해 소폭의 화력발전 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력 생산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대북제재에 따른 무연탄과 철광석 등 광물 수출의 제한과 같은 대외무역에서의 요인들로 인해 광업과 건설업의 생산 역시 크게 증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7년 북한의 산업 생산은 2016년 300일 가까이 진행된 이른바 속도전의 정책적, 실물적 부작용으로 인해 전반적인 정체 또는 위축이 불가피했다는 판단이다. 속도전은 예년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노동력과 자원을 앞당겨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경제정책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생산과 투자활동을 증가시킬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특히 속도전의 종료 이후에는 대부분 상당 기간의 조정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2016년의 속도전은 거의 연중 내내 지속되었기 때문에 2017년에 조정기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산업정책이 경기확대보다는 안정화 방향으로 작용하여, 이제까지 추진되었던 대규모 주택건설과 같은 건설·토목분야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 8월 이후 무역부문에서의 대중수입이 줄어들면서 산업 생산을 위한 자본재 수입 역시 위축되어 전반적인 생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그 결과 북한경제 전반의 산업 생산용 투자활동이 예년에 비해 더욱 침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3. 시장 — 아직은 안정적!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및 산업 생산, 그리고 농업활동은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 또는 위축되었고, 특히 이에 대한 대북제재의 영향력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7년 북한의 시장활동 동향은 이와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⁶⁾

우선 2017년 북한의 환율 및 시장가격은 점점 강력해지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의 시장 환율은 2017년 연중 내내 달러당 8,000~8,150원의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2017년 초반에 달러당 8,000원 수준이었던 시장 환율이 약간의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2017년 12월에 8,000원 수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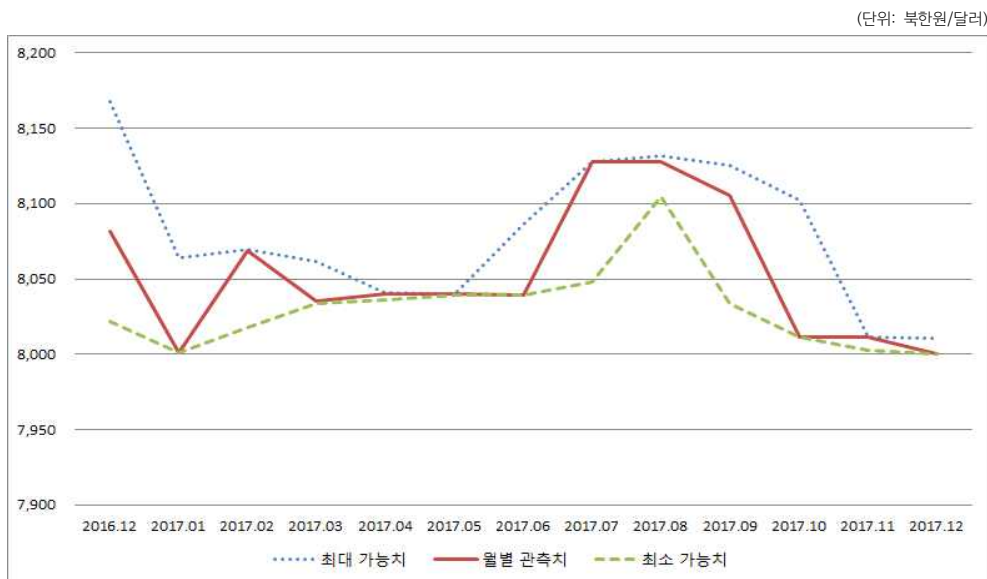
5) 본문에서 서술된 2017년 북한의 산업생산 동향은 주로 이석기, 「2017년 북한의 산업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에 의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 논문의 해당 서술 일부를 그대로 위의 본문에서 인용하지만 편의상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인용 표시는 하지 않는다.

6) 본문의 북한시장 동향 관련 서술은 임강택, 「2017년 북한의 시장 실태와 2018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에 의준하고 있다.

회귀함으로써 적어도 시장 환율에 있어서만큼은 대북제재의 영향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시장 쌀가격의 변화 추이 역시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약간의 상승세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전반적인 수준은 대체로 kg당 5,000~6,000원대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시장가격 변동은 크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대외무역이 크게 위축되는 2017년 하반기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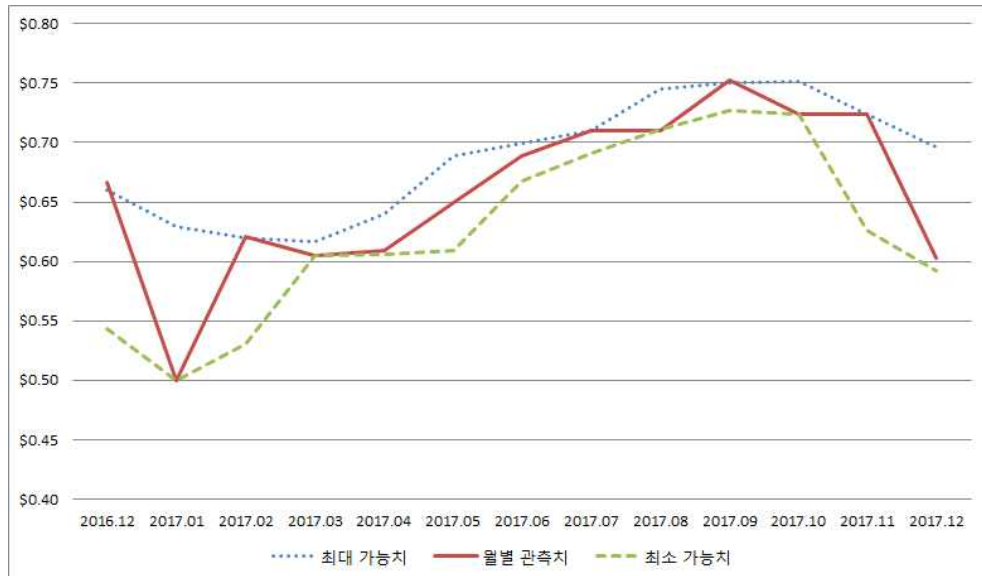
물론 대북제재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던 유류가격은 2017년 내내 상당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유류가격은 5월 이후 9월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9월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가 채택되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정제유의 공급에 대한 규제가 발표되자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는 불안정한 추세를 보였다. 대북 유류 수출 제한 조치가 발표된 직후인 10월 말에 kg당 휘발유 가격이 최대 21,78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12월까지 다시 15,990원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대북제재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던 유류 품목의 시장가격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북한의 시장가격과 환율 등은 2017년 내내 커다란 변동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북한의 시장 환율 추이



자료: 『Daily NK』의 「北 장마당 동향」 수치를 토대로 저자가 계산함. (<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접속일:2018.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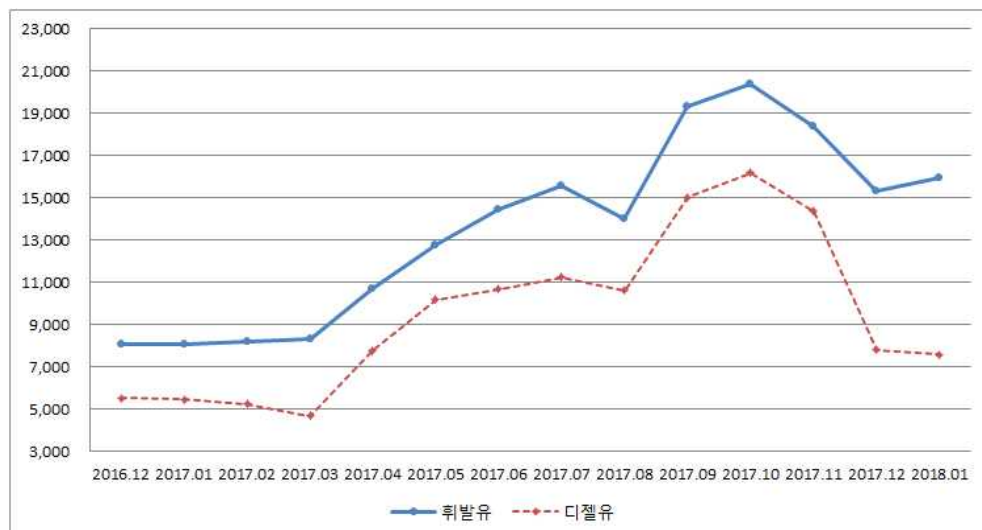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의 달러 표시 쌀 가격 추이



자료: 「Daily NK」의 「北 장마당 동향」 수치를 토대로 저자가 계산함. (<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접속일:2018.2.22).

[그림 3] 북한의 유류 가격 추이

(단위: 북한원/kg)



자료: 「Daily NK」의 기사들을 바탕으로 저자가 계산함.

이러한 현상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활동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일부의 관찰자들은 대북제재로 인해 해외의 판로가 막힌 무연탄 등 북한의 생산품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2017년 북한의 무역과 산업 생산 등이 침체하는 과정에서도 시장에서만은 여전히 새로운 생산활동이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차량 운행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영업활동이 등장했다고 한다. 평양과 같은 대도시를 비롯한 주요 도로 주변에 주유소와 세차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차장 서비스 같은 영업활동이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2017년의 더욱 강력해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시장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 하락과 이로 인한 시장거래 감소 등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는 현실의 데이터로 직접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성적 정보 역시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와 데이터로는 2017년 북한의 시장활동은 다른 여타의 경제 분야와 달리 심각한 침체에 시달리거나 대북제재의 부정적 영향력이 전면화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4. 2017년 북한경제 — 제재의 충격과 침체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부세계에서 관찰되는 2017년 북한경제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점점 더 강력해지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7년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둘째, 이러한 대외무역의 침체와 궤를 같이 하듯이 북한 내부의 산업활동과 농업 생산 역시 전년에 비해 정체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등 위축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셋째, 다만 이러한 대외무역, 산업 및 농업 생산과는 구별되게 북한의 시장활동은 2017년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대북제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점점 강화되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류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시장가격과 환율, 경제활동에서의 변화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III. 2018년 북한경제 전망: 추세와 요인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7년 북한경제의 모습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대북제재는 이미 2016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었다. 다만 2016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의 영향이 아직 크게 현실화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의 추세로 연결하면, 그것은 바로 2016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의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의 현실적 영향력 역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당연히 현재의 추세가 유지되는 한 2018년 북한경제에서는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직관을 토대로 2018년 북한경제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을 검토한다.

1. 대외무역 — 버티기 vs. 파국

먼저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는 대북제재의 충격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점점 강력해지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고, 이러한 추세는 2017년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시 말해 현재의 대북제재가 2017년 하반기와 같은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실제로 집행된다면, 올해 북한의 수출은 오히려 2017년 하반기보다도 더욱 위축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사실상 북한의 모든 중요 수출품의 거래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8년 북한의 대외수출 규모는 예년보다 파격적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3%가 줄어들었는데, 2018년의 경우 이러한 하락 폭이 연중 내내 지속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극단적인 규모의 축소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북한의 수출이 과거 2013~16년의 수준은 물론 2017년의 수준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해 보인다.

다만 북한의 수입의 경우에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무엇보다 현재의 대북제재가 핵과 미사일 부품 및 원유나 정제유와 같은 일부 상품의 대북거래는 규제하고 있지만, 여타의

대다수 북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기만 하다면, 비록 현실적으로 올해 북한의 수입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수출과 같이 드라마틱할 정도로 규모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북한이 현재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2018년 북한의 수출규모가 급격히 하락하고, 이로 인해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 역시 빠르게 감소할 경우, 이러한 외화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수입규모 역시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표 3>은 매우 시사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201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북한의 대중수입과 수출을 대상으로 그랜저 인과성 검증(Granger Causality Test)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5. 24 대북제재 조치가 실시된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에는 북한의 대중수출이 북한의 대중수입에 일방적인(one-way)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북한의 대중수출 규모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 북한의 대중수입 규모가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아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러한 인과적 관계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북한의 대중수출과 수입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인과적 연관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2010년 이전까지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상당 규모의 외화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외화가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데 있어 남북경협을 통해 획득한 외화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표 3> 북한의 대중수출과 수입 사이 그랜저 인과성 검증결과

시차 (월)	2010. 7~2013. 1			2013. 1~2017. 12		
	F-통계량		인과관계	F-통계량		인과관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0.368 (0.549)	18.797 (0.000)	수입⇒수출	1.900 (0.174)	0.719 (0.400)	수입…수출
2	0.199 (0.821)	7.876 (0.002)	수입⇒수출	1.038 (0.361)	0.965 (0.387)	수입…수출
3	0.431 (0.733)	5.991 (0.004)	수입⇒수출	0.765 (0.519)	1.484 (0.229)	수입…수출
4	0.729 (0.584)	3.523 (0.027)	수입⇒수출	0.749 (0.563)	1.388 (0.251)	수입…수출

주: ()안은 p값. ⇒, ⇔는 각각 95%, 99% 신뢰수준에서 나타나는 인과성의 방향을 의미

그러나 2010년 한국의 5. 24 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을 통한 외화의 획득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당연히 2010년 이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많은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해야만 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2010년 7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대중국 수입에 일방적인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북한은 이제 대중국 수출로 얻어진 외화가 더욱 많이 있어야만 추가적으로 대중국 수입 역시 늘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에서는 상품 수출입 이외의 여러 새로운 현상들도 함께 나타난다. 예를 들어 <표 4>에서 보듯이 북한 노동력을 대규모로 해외에 파견하거나, 해외 관광 또는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상품)수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여타 형태의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북한은 상당한 규모의 외화를 획득하고 축적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북한경제 전반의 외화 사용 수준과 범위가 급격히 늘어나는 2013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 사이의 인과적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 역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이제는 북한이 대외적인 (상품)수출입 거래 이외에 다양한 원천을 통해 축적한 외화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상품)수입을 늘리기 위해 이를 위한 (상품)수출을 늘리는 일을 선행시킬 필요가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2017년 현재 북한 대외무역 데이터에 적용하면 그 결과는 흥미롭다. 우선 2017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고려하여도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 사이에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력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비록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이전부터 줄었고, 그로 인해 북한이 획득하는 외화의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 역시 줄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여전히 북한경제에는 (상품)수출 이외의 여타 원천을 통해 획득한 외화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이를 통해 비록 (상품)수출이 줄었더라도 일정 부분 수입을 지속할 수 있는

<표 4> 중국 방문 북한인 수 추이

(단위: 만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방문자 수	12.58	11.01	11.37	10.18	10.39	11.64	15.23	18.06	20.66	18.44	18.83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http://www.cnta.gov.cn/>, 접속일: 2016. 1. 18).

여력이 아직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단은 2018년의 경우에도 북한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락하여 북한 대외무역 전체가 파국을 맞을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비록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8년 북한의 수출이 급락하더라도 수입은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대외무역에 있어 일종의 ‘버티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수입 감소가 하나의 일관된 추세로 관찰되고 있으며, 그 감소폭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아직은 북한경제에서 보유하는 외화가 어느 정도 존재하여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 전체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대북제재에 따른 수출의 감소 자체가 북한의 외화 사정과 이로 인한 수입규모의 변화에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는 수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만일 현재와 같은 북한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점점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해외노동자 파견, 투자 및 관광 등 여타의 방식으로 획득하는 외화의 규모 역시 매우 불확실해 질 경우, 북한의 수입규모 역시 언젠가는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아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 북한의 수출 및 수입 규모의 변화에 대한 관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2018년 북한의 수출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수입에 대한 수출의 일방적 인과적 영향력’이 계량적으로 다시 관찰된다고 가정해 보자. 옹당 이는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수출 감소가 북한의 수입 능력에 영향을 줄만큼 기존의 외화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북한경제 전반이 상당한 곤란에 직면할 수 있음도 의미할 것이다. 반면 이러한 관계가 여전히 관찰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수치적으로는 여전히 북한 대외무역 부문에서의 버티기 가능성을 부정하기가 힘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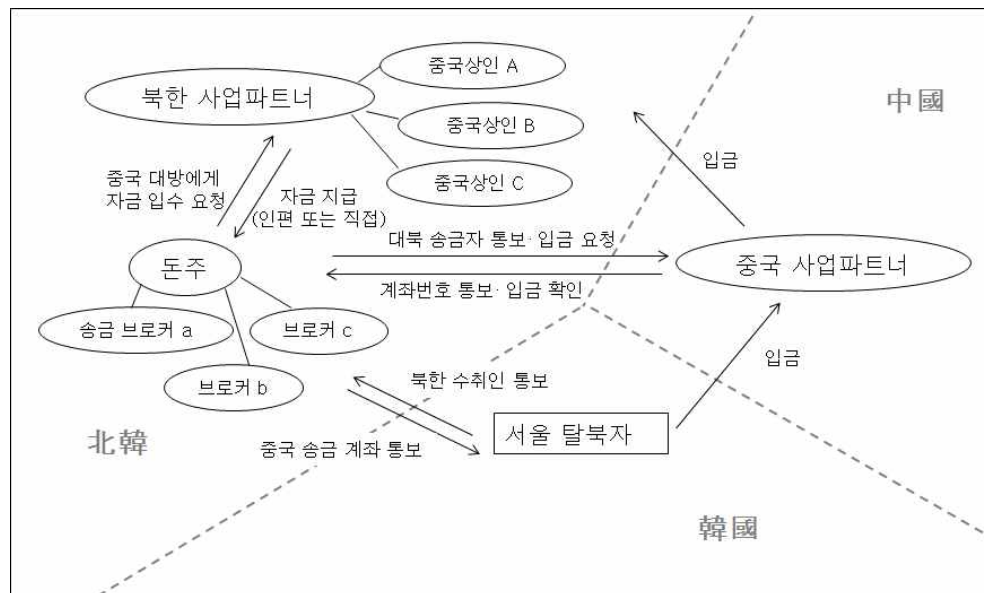
요컨대 현재의 시점에서는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첫째,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 둘째,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급격한 외화 사정 악화를 불러와 수입 역시 빠르게 감소시킴으로써 사실상 대외무역이 파국과 같은 비상 상황으로까지 연결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기존에 보유하던 외화를 이용하여 수입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만 2018년 북한의 월별 수출과 수입 사이에 과거와 같은 인과적 관계가 다시 계량적으로 관찰되기 시작한다면, 이는 곧 북한의 ‘대규모 수출 감소 ⇒ 급격한 외화 수입 감소 ⇒ 대규모 수입 감소’라는 대외무역의 비상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징후로 간주될 수 있다.

2. (비공식) 외화 운영 시스템 — 혼란의 가능성과 파급효과

그런데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 특히 외환과 관련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가능성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실사 북한경제가 보유한 외화의 규모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외화의 통용 시스템 자체가 혼란에 빠져 북한의 대외무역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어려움이 나타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림 4]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른바 북한의 ‘돈주’라고 불리는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외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중 특정 개인이 한국의 탈북자로부터 송금 받은 100달러의 외화를 어떻게 북한에 있는 해당 탈북자의 가족에게 전달하는지를 하나의 가상적인 그림 경로로 나타내고 있다.⁷⁾ 이에 따르면, ‘돈주’는 북한의 가족에게 100달러를 송금하기를 원하는 한국의 탈북자에게 중국에 위치한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보한다.

[그림 4] 북한의 비공식적 외화 관리·운용 채널 예시 — 가상적 탈북자 송금



7)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7년 연간 작업의 일환으로 김정은 정권의 북한경제 운영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 북한에서 비중 있는 경제적 역할을 담당했던 다양한 탈북자들을 면담하였다. 본문의 [그림 4]는 이렇게 면담한 탈북자들의 진술 내용을 가능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를 추상화하여 만든 다양한 그림 모형의 하나이다.

그 계좌는 해당 ‘돈주’와 연관이 있는 중국인 또는 중국 내의 다른 개인 또는 업체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탈북자가 그 계좌에 100달러를 송금하면, 해당 ‘돈주’는 북한 내부에서 중국 기업 또는 중국인 사업자가 진출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 또는 사업 파트너에게 연락을 한다. 그 지인 또는 사업 파트너로 하여금 북한의 해당 지역에 나와 있는 중국 기업 또는 중국인 사업자로부터 탈북자의 북한 가족에게 전해 줄 100달러 가운데 수수료 2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80달러를 빌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빌린 80달러를 북한인 친척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80달러를 빌려준 중국 기업 또는 사업자에게는 그가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보유한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로 수수료 5달러를 더해 총 85달러를 송금하여 결산한다. 이러한 송금은 앞서 탈북자가 송금한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로부터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돈주’의 수수료 5달러, 북한에서 중국 기업 또는 사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업 파트너의 수수료 5달러, 그리고 중국에서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지인 또는 파트너의 수수료 5달러를 분배한다. 이러한 분배 역시 당연히 중국에 존재하는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그림 4]에 나타난 경로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상적인 경로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결과를 추상화시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개념적 구축물일 뿐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재 북한의 외화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며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현재 북한의 외화 시스템은 북한의 공식적인 금융기구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 경제주체들의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중국 및 북한에 거주하거나 진출해 있는 중국인, 중국 기업, 중국 금융기관 및 북한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외화를 취급하는 북한의 개인은 물론 대외거래에 종사하는 국영기업과 이의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추어 각각 다르게 변형하여 구축하고 운영하는 형편이다. 주목할 점은 현재 이러한 외화 시스템을 통해 조달되고 운영되는 외화가 정부, 국영기업, 각종 단체 및 개별 경제주체들로 흘러 들어가 전체 북한경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2017년 이후 더욱 강력해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 등의 금융제재는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제재로 인해 북한 또는 북한과 관련이 있는 중국 등 해외의 금융계좌에 대한 관찰과 제재가 강력해지고, 북한에 대한 외국인들의 교류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림 4]에 나타난 북한 지역에 진출한 중국 기업 및 사업자가 이제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중국으로 철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해당 ‘돈주’가 사용하는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 명의가 중국인 또는 중국 기업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 경우 해당 ‘돈주’는 여전히 안심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해당 ‘돈주’는 기존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에 있는 자신의 외화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더욱 골머리를 앓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 등의 금융제재가 더욱 압박적으로 전개될 경우, 설사 북한경제가 보유한 외화의 절대 규모가 부족하지 않더라도 이의 활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결과 대외무역은 물론 북한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개연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현재 북한경제를 운영하는 외화의 상당 부분은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외화보유에 더해, 다양한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산업생산과 시장경제활동 — 동시적(?) 침체 또는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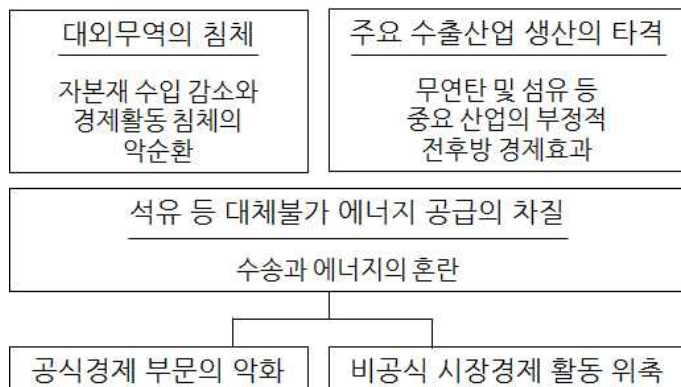
한편 2018년 북한의 산업 생산과 농업은 물론 심지어는 시장의 활동 역시 2017년보다 침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침체하고, 특히 외화 통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애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산업 생산 및 농업에 있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해외의 자본재 및 원재료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 및 농업 생산의 부분적 회복에는 ‘수출 증대→외화 확대→수입확대→생산 및 투자 증대’라는 경제 회복 및 성장 메커니즘이 크게 작동하였다. 그런데 2018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정반대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무연탄과 같은 북한의 광물 생산 및 여타의 수출 주력 상품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무연탄과 같은 광물 제품은 현재의 북한경제에서 가장 전후방 경제효과가 높은 생산 분야이다. 수많은 북한 인력이 이를 채취하고, 운송하며, 보관하고, 수출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여타의 지원 분야 인력 역시 대규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연탄에 거의 버금가는 생산 분야가 바로 섬유 등의 생산 분야이며, 고가의 수산물을 위시한 자연채취물의 생산 역시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그런데 이들 생산

분야가 이제까지 북한에서 유지되고 기능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외화 획득이 가능한 수출 분야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의 수출을 통해 획득된 외화가 북한 당국은 물론, 각 수준의 당과 정부 기구, 일반 기업과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흘러 들어가 공식적인 경제는 물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이러한 무연탄 등의 수출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이들 주요 제품의 수출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2018년 북한경제에서 이들 주요 수출제품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것이 공식적인 북한경제와, 심지어는 시장 등 비공식적인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 파장이 클 것이다.

물론 이들 주요 제품의 수출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를 내수로 돌리는 경우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면 이러한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급격히 생산과 수출이 늘어난 무연탄의 경우 이제까지의 생산 확대는 주로 중국의 자본 투자에 힘입은 것이다. 섬유와 같은 제품의 생산 역시 대부분 중국의 투자와 수요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북한경제로부터 사실상 철수하거나 적어도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의 수출이 막힌 북한산 무연탄의 생산에 중국 자본이 투자를 계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 중국을 대체하여 북한 내부의 돈주들이 이에 새롭게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도 설득력이 크지 않다. 북한 돈주들의 투자도 결국은 외화 획득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이미 수출길이 막힌 무연탄과 섬유류의 생산에 이들이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북한의 산업 생산 및 시장 활동 침체 요인



이렇게 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그간 주요 수출품이었던 북한산 무연탄과 석유류 등의 생산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산업이 이제까지 북한경제에 미친 전후방 효과를 감안하면 이들의 생산 차질로 빚어질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만 하는 사실은 이러한 파급효과가 북한의 공식 경제부문은 물론 시장 등 비공식적 경제활동에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2018년 북한의 경제활동 전망이 공식부문에서건 시장에서건 결코 장밋빛은 아니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요인들에 더해 2017년 하반기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북한으로의 석유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것이 북한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수송용의 경우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북한경제가 입게 되는 타격은 미리 가늠하기가 힘들 전망이다.

4. 2018년 북한경제 전망 — 악화, 그러나 과연 어디까지?

이처럼 현재의 시점에서 전망해본 2018년 북한경제의 모습은 매우 암울하다. 우선 2018년에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외화사정에 따라서는 수입 역시 크게 줄어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처럼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받을 충격은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국제적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등이 지속될 경우 이제까지 비공식적으로 발전되고 유지되어 온 북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외화 운영 시스템에 일정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이들 개별 경제주체들의 외화 운영에 의해 성장하고 유지되어 온 북한의 공식·비공식 경제활동에도 상응하는 장애가 초래될 전망이다. 더불어 북한의 산업 생산은 물론 심지어는 시장경제활동 역시 2018년에는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 회복 및 성장 메커니즘으로 기능해왔던 ‘수출 증대→외화 확대→수입확대→생산 및 투자 증대’라는 채널이 2018년에는 거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② 현재 북한경제에서 가장 전후방 효과가 큰 사업으로 판단되는 무연탄과 석유 등 주요 수출상품의 생산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위축이 불가피하며, ③ 수송용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석유류 등 기본 에너지원의 공급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18년 북한경제는 생산과 무역, 소비 등에서 모두 예년보다 더욱 침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간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시장활동과 같은 비공식 경제부문마저 정체됨으로써 일반 경제주체들의 후생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IV. 결론

본고에서 우리는 ‘2017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18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쓰인 여섯 편의 각 분야별 북한경제 관련 논문들을 집대성하여 2017년 및 2018년 북한경제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들 여섯 편의 분야별 논문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화두를 세 가지 단어로 집약하였다. 그것은 바로 ‘대북제재’와 ‘경제침체’, 그리고 ‘악화 전망’이라는 단어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분석된 2017년 북한경제의 모습과 2018년의 전망은 크게 다음과 같은 꼴을 하고 있었다.

우선 2017년 북한경제에서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대외무역이 매우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궤를 같이 하듯이 북한 내부의 산업활동과 농업 생산 역시 전년에 비해 정체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등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북한의 시장가격과 시장경제활동은 2017년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어, 아직은 제재의 영향력이 시장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2018년의 북한경제에 대한 전망은 2017년의 북한경제의 모습보다 더욱 우울하였다. 무엇보다 2018년에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 역시 크게 줄어들어 대외무역 전반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현재와 같은 국제적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등이 지속될 경우, 이제까지 비공식적으로 발전되고 유지되어 온 북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외화 운영 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져 북한경제 전반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북한의 산업 생산은 물론 심지어는 시장경제활동 역시 2018년에는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외무역을 통한 자본재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다, 무연탄과 섬유 등 전후방 경제효과가 큰 주요 수출상품의 생산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크게 위축될 것이 예상되며, 수송용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석유류 등 기본 에너지의 공급에마저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8년 북한경제는 생산과 무역, 소비 등에서 모두 예년보다 더욱 침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간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시장활동과

같은 비공식 경제부문마저 정채됨으로써 일반 경제주체들의 후생이 역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었다.

참고문헌

- 김영훈, 「2017년 북한농업 주요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이석기, 「2017년 북한의 산업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이종규,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2017년 동향 및 2018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임강택, 「2017년 북한의 시장 실패와 2018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정형근,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조남훈, 「2017년 북한 군수산업 동향 및 2018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2017년 동향 및 2018년 전망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jklee@kdi.re.kr

I. 머리말

2016년 북한은 제7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속도전’(200일전투와 70일전투)을 전개하며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경제부양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성장률을 다소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 비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¹⁾

하지만 2017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매우 다르게 전개된다. 이때부터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에 대해 ‘민생목적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는 대신 일괄적으로 상한선을 제시하는 규정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2017년 북한의 정책은 제재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7년부터 북한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안보리 결의안 2321호(2016. 11. 30)와 2018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2375호(2017. 9. 11)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²⁾ 왜냐하면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대한 대응은 주로 2017년의 정책동향과 연관이 있으며, 안보리 결의안 2375호는 2018년 정책전망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각각의 제재에 대해 주요 내용과 경제적인 영향을 보고,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을 분석할 것이다.

1) 안보리 결의안 2270호(2016. 3. 3)가 채택되었으나, 민생부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2) 2017년에는 안보리 결의안 2356호(6. 3), 2371호(8. 6), 2375호(9. 11), 2397호(12. 22)가 채택되었지만, 본고에서는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폭으로 강화되었던 안보리 결의안 2321호와 2375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대한 대응

1. 주요 내용과 영향

안보리 결의안 2321호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2016. 9. 9) 이후 2016년 11월 30일에 채택되었다. 민생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던 안보리 결의안 2270호와 비교하여 그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 석탄 수출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외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수출을 금지하는 광물 품목이 추가되었으며(은, 동, 아연, 니켈), 조형물 수출금지, 북한 공관에 대한 외교활동 제한조치(인력 감축 촉구, 은행계좌 제한, 임대수입 금지) 등도 도입되었다.

실제로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영향으로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은 급감했는데, 금액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66.0% 감소했으며, 물량 기준으로는 78.5% 감소했다.³⁾ 이로 인해 북한의 대중수출은 37.3% 감소하면서 전체 대중 교역량까지 함께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14.5%). 이를 기여율로 계산해 보면, 석탄 수출액의 감소가 전체 대중교역의 감소에 기여한 비율은 79%에 이른다. 석탄 수출 상한제가 전체 교역량 급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림 1]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영향: 2017년 북한의 대중무역(분기별)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KITA(www.kita.net, 접속일: 2018. 2. 1).

3)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금액 및 물량 기준): 2016년(11.8억달러, 2,250만톤) → 2017년(4.0억달러, 483만톤)

2. 북한 당국의 정책대응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경화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품목인 만큼 실제적으로는 외화수입에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자력자강의’를 다시 한 번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력자강을 “그 어떠한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기적을 창조하는 과학기술이며 이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이다.”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봉은심, 2017, p.29),⁴⁾ 북한은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제시하였다. 또한 무역과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과학기술 교류를 차단하는 대북제재가 경제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위와 정도가 크지 않다면, 자신들의 경제는 “대외시장에 의존하는 수출형경제가 아니라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제 발로 걸어가는 경제”인 자립형 경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⁵⁾

하지만 북한이 2017년에 추진한 정책들을 2016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200일전투’나 ‘70일전투’와 같은 강제적인 노동력 동원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산화가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경공업, 에너지, 농업 부문 등에서의 국산화가 많이 언급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경공업 부문에서의 국산화 정책은 여러 매체를 통해 수차례 강조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과학기술의 발전이 제시되었다. 주민들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공업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토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도 경공업 부문에서 원료와 자재를 국산화하고, 경영전략을 바로 세워 생산을 확대하며, 소비제품들의 다종화, 다양화, 질적제고에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조는 북한 매체에서도 자주 관찰되는데, “경공업공장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노동생산능률을 높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다양한 량적 및 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논리이다(허철룡, 2017, p.10).⁶⁾ 주민들의 높아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경공업이 성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공급은 해외 수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품의 품종과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담보할 수 있는 규격화 사업”도

4) 봉은심, 「자력자강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의 위대한 동력」, 『사회과학원학보』, 2017년 제3호, 2017.

5) 「조선신보」,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건설과 국방력 강화」, 2017. 3. 2.

6) 허철룡, 「현시기 경공업부문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2호, 2017.

진행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제품의 디자인(제품도안)과 포장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 또한 류정원(2017, p.66)은⁸⁾ “과학기술은 자립 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되었다 하여도 남에게 예속된 경제는 절름발이경제로 밖에 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제토대를 가지고서는 경제강국을 절대로 건설할 수 없다.”라고 했으며, 김정철(2017, p.10)은⁹⁾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길에 자주, 자립이 있고 자주권과 생존권 수호의 담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광명성 4호’의 발사와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아크릴 계 칠감’을 모범 사례로 들기도 했다. 종합하면, 주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공업 분야에서부터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자강력제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만 제재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산화가 강조되었다. 이는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석탄 수출이 감소해 이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화력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이 되는데,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석탄 생산을 늘이고 그것을 제때에 수송해주어야 한다.”라면서 화력발전의 정상화를 강조한다. 이와 함께 “석탄의 발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연소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설비의 기술개조 사업을 잘하여 같은 증기량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면서 생산성 향상을 주장하기도 한다(김남웅, 2017, p.7).¹⁰⁾ 또한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과 큰 도시에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중소규모의 발전소는 전국 도처에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내에 남아 있는 석탄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화력발전소들에서는 연소효율이 높고 공해가 적은 새로운 설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라면서 현대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한다(박상철, 2017, p.22).¹¹⁾ 한편, 주체철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언급되는데, “무연탄에 의거한 철 생산체계를 완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는 올해 적대국들의 제재와 봉쇄에도 끄떡없이 주체철의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했다.”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조선신보』, 2017. 12. 13).¹²⁾ 이를 통해 수출길이 막힌 석탄을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북한 당국도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농업 등 각 부문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가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¹³⁾ 제재가

7) 로명성,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3호, 2017.

8) 류정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생산력이라는 사상의 정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7년 제1호, 2017.

9) 김정철, 「과학기술강국건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결정적 담보」, 『경제연구』, 2017년 제4호, 2017.

10) 김남웅, 「전력생산을 늘이고 전력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 방도」, 『경제연구』, 2017년 제2호, 2017.

11) 박상철, 「현시기 전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1호, 2017.

12) 『조선신보』, 「만리마 시대 경제부흥과 생활향상 -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주체철식물」, 2017. 12. 20.

직접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자강력제일주의’의 고수 이외에는 다른 정책적 선택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대한 대응

1. 주요 내용과 영향

안보리 결의안 2375호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2017. 9. 3) 이후 2017년 9월 11일에 채택되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광물(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던 안보리 결의안 2371호(2017. 8. 6)를 보완하여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도 금지하는 한편, 정제유 수입에서도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과의 모든 합작·협력 사업을 설립, 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면서 기존 사업도 12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이미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신규로 해외에 파견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즉, 북한 수출의 약 90%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수출금지 된 셈이고, 역대 안보리 제재로는 최초로 북한 민생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며, 자본수지와 소득수지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¹⁴⁾ 모두 다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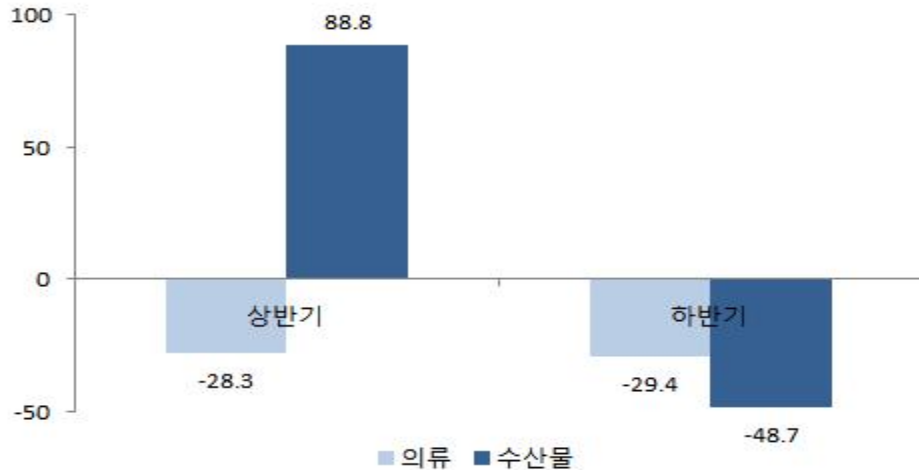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2375호와 2397호는 각각 2017년 9월과 12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올해 조금 더 지켜봐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 것인지 대략 예측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 대중수출(2016년 기준)의 약 5%를 차지했던 수산물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2017년 상반기까지 전년동기대비 88.8% 증가하던 수산물 수출은 하반기가 되면서 48.7%까지 급감하게 되는데, 이는 안보리 결의안 2356호(2017. 8. 6)가

13) 일레로, 김광남(2017, p.35)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영농물자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조건에서도 내부 예비를 효과있게 동원리용한다면 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제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자력자강의 힘으로 같은 노력과 영농물자를 가지고도, 노동생산능률을 비할 바 없이 높여 영농작업을 질적으로 수행하고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 생산을 훨씬 늘일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14) 이후 북한의 ICBM 발사로 안보리 결의안 2397호(2017. 12. 22)가 채택되었다.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이 농산물, 기계, 전자기기, 목재, 선박 등으로 확대되고 정유제품 공급량의 상한선이 기존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감축되었으며, 노동자 전원이 24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규정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2397호는 기존 안보리 결의안 2375호의 조치들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안보리 결의안 2375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2] 2017년 북한의 대중 의류 및 수산물 수출 추이(반기별)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KITA(www.kita.net, 접속일: 2018. 2. 1).

수산물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는 대중수출(2016년 기준)의 27.5%나 차지하던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므로 의류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새롭게 제재 목록에 추가된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중국의 대북투자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무역 이외의 파급력도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2. 북한당국의 정책대응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외화 확보와 관련된 채널(수출, 노동자 파견, 해외 투자)이 거의 다 차단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북한은 내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제재로 인한 시장에서의 타격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금융 부문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북한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 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으로 추측된다. 상업은행의 예금, 대부, 이자율, 결제 방법 등을 활용하여 원화 및 외화 현금을

모두 은행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 장기 예금에 대해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은행에 자금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점 등이 이 같은 정책 추세를 반영하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지금은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대외경제 부문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제재 상황과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려해봤을 때 다른 주력 수출품목을 발굴하기보다는 수출선 다변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 등과 같은 제3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수준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재와 같은 외부환경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북한의 경제상황을 극적으로 개선시키는 데에는 정책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V. 평가 및 전망

2017년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석탄 수출의 감소가 전체 교역량 감소로 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자강력제일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정책기조와 차이가 있다면, 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노동력 동원이 없었다는 점, 국산화에 대한 방식이 경공업, 에너지, 농업 등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이 모든 것의 전제조건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던 사항인 만큼 최근 들어 북한의 학술지나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의 발전 → 각 부문에서의 해외 의존도 감소(원료, 자재, 공정 등) → ‘자강력제일주의 실현’ → 제재 국면 극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상황은 2017년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이어 2397호가 본격적으로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광물, 수산물, 의류 등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모두 차단된다. 이로 인한 영향은 안보리 결의안 2321호 이후 급감한 석탄 수출의 추세와 안보리 결의안 2356호 이후 급감한 수산물 수출의 사례를 봐도 대략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해외 노동자도 24개월 이내에 전원이 송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외화 수급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석유수입도 제한되며

〈표 1〉 북한의 정책대응: 2017년 동향 및 2018년 전망

	안보리 결의안 2321호 (2016년 11월 30일 채택)	안보리 결의안 2375호 (2017년 9월 11일 채택)
주요 내용	- 석탄 수출 상한 제시 - 4억달러 또는 750만톤	- 광물, 수산물, 의류(섬유) 등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수출금지 - 석유 수입 일부 제한
경제적 영향	- 석탄 수출 감소로 전체 교역량이 감소 (석탄 수출 감소의 기여율: 약 79%)	- 추가로 포함된 품목(예: 수산물)에서 수출이 감소 - 향후 의류 등의 품목도 감소 예상
북한의 정책	- 국산화를 통한 '자강력제일주의' 실현 - 경공업, 에너지, 농업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남	-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자강력제일주의' 기조를 되풀이하면서 시장을 활용 - 대외부문에서 돌파구 마련을 시도

각종 합작·협력 사업 등 투자에도 큰 제약이 뒤따른다.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북한의 수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경제 회복세의 토대가 되었던 요인이 물가 및 환율의 안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안정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을 모두 종합하면, 북한경제는 올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강력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공식부문(시장)과 주민들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외경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등 제3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에는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재와 같은 외부환경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남,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농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7년 제3호, 2017.
- 김남웅, 「전력생산을 늘이고 전력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 방도」, 『경제연구』, 2017년 제2호, 2017.
- 김정철, 「과학기술강국건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결정적 담보」, 『경제연구』, 2017년 제4호, 2017.
- 로명성,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3호, 2017.
- 류정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의 기본생산력이라는 사상의 정당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7년 제1호, 2017.
- 박상철, 「현시기 전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1호, 2017.
- 봉은심, 「자력자강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의 위대한 동력」, 『사회과학원학보』, 2017년 제3호, 2017.
- 허철룡, 「현시기 경공업부문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17년 제2호, 2017.
- 『조선신보』,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건설과 국방력 강화」, 2017. 3. 2.
- 『조선신보』, 「만리마 시대 경제부흥과 생활향상 -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주체철쇠물」, 2017. 12. 20.
- 〈웹사이트〉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접속일: 2018. 2. 1).

2017년 북한의 산업 동향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klee@kiet.re.kr

I. 개관

2017년 북한 산업 및 실물부문에서는 2016년 북한경제의 성장을 이끈 요인들이 모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6년 북한경제에 적어도 중립적으로 작용하였던 기후 조건은, 2017년에는 가뭄으로 농업과 수력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연초부터 9월 정도까지 이어진 가뭄으로 농업 및 수력발전 부문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량의 감소에 따라 전체 전력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 혹은 정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에는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중무역을 중심으로 무역이 증가하였지만 2017년에는 대중 무연탄 수출이 66% 감소하는 등 무역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수출광업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음에 따라 내수용 광업이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광업 전반의 생산 감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만 2016년 연중 지속된 속도전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광업 및 제조업의 성장을 이끌었는데, 2017년에는 속도전 이후의 조정기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생산 및 투자활동이 둔화되었다. 북한 당국도 경기확장보다는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계를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부문도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 등 전년에 비해 생산활동이 다소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기계류 및 원부자재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대북 경제 재재가 수입 축소를 통하여 북한 산업 전반, 특히 제조업에 미친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2017년 북한 산업 및 실물부문은 2016년에 비해 소폭 후퇴하거나 정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진은 대북 경제제재보다는 기후와 내부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노동력과 자원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는 속도전이 2016년 내내 추진되었기 때문에 2017년에는 생산 및 투자 활동의 조절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북한 공식매체의 보도 추세 등을 고려하면 조정기의 영향은 연초보다는 하반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물가나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하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경제의 안정적 기조를 해칠 수 있는 무리한 정부 주도 사업을 자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건설부문의 상대적 둔화는 이러한 경제 운영 기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연간 지속된 가뭄은 농업과 수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뭄에 따른 생산의 후퇴는 2015년보다는 덜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17년에 한해서 대북 경제제재는 수출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지만 북한 산업 전반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대중수출은 37% 줄어들었지만 수입은 4.3%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수입이 21% 감소한 자동차 등 수송기계와 9% 감소한 철강을 제외하고는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및 섬유 등 기계류와 원부자재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유지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의 제한적인 회복이 대중 기계류 및 원부자재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바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16년에 비해서는 악화되었지만 대중 자본재 수입의 증가추세가 유지되었다는 점은 대외경제 관계 악화가 2017년 북한 산업 및 실물부문 부진의 핵심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II. 2017년 북한 산업 및 실물 동향

1. 전력 및 광업

가. 전력

전력부문은 가뭄에 따른 수자원 부족으로 수력발전량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 화력발전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전력부문이 강조됨에 따라 발전소 개보수나 화력탄 공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력발전의 성과 보도가 다시 2015년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으

며, 화력발전은 수력발전보다는 성과 보도가 많고, 구체성도 있지만 2016년보다는 보도 빈도나 구체성이 떨어진다.

수력발전은 2017년 여름까지 지속된 가뭄으로 전년에 비해 발전량이 다소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으로 2016년 수력발전량이 2015년 수준에 비해 20% 증가하였는데, 2017년에는 2015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전량이 적지 않게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의 성과 보도도 크게 줄었다. 수력발전 전반의 성과는 연초인 1/4분기의 성과만 보도되었으며, 하반기 이후 부문 전반의 성과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²⁾ 개별 발전소의 성과 보도도 대부분의 주요 수력발전소의 성과가 보도된 2016년과 달리, 2017년에는 연중 반복적으로 성과가 보도된 서두수발전소나, 1호발전소가 최고 생산연도 수준을 돌파하였다는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 정도의 성과가 보도된 정도였다. 중소형 수력발전소의 성과가 예년 수준으로 보도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화력발전은 사정이 다소 나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7차 당대회에서 전력부문이 강조되고, 제7차 당대회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전력부문이기 때문에 발전 부문, 특히 투입 증가를 통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화력발전 부문에 자원 배분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공식매체도 연초가 아닌 연말에 가까운 11월 16일 기준으로 화력발전 부문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발전량이 20% 증가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³⁾ 북창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와 평양화력발전소 등 주요 화력발전소 대부분에서 발전성과가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그리고 대북 무연탄 수출의 중단도 제한적이지만 내수용 석탄의 생산 및 화력발전 소용 연료탄의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년의 300일 가까운 속도전 이후 조정의 필요성은 화력발전소와 탄광 부문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형 수력발전소인 단천발전소 건설이 착공되었으며, 예성강5호발전소 및 어랑천5호발전소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단천발전소 건설 착공은 5월에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원 투입이나 건설 독려 수준이 희천발전소나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에 투입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고원군민발전소와 우시2호발전소 등 중소형 발전소들이 다수 건설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은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 구축이나 변압기 및 배전선로 개조 등을 통하여 전력 관리 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1) 북한의 공식매체들도 일부 수력발전소의 성과를 보도하면서 강수량의 부족에 따라 수력발전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반복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2) 반면 2016년에는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수력발전 부문의 성과가 보도되었으며, 2016년 12월 16일에는 200일 전투 목표가 초과 완수되었으며, 매일 평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의 전력을 증산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석기 외(2017), pp.80~82.
3) '노동신문', 2017. 11. 17.

개발과 활용도 독려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2015, 16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광업

광업 부문은 대북 경제제재로 대중 무연탄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수출 광업이 전년에 비해 크게 위축되어 내수용 광업이 다소 성장하였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생산이 상당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월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전년 대비 66%가 감소하였다. 반면 철광석 수출은 전년 대비 39%가 증가하였지만, 수출 광업에서 무연탄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수출 광업 전반으로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수출 및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용 석탄 광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부문인 발전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연료탄 증산 노력이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산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⁴⁾ 석탄 광업 부문이 타 산업에 비해 성과 보도 빈도가 높지만 2016년에 비해서는 성과 보도 빈도 및 구체성이 떨어진다. 석탄광업 전반의 성과 보도는 6월 21일까지 상반기 계획을 수행하였다는 보도 등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성과보도가 크게 줄어들었다.⁵⁾ 석탄 이외의 광업 부문에서는 대중 철광석 수출이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지만, 내수부문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업 부문 전반의 성과 보도가 없는 가운데, 주력 광산인 무산광산의 생산 성과에 대한 보도가 전무하고,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성과 보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별다른 투자 동향도 파악되지 않았다.

2. 제조업

가. 중화학공업

2017년 중화학공업 부문은 전년에 비해 생산 및 투자활동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기계 및 원부자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산화 정책의 지속 등에 따라 기계공업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수력발전의 부진에 따른 전력 공급 감소나 속도전 이후의 노동력 및 물자 투입 둔화 등 부정적인 요인이 더

4) 제한적이지만 수출이 막힌 일부 수출용 탄광이 내수용 생산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연탄 수출 증단은 내수용 석탄 생산에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이는 2017년 북한 산업 전반의 성과 보도의 특징이기도 하다.

우세하였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력과 함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부문으로 설정하고 있는 금속부문은 전력 공급의 감소 등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공식매체에서도 금속부문 전반의 성과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으며,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소의 생산 성과가 보도되지 않는 등 생산 성과 보도가 전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다. 황해제철소의 ‘주체철’ 생산 실적에 대한 보도가 2017년 금속부문 성과 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⁶⁾ 주요 제철소 중에는 천리마제강소의 압연강재 및 강철 생산 실적이 보도되었다.⁷⁾⁸⁾ 다만, 대중 선철 수출이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는데, 북한 매체는 김책제철소 등의 수출용 제품 생산 실적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속부문의 성과 보도 감소가 생산의 절대적인 감소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⁹⁾ 한편, 북한은 김책제철소에 생산 능력이 큰 산소열범용광로와 대형 산소분리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선철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¹⁰⁾ 청진제강소의 새로운 구단광 생산 공정도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화학공업 역시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 자력경제를 위한 소재 공급 역량 확충 노력은 여전히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7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위하여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 메탄을 생산 공정이 건설 중이지만 아직 준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책제철소의 산소열범용광로와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메탄을 생산 공정 건설을 위한 투자는 김정일 집권 이후 발전소 이외에 처음으로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를 한 것이다.

반면 기계공업은 최근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금성트랙토르공장과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는 2015~16년에 각각 신형 80마력 트랙터와 5톤 트럭을 개발하였는데, 2017년에 이들 신형 트랙터와 트럭의 양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¹¹⁾¹²⁾ 이전에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던 이들 공장의 생산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내장재 등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활동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연결농기계 등 농업용 기계의 생산이나 어선을 비롯한 선박의 건조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기계공업 부문은 생산 성과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다.¹³⁾ 평양자동차기공공장 등이 포함된 전자공업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자주 보도되

6) 황해제철소는 11월 주체철 생산 계획을 완수하였다고 보도되는 등 거의 매월 생산 성과가 보도되었다.

7) 천리마제강소는 8월 말에 연간 압연강재 생산계획을 완수하였으며, 강철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다고 한다. 『노동신문』, 2017. 9. 11.

8) 그 밖에는 청진제강소와 청진강재공장의 성과가 보도된 정도이다.

9) 북한은 중국에 선철 및 합금철을 수출하고, 강철 및 강철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2011년 1억 5,500만달러까지 증가했던 북한의 대중 선철 수출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2017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무연탄 등 지하자원 수출 통제에 따라 외화 수입을 위해 국내에서도 부족한 선철을 수출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10) 김책제철소의 산소열범용광로는 북한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는 황해제철소의 산소열범용광로보다 생산 능력이 크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능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산소열범용광로는 북한이 전량 수입하는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는 소위 ‘주체철’을 생산하는 용광로이다.

11) 노동신문은 2017년 10월 21일, 25일에서 각각 금성트랙토르공장과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 신형 트랙터 및 신형 트럭의 생산 목표를 완수하고, 시운전과 주행시험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12) 이와 함께 종래 8마력 소형 트랙터를 생산하던 충성호트랙토르공장에서 2017년에 12마력 소형 트랙터를 생산한 것도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었다.¹⁴⁾ 시멘트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자재공업은 최근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경공업

경공업은 전력 공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섬유류의 대중 수입은 증가하는 등 공급 역량에서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지만, 연중 내내 속도전이 진행된 2016년과 같은 생산 확대 추세가 지속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 전반이나 섬유·의류, 식품가공 등 부문별 성과 보도가 거의 없는 가운데, 개별 공장의 성과가 일부 보도되었다.¹⁵⁾ 경공업 부문에서는 생산 성과보다는 류원신발공장이나 평양화장품공장 등 확장·현대화된 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가방천 생산 공정 등 새로운 생산 공정, 그리고 김치 공장 및 가방 공장의 신규 건설 등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평양화장품공장이나 류원신발공장은金正은의 현지 지도 등을 통하여 현대화된 본보기 공장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아울러 경공업 분야에서 새롭게 개발된 제품의 선전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3. 건설

건설부문의 생산활동은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건설 경기를 주도하였던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4월 러명거리 완공 이후에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¹⁶⁾ 단천발전소가 새롭게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새로운 생산 설비투자가 시작되었지만 그 강도는 2015년이나 2016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요 설비투자 사업이 2017년 5월 경에야 착공되었으며, 11월에 완공된 김책제철소 산소열병용광로 건설 공사를 제외하고는 진행 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⁷⁾ 물길 공사 등 대규모 토목 공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2015, 16년과 같은 대규모 수해복구 사업도 없었으며,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대규모 건설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다.

13) 『노동신문』, 「기계공업성 산하 20여개 공장·기업소 상반기 공업 총 생산액, 중요 지표별 계획 완수」, 2017. 6. 8; 『노동신문』, 「기계공업성 공작기계공업관리국 기업들 연간 경제계획 지표별로 수행」, 2017. 11. 26; 『노동신문』, 「채취기계공업국, 9월말 연간 공업총생산액 계획 9% 초과 수행」, 2017. 10. 15. 등

14) 『노동신문』, 「전자공업성, 10월 1일까지 연간 계획 4.5% 초과 수행」, 2017. 10. 20.

15) 부분별 실적 보도는 평양시 피복공업관리국이 7월 19일까지 연간 계획을 완수했다는 보도(『노동신문』, 2017. 8. 7)나 잠업비단공업국에서 누에 고치를 전년에 비해 수십톤 증산했다는 보도(『노동신문』, 2017. 11. 10) 정도이다.

16) 평양시의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종료하고, 지방의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는 정책기조의 변화 때문인지, 수입 건설자재 수요가 큰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때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 예를 들면 당창간기념일이나 7차당대회를 앞두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조기 완공을 위해 국가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지원한 것에 비하면 7차당대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명한 단천발전소의 건설 과정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III. 평가 및 전망

2017년 북한의 산업과 실물부문은 가뭄과 2016년의 강력한 속도전 이후의 조정, 그리고 경제제재에 따른 대외무역의 감소 등으로 전년에 비해 정체 혹은 소폭 후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업과 농업, 그리고 건설업이 부진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전력 및 제조업은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후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경제제재는 수출 광업을 중심으로 광업 부문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지만 대중수입이 4.3% 증가하여 북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8월 이후 자본재의 수입이 줄기 시작하고, 감소세가 지속되어 8월 이후에는 북한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량 부족으로 수력발전량이 다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농업진흥청은 2017년 북한의 농업 생산이 약 2%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7년에 기후 조건이 북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한국은행 추정치 기준으로 농업과 수력발전이 5%와 20% 감소한 2015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북한 산업 전반에 가장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2016년에 300일 가까이 추진된 속도전 이후의 조정 필요성인 것으로 보인다. 속도전은 통상적인 목표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노동력과 자원을 앞당겨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속도전은 일시적으로는 생산 및 투자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속도전 종료 이후에는 대부분 상당 기간 동안의 조정기를 거친다. 2016년의 속도전이 김정일 시대의 속도전보다는 그 강도가 낮기는 하였지만 거의 연중 내내 지속되었기 때문에 2017년에 조정기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속도전의 후유증을 우려한 결과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이 경기 활성화보다는 안정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 확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 속도전의 후유증이나 안정화 정책 기조의 영향은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만리마속도’나 ‘만리마정신’을 강조하였지만 이는 2016년과 같은 속도전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경제 선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조차 연말로 갈수록 언급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만리마정신’에 따른 경제성과를 결산하기 위해 개최하기로 한 ‘만리마선구자대회’는 결국 개최되지 않았다. 다만, 대중 자본재 수입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국산화나 시장화에 대한 정책기조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북한의 산업과 실물부문은 2017년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계를 및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북한 산업의 순환에 불가피한 자본재의 대중수입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어 '수출 증대→외화 수입→수입확대→생산 및 투자증대'라는 2000년대 북한경제의 회복 및 성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 2018년에도 북한 당국은 경기 확장보다는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활동은 자제하고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 확대를 주된 정책기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2018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은 2017년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이 어느 정도 생산 역량이 확충된 기계공업을 기반으로 국산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시장화 정책 기조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북한 산업이 급격하게 침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기계 및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대신에 내부에서 조달하면서 생산 및 투자활동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부문에서는 생산활동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산업 전반의 질적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머지않아 질의 악화뿐만 아니라 양적 위축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이석기, 『2016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7년 전망』, 산업연구원, 2017.
- 『노동신문』, 「줄기찬 련속공격전으로 안아온 자랑찬 성과」, 2017. 06. 08.
- 『노동신문』, 「연간계획완수단위들이 늘어난다」, 2017. 10. 15.
- 『노동신문』, 「새형의 트랙토르 생산목표 돌파」, 2017. 10. 21.
- 『노동신문』, 「새형의 화물자동차 생산목표 점령」, 2017. 10. 25.
- 『노동신문』, 「연간 압연강재 생산계획 완수, 강철 생산실적 1.2배」, 2017. 11. 11.
- 『노동신문』, 「전력증산의 불길 세차게 지퍼올린다」, 2017. 11. 17.
- 『노동신문』, 「연간 인민경제계획 지표별로 수행」, 2017. 11. 26.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장 | hgjeong@kiep.go.kr

I. 들어가는 말

2017년은 북한 당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한 해였다. 2016년 두 차례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이어 2017년에는 네 차례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있었다.¹⁾ 시간이 지날수록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강도는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북한 주변국의 양자제재 역시 그 범위가 넓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특히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보다 더 목표 지향적이었다. 즉, 이전의 제재에 비해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제가 더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북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로 강화되었다. 우선 두드러진 제재는 UNSCR 2371호(2017. 8. 5)이다. UNSCR 2371호는 북한으로부터의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특별히 UNSCR 2371호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의 고용을 현 상태에서 동결시킴으로서 북한 당국의 외화 획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을 금지했고 기존 사업의 확대 역시 금지했다. 북한 당국의 6차 핵실험 이후 발표된 UNSCR 2375호(2017. 9. 11)는 북한의 수출입에 대한 제재를 더욱 더 강화했다. UNSCR 2375호는 2017년 4분기의 북한 원유와 정제유의 수입량을 50만배럴로 제한했으나 2018년의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은 현 공급량의 55% 수준인 200만배럴로 제한했고 원유의 경우는 현재 수준인 400만배럴로 동결했다. 또한 NGL(Natural Gas Liquid)

1) 제7차 UNSCR 2356(2017. 6. 2), 제8차 UNSCR 2371(2017. 8. 5일), 제9차 UNSCR 2375(2017. 9. 11), 제10차 UNSCR 2397(2017. 12. 22).

과 콘덴세이트의 대북수출은 전면 금지시켰다. UNSCR 2375호는 또한 식물 및 의류 완제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신규취업 허가를 금지했으며, 기존 파견 노동자들의 비자갱신도 금지시켰다. 아울러 북한과의 합작사업도 금지시켰고 동시에 기존 합작사업의 경우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하였다. 화물 이동 역시 제재를 강화했는데, 북한 선박의 공해상에서의 화물 이동 역시 금지했다.

11월 29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대응조치로 발표된 UNSCR 2397호(2017. 12. 22)는 북한 노동자를 결의안 통과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소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유의 대북수출에 있어서도 민생용의 경우만 매년 400만배럴 이하로 허용했으며, 석유 제품에 대해서도 오직 민생용으로만 매달 30일마다 유엔안보리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연 50만배럴까지만 수출하도록 제한했다. 더 나아가 2397호는 식품이나 농산품(HS코드 07, 08, 12) 기계류(HS코드 84, 85), 전자기기(HS코드 85), 토석류(HS코드 25), 목재(HS코드 44), 선박(HS코드 89)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함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도 강화했다. 우선 2017년 8월에 이란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 현대화법을 제정했고, 재무부 제재대상을 확대 발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더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²⁾

상기 언급한 대북제재와 관련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과 북한경제는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까? 보고는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과 북한경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대중무역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해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고려해야할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수출입은 90% 이상이 중국과의 무역이다. 따라서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북중 수출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앞서 언급했듯이 최우선 관심사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북한의 2017년 수출입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석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수출입에 대해서 품목별 제재가

2) 국제사회의 다자 또는 양자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임소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KIEP 기초자료, 2018. 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북한의 수출입 전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사치품과 군수물자나 이중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외화 수입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대북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인 대북제재 효과는 이들 제한 품목군에 한해서 분석해야 한다. 물론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제재 효과가 있긴 할 것이나, 이 효과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다.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제재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은 제재의 직접적 효과, 즉 비교적 단기적인 차원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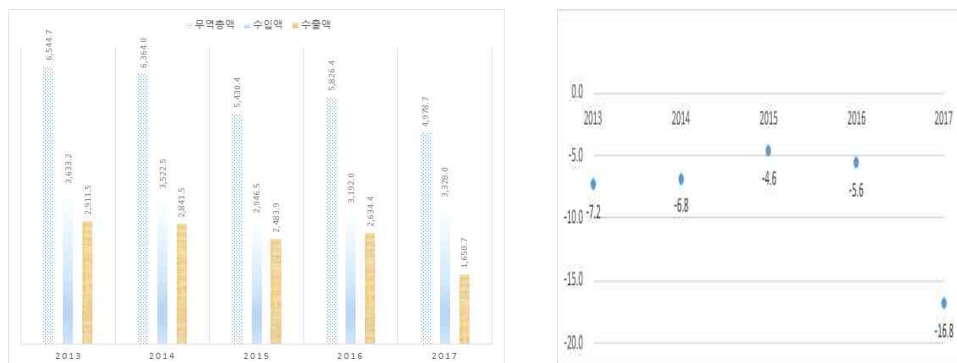
1. 2017년 북한의 대중무역 현황

2017년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49.78억달러로 2016년 58억달러에 비해 약 8.5억달러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14.5%가 줄었다. 먼저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6년 26.3억달러에서 37.3% 감소한 16.5억달러로 감소하였다. 반면 수입은 2016년 31.9억달러에서 1.4억달러 증가한 33.3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4.3% 증가하였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의 무역액은 2013년 65.5억달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북한의 대중수출 폭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2017년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회복되었고 2013년과 2014년 평균치에 근접한 것을 볼 수 있다. 수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도 2017년에는 16.8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좌)과 무역수지(우)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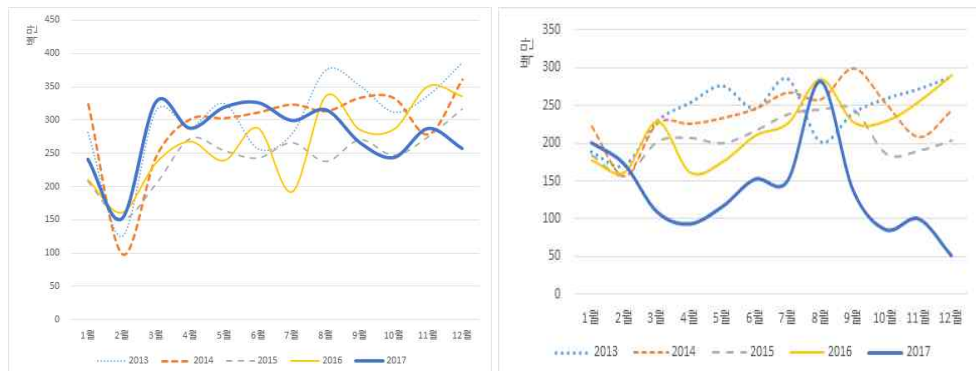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2. 월별 대중무역 현황

다음 [그림 2]의 (좌)는 2017년 북한의 대중 월별 무역동향을 최근 5년간 추세와 비교한 것이다. 대체로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초에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하반기로 갈수록 그 수입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7년 북한의 대중수입은 2월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5년 치의 추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다 8월 이후 증가추세가 꺾이고 있다.³⁾ 하반기에 들어 북한의 대중수입이 추세상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2017년 북한의 대중수입 총액은 최근 5년 평균치 33.2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래 [그림 2]의 (우)는 2017년 북한의 월별 대중수출 변화를 최근 몇 년간 추세와 비교한 것이다. 월별 수출 역시 수입처럼 연초에는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하반기로 갈수록 그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17년 월별 수출은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근 동향과는 달리 1월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한다. 4월 이후 반등은 하지만 최근 5년 간 같은 달의 추세치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출액이며, 8월에 들어 급격히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만 9월 이후 다시 급락하여 12월에는 최근 5년치 월별 수출액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5천만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2]의 월별 대중 수출입 추세를 비교해 보면 북한의 수입은 수출에 비해 제재효과가 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17년 북한의 대중 월별 수입(좌) 및 수출(우) 동향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3) 아래 그림에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 3년치의 월별 대중 수입량만을 표기했으나, 2013년 이후 5년 간 월별 대중수입 추세를 비교해 보면 2017년 상반기의 대중수입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3. 주요 품목별 대중무역 현황

가. 주요 수출품목

앞서 언급했듯이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6.5억달러로 2016년 26.3억달러에 비해 37.3% 감소하였다. 아래 <표 1>은 품목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다. 상위 6개 품목이 북한의 대중수출의 약 85%를 차지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북한의 대중수출은 모든 품목에서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의 제1 대중수출 품목은 의류와 그 부속품으로 분류되는 HS코드 62군(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제외)이다. 이 품목군은 4.97억 달러를 수출했으나 전년 대비 18.8%나 감소하였다. 절대적 수출량은 감소했으나 <표 2>에서와 같이 동 품목이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오히려 전년대비 크게 증가해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수출 2위 품목은 무연탄이 포함되어 있는 HS코드 27 품목(광물성연료·광물유(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군 이다. 동 품목군은 무연탄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제1 수출 품목군으로 북한 전체 대중수출에서 45% 정도를 차지했던 주요 수출품목이었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65.2%나 감소해 4.12억달러 밖에 수출을 못했다. 2017년 북한의 총 수출에서 동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급감해서 무연탄에 대한 제재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 3위를 차지한 HS코드 26(광·슬래그·회) 품목군은 2위 품목군에 비해 수출액이 크게 떨어진 1.87억달러를 수출했고 전년대비 17% 정도 감소했다. 전체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 가량 된다.

HS코드 62에 해당하는 어류·갑각류의 수산물 역시 대중 수출액이 전년대비 16%나 감소했고 대중 수출액은 1.63억달러(대중수출의 5%)에 그쳤다. 반면 식용 과일류(HS코드 08)는 7,900만달러로 그 수출액은 적지만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HS코드 61 품목군(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 적용) 역시 대북제재로 인해 전년대비 42%나 감소한 6,500만달러를 수출했다. 이는 북한 대중수출의 4% 정도의 수출량이다.

〈표 1〉 최근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 실적 비교(HS2단위)

(단위: 천달러, %)

	분류		2014		2015		2016		2017	
	품목	HS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1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제외)	62	622,034	24.6	633,206	1.8	611,500	-3.4	496,741	-18.8
2	광물성연료·광물유(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7	1,146,386	-17.5	1,057,042	-7.8	1,187,115	12.3	412,722	-65.2
3	광·슬래그·회	26	339,349	-18.3	204,662	-39.7	225,351	10.1	187,493	-16.8
4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03	143,257	25.9	108,476	-24.3	190,094	75.2	162,822	-14.3
5	식용 과일; 견과류, 껍질을 벗기는 열매나 멜론 등	08	111,277	243.3	43,033	-61.3	50,833	18.1	78,893	55.2
6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 적용)	61	118,985	35.4	166,097	39.6	111,872	-32.6	65,254	-41.7
수출 총액			2,841,476	-2.4	2,483,944	-12.6	2,634,400	6.1	1,650,670	-37.3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표 2〉 품목별 대중수출 비중 비교(HS2단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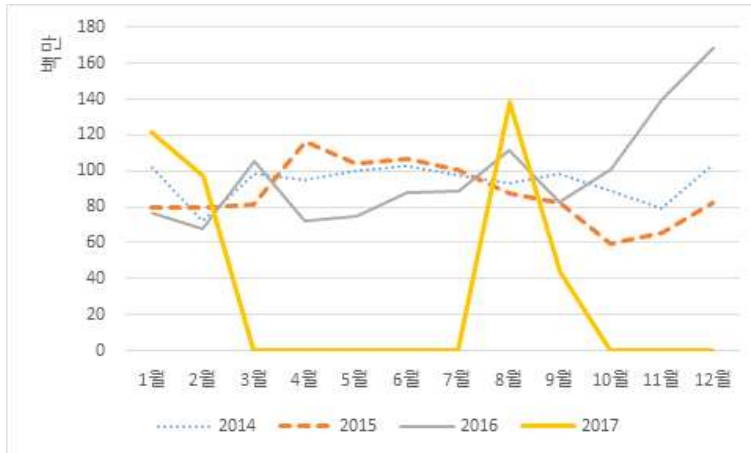
	분류		2014	2015	2016	2017
	품목	HS				
1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제외)	62	22	25	23	30
2	광물성연료·광물유(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7	40	43	45	25
3	광·슬래그·회	26	12	8	9	11
4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03	5	4	7	10
5	식용 과일; 견과류, 껍질을 벗기는 열매나 멜론 등	08	4	2	2	5
6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 적용)	61	4	7	4	4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1) 무연탄

북한산 무연탄(HS코드 270111)은 UNSCR 2321호(2016. 11. 30)와 중국 상무부 고시 12호(2017. 2. 17)에 의해 2017년 3월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아래 [그림 3]에서와 같이 동 품목은 2016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급격히 증가해 2016년에 11.8억달러를 중국으로 수출했다. 무연탄은 북한의 수출에서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그림 3]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비교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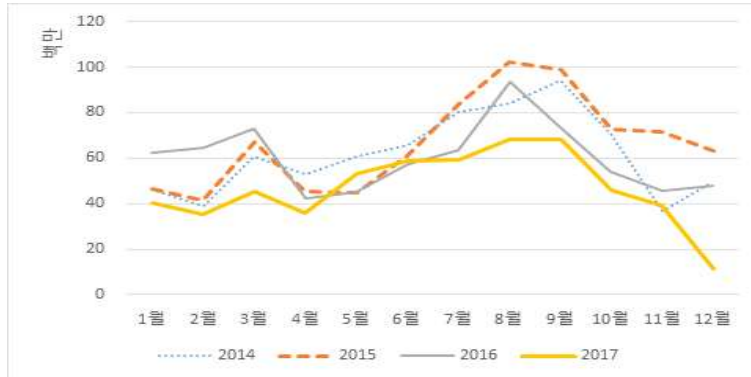
품목이었다. 그러나 북한 무연탄의 대중수출은 2016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전년대비 66% 감소한 4억달러를 수출했다. 동 품목은 1월과 2월 그리고 8월과 9월을 제외하고는 대중 수출량 제로(0)를 기록하였다.

2) 의류

북한의 의류 품목(HS코드 61, 62)은 UNSCR 2375호(2017. 9. 11)와 중국 상무부 고시 52호(2017. 9. 23)에 의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⁴⁾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5년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은 약 8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22.3% 감소해 7.2억달러로 줄었고, 2017년도에는 동 품목에 대한 제재로 인해 10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총 5.6억달러만을 수출했다.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대중 수출액의 감소로 의류는 북한의 대중 수출액중 34%를 차지했다.

4) UNSCR 제재에서 HS코드 61과 62의 하부 단위의 일부는 제재 품목이 아님.

[그림 4]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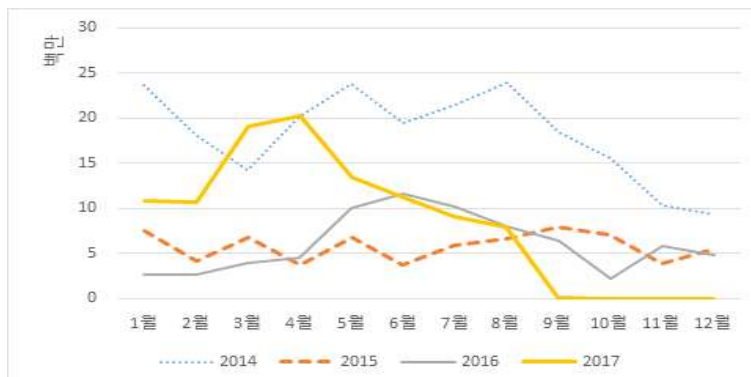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3) 철광석

철광석(HS코드 71, 2601)은 UNSCR 2371호(2017. 8. 5)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2017. 8. 14)에 의거 2017년 9월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철광석은 북한의 대중수출에 있어서 그 비중(2016년 기준)이 타 광물자원에 비해 높지 않다. 2016년 북한 철광석의 대중 수출액은 0.73억달러였다. 이는 타 광물자원의 대중수출과 비교할 때 큰 비중은 아니었으나, 2014년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4월 이후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제재가 시작된 9월부터는 급격히 감소했다. 총액상으로 보면 북한 철광석의 2017년 대중수출은 총 1억달러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43% 증가하였다.

[그림 5] 북한의 대중 철광석 수출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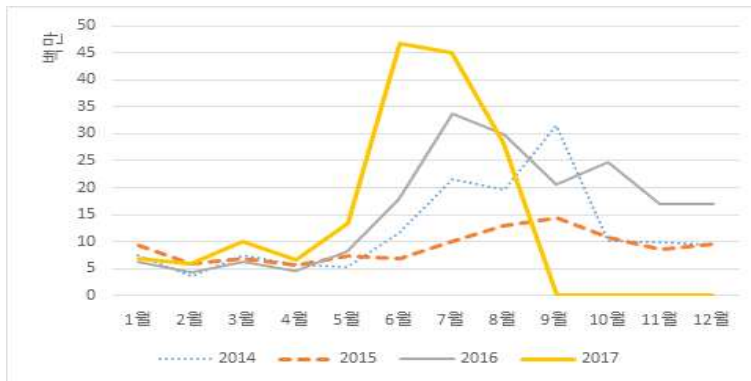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4) 수산물

수산물(HS코드 03)은 UNSCR 2371호(2017. 8. 5)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2017. 8. 14)에 의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2016년에는 중국으로 북한산 수산물이 약 1.9억달러 수출되었고, 이것이 북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2% 정도였다. 제재의 영향으로 2017년 북한 수산물의 대중수출은 1.6억달러로 감소했으나 오히려 북한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를 기록했다.

[그림 6] 북한의 대중 수산물 수출액 비교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나. 주요 수입품목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33.3억달러로 최근 5년 평균치 수준을 회복하였다.

아래 <표 3>은 품목별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다. 상위 5개 품목이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38%를 차지한다. 앞서 북한의 대중수출에 있어서 상위 5개 품목이 총 대중수출의 85%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수입의 경우 그 품목의 집중 현상이 수출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제1품목군은 HS코드 85에 해당되는 전기기기와 그 부품들로, 총 수입액은 3.4억달러였다. 이 품목군은 최근 꾸준히 제1수입 품목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전체 북한의 대중수입에 있어서 약 10%를 차지한다. 두 번째 수입 품목군은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으로 총 수입액은 2.7억달러였고 이 품목들의 수입은 전년대비 미미(-0.4%)하게 감소하였다. 세 번째 수입품목은 플라스틱과 그 제품(HS39)군으로 이 품목들의 수입은 13.1% 증가해 전년대비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다. 동

제품군이 북한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이다.

네 번째 수입품목은 인조필라멘트·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HS54) 품목으로 전체 수입에서 약 7%의 비중을 차지하고 2017년에는 2.2억달러를 수입했다. 동 품목의 수입은 크게 증가해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입품목은 전체 대중수입에서 6%를 차지하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HS87)이다. 이 품목군의 수입액은 2억달러 조금 넘고, 전년대비 20.6%나 감소하였다.

〈표 5〉는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입량에 있어서 큰 변화가 동반된 품목군을 정리한 것이다. 가장 증가폭이 높은 수입품목을 냉동명태(HS 030367)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다. HS코드 03군에 해당하는 수산물 역시 수입이 37%나 증가했다.

〈표 3〉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 비교(2014~17년)

(단위: 천달러, %)

	분류		2014		2015		2016		2017	
	품목	HS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1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	419,769	65.3	332,361	-20.8	315,479	-5.1	338,133	7.2
2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	310,260	17.9	252,094	-18.7	268,607	6.6	267,599	-0.4
3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193,431	36.2	168,037	-13.1	204,533	21.7	231,388	13.1
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54	166,278	14.2	151,664	-8.8	187,042	23.3	218,834	17.0
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	210,517	-12.2	196,189	-6.8	254,802	29.9	202,422	-20.6
수입총액			3,522,515	-3.0	2,946,464	-16.4	3,192,031	8.3	3,328,032	4.3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표 4〉 품목별 대중 수출 비중(HS2단위, 2014~17년)

(단위: %)

	분류		2014	2015	2016	2017
	품목	HS				
1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	12	11	10	10
2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	9	9	8	8
3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5	6	6	7
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54	5	5	6	7
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	6	7	8	6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인테리어용 내외장재(HS 69) 역시 전년대비 41%나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아울러 가구와 건축용 목재(HS 94)도 전년대비 24%나 상승했는데, 이는 김정은 집권이후 국내경기부양을 위한 ‘건설업에 대한 정책적 독려’에 따른 수요증가로 해석된다. 섬유류(HS 54, 55, 56, 60)와 의류(HS 60)는 전체적으로 각 품목마다 전년대비 20%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수요에 따른 원자재의 수입으로 해석할수도 있으나 일부의 경우 다시 중국으로 재가공되어 수출되었다. 2017년의 경우 섬유류에 대한 수출제재로 인해 이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 의류(HS 61)수출은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는 품목군은 광물유류(HS코드 27: 광물성연료·광물유(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로 전년대비 50.9% 감소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 때문이다. 철강류(HS 72)와 운송수단(HS 87)의 수입도 각각 26%와 21% 감소하였다. 과일과 견과류(HS 08)의 수입은 33% 감소하여 두 번째 큰 폭으로 수입이 하락한 품목이다. 그 밖에 고무류와 섬유류의 수입도 크게 감소하였다.

〈표 5〉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비교(2014~17년)

(단위: 천달러, %)

	2014		2015		2016		2017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냉동명태(HS 030367)	12,167.1	70.2	19,303.1	58.6	23,253.6	20.5	37,647.8	61.9
인테리어용 내외장재(HS 69)	48,082.9	41.5	49,589.4	3.1	46,589.5	-6.0	65,788.4	41.2
수산물(HS 03)	73,290.8	12.8	84,833.5	15.7	74,343.3	-12.4	102,154.7	37.4
가구와 건축용 목재(HS 94)	56,313.1	59.5	42,980.0	-23.7	48,608.8	13.1	60,439.5	24.3
유지류(HS 15)	112,761.7	30.8	104,627.0	-7.2	99,498.1	-4.9	121,549.5	22.2
섬유류(HS 56)	55,749.0	12.8	41,138.9	-26.2	50,101.5	21.8	60,103.8	20.0
섬유류(HS 60)	89,706.2	35.8	75,468.3	-15.9	84,494.5	12.0	101,041.8	19.6
의류(HS 60)	89,706.2	35.8	75,468.3	-15.9	84,494.5	12.0	101,041.8	19.6
섬유류(HS 54)	166,277.7	14.2	151,664.2	-8.8	187,042.4	23.3	218,834.3	17.0
플라스틱류(HS 39)	193,430.8	36.2	168,037.3	-13.1	204,533.3	21.7	231,388.5	13.1
섬유류(HS 55)	96,174.9	-1.8	62,764.6	-34.7	71,183.5	13.4	79,650.5	11.9
의류(HS 61)	114,717.8	34.8	96,104.8	-16.2	134,823.4	40.3	117,119.4	-13.1
운송수단(HS 87)	210,516.5	-12.2	196,188.9	-6.8	254,801.7	29.9	202,422.3	-20.6
고무류(HS 40,)	85,970.5	4.3	75,296.4	-12.4	79,040.5	5.0	59,522.1	-24.7
철강류(HS 72)	108,900.5	17.7	111,789.6	2.7	115,288.5	3.1	85,189.0	-26.1
과일과 견과류(HS 08)	31,944.8	74.2	54,384.7	70.2	99,629.1	83.2	66,973.7	-32.8
광물유류(HS 27)	191,430.6	-74.2	147,294.5	-23.1	141,569.0	-3.9	69,506.2	-50.9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III.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관계를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최근 통계와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북한의 대중수출에 있어서 현격히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현재와 같은 제재가 지속된다면 2018년에는 제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만을 크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중국이 국제사회와 같은 목표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 중국도 2017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제재가 2018년에도 지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경로로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2018년에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관건은 여전히 중국인데, 무역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2017년도에 발표한 상무부 고시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한다면 2018년 북한의 교역은 2017년보다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대중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대 품목이 제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2018년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통계상으로 나타난 북한의 2017년 대중수입 제재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는 수출 품목만큼 수입제재 품목이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치품 등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도 북한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⁵⁾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관련된 최소한의 품목을 제외하고 북한의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북한의 생필품 물가가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수입제재는 북한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전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18년 북한의 외화수입은 현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북중간 무역수지 적자도 대폭 증가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얻었던 달러 수입도 2018년부터 급격히 감소될 전망이다. 이미 북한 당국의 외화 수입 감소로 당장 필요로 하는 자본재와 에너지 수입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 전반의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⁵⁾ Jeong, Hyung-gon and Bang Hokyung, "The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s Luxury Goods Imports," KIEP Staff paper 17-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7. 참조.

것이다. 특히 외화자산의 감소는 식량과 소비재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보다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정상적인 무역거래도 감소하고 있고, 외국 금융기관이나 업체들이 북한의 기관과 무역회사들과의 정상적 무역사업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외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더욱이 북한기업의 해외자산 및 은행계좌 동결에 따른 해외자산의 감소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총련의 대북송금 등을 포함한 기타 무역외 거래 역시 상당부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재 효과가 더 가시화될 2018년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2018년은 김정은 집권이후 추진해 온 경제적 분권화와 이를 통한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북 유화정책으로 전환하여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해 낼 수도 없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핵폐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당근을 받아들이는 편이 향후 경제제재나 기타 군사적 압박을 당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보여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강력한 제재안과 동시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괄적인 당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는 것이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고 미국과의 협상인데, 미국은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Nunn-Lugar법⁶⁾에 기초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CTRP)’과 같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고, 이를 통해 보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 법안에 지원 내용과 기간, 규모, 효과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만 한다. 또한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타결 시 제공될 수 있는 정치, 안보, 외교적 보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보상으로는 미·북 수교와 평화체제 수립, 경제적 보상으로는 인도적 대북지원, 대북 투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제적 보상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공약을 위반할 경우 즉시 추진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재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6) Nunn-Lugar법은 지난 1990년대 초, 미 상원의 리처드 루거(Richard Lugar) 의원과 샘 넌(Sam Nunn)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미국은 이 법안을 근거로 한 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의 핵무기 해체를 돕기 위해 자금과 기술, 장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참고문헌

- 임소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KIEP 기초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정형곤 · 김병연 · 이석,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연구보고서 12-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최장호, 「2017년 북중 무역평가와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Jeong, Hyung-gon, “Initial Conditions, Economic Performance, and Reform Prospects in North Korea,”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6, No. 4, 2013.
- Jeong, Hyung-gon and Bang Hokyung, “The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s Luxury Goods Imports,” KIEP Staff paper 17-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7.

〈웹사이트〉

-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접속일: 2018. 2. 24.).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접속일: 2018. 2. 24).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 접속일: 2018. 2. 24).

2017년 북한의 시장 실태와 2018년 전망

임강택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tlim@kinu.or.kr

I. 들어가는 말

2017년 북한시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의외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북한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다는 견해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미리 예상하여 나름대로 주요 물자의 비축량을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시장의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시장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서 어지간한 외부 충격에는 견딜 수 있게 내성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북한에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체계하에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장 규모와 영역이 함께 증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일명 ‘돈주(붉은 자본가)’를 중심으로 시장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민생부문은 예외로 하고 있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은 제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오히려 북한의 상품 수출이 중단되면서 석탄과 수산물과 같은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북한 내수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시장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제재효과가 북한시장에서 가시적으로 관찰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부과되었다. 4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더하여 미국과 중국 등의 독자제재까지 고려하면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경제제재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 현상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시장의 물가변화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북한시장은 예상과는 달리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고민하였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북한 당국의 위기대처 능력, 시장의 충격흡수 역량, 민생부문의 예외적 적용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북한시장에 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물론 제재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원인들이 언제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힘들다.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이 조치들이 누적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2018년 1월 초부터 중국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북한시장의 상황은 2017년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북한 당국의 관리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며, 시장에 대한 충격도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II. 북한의 시장 가격: 대북 제재와의 관계

1. 유엔의 대북제재와 중국의 후속 조치

가. 2017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017년 북한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5차 핵실험(2016. 9. 9)에 대응한 결의안 제2321호 채택(2016. 11. 30)부터라고 할 수 있다.¹⁾ 이전에 비해서 강력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제재안의 특징은 무엇보다 북한산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연간 4억달러 또는 750만톤으로 설정하고, 은·동·아연·니켈 등의 북한산 광물 수출을 금지시킨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주민들이 많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로부터 얻은 수입으로 이들의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도 4차례에 달하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북한의 중거리급

1) 외교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2016. 12. 1.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대응한 결의안 제2356호(2017. 3. 2)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2017. 7. 4, 7. 28)에 대한 결의안 2371호(2017. 8. 5)는²⁾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는데,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들인 석탄, 철과 철광석, 납과 연광석,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석탄에 이어 수산물의 수출이 중단됨으로써, 이번 제재안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 기업과의 신규 합작투자 금지 및 기존의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추가 투자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력의 추가적인(신규) 해외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을 기회가 감소함으로써 시장의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2017. 9. 3)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2017. 9. 11)하였으며,³⁾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⁴⁾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섬유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해외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를 금지시킴으로써 북한 당국의 외화 수입원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류 공급의 제한은 북한시장의 이동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섬유 수출의 전면 금지는 대규모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북한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의 ‘화성-15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2017. 11. 29)에 대응하여 안보리 대북결의안 2397호가 채택(2017. 12. 22)되었다. 여기에는 유류 공급 차단, 정유제품 공급량을 50만배럴로 대폭 축소, 원유 공급 한도 400만배럴로 명시,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 의무화, 추가 도발 시 유류 공급 추가 제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 2년 이내 송환(기존에는 신규 고용과 계약 연장 금지), 산업기계·운송수단·금속류 대북수출 차단, 식용품·농산품·기계류·목재류 대북수입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부과되었으며, 북한경제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부자재와 설비 및 장비의 대북수출이 금지되

2) 외교부(보도자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2017. 8. 6.

3) 『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 결의...유류 공급 30% 차단·섬유 수출 전면금지」, 2017. 9. 12.

4)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차단, 대북 원유 수출을 년 400만배럴(기존의 평균 수출 규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정유제품 수출은 연간 450만 배럴(기존 평균 수출규모)에서 200만배럴로 상한을 설정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휘발성 액체탄화수소)의 대북수출을 전면 금지함. 이로써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이 약 30%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었고, 북한의 외화 수입원 대부분이 제재 대상에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 조치를 제외하고는 동원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거의 다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중국의 후속 제재조치

2017년 1월 25일, 중국 상무부는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부,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대북 수출금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추가 목록에 대한 <2017년 제9호 공고>’를 발표하였는데, 이 대북 제재조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질산암모늄과 원심분리기, 항공·해양 관련 장비 등 핵, 미사일과 화학무기 등의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의 물품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⁵⁾

2월 8일에는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2017년 제12호 공고>를 발표하고, 상무부와 해관총서(우리의 관세청에 해당되는 기관)가 공고한 ‘2016년 제81호’에 근거하여 2017년 12월까지 북한 석탄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⁶⁾ 이 조치는 유엔안보리 제재안 2321호에서 규정한 북한 석탄 수출량 상한선 조항에 따른 것이다.

8월 14일에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조치 <2017년 제40호 공고>를 발표하였다.⁷⁾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 보도문에 따르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내린 조치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철, 철광석, 납, 납광석, 그리고 수산물 등이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 품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 26억 3,440만달러의 61.7%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8월 25일에는 상무부가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 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7년 제47호 공고>를 발표하였다.⁸⁾ 이에 따르면, 향후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앞으로 중국에서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 등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북한 식당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9월 22일, 중국 상무부는 북한에 대해 석유정제제품 수출 제한과 섬유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2017년 제52호 공고>를 발표하였다.⁹⁾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호를 이행하기

5) 『KONASnet』, 「중국 대북수출금지 리스트 대폭 추가」, 2017. 1. 26.

6) 『연합뉴스』, 「중상무부, 내일부터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발표」, 2017. 2. 18.

7) 『연합뉴스』, 「中, 북한산 석탄·철·수산물 금수…北 수출 62%감소」, 2017. 8. 14.

8) 『연합뉴스』, 「중상무부, 북한과 합작기업 설립·투자 확대 금지 공고」, 2017. 8. 26.

위한 것으로, 콘텐사이트와 액화천연가스의 수출을 9월 2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또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6만톤)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도 전면 금지하였다.¹⁰⁾

9월 28일에는 중국 내에 설립한 북한 기업들을 12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호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치에 따르면,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2018년 1월 9일까지 폐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2017년 초반 2월에는 북한산 석탄 금수조치가 단행되었으며, 8월에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어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 확대를 금지하였다. 9월에는 북한에 대해 석유정제제품 수출 제한과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금지에 이어 중국 내에서 설립된 북한 기업들을 12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한산 석탄 수출은 2월부터 제약을 받았으며, 수산물 수출은 8월부터, 석유제품 수입과 섬유제품 수출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었다.

2. 식료품가격과 석유가격의 변화

가. 식료품가격과 대미달러 환율의 변화 추이

북한에서 당국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가지표는 쌀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시장의 쌀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2017년 쌀가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5,000~6,000원(북한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¹¹⁾ 특히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2017년 말로 갈수록 제재의 강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북한시장에서 쌀가격이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시장의 미 달러 환율의 변화 추이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8,000~8,100원 대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 환율이 안정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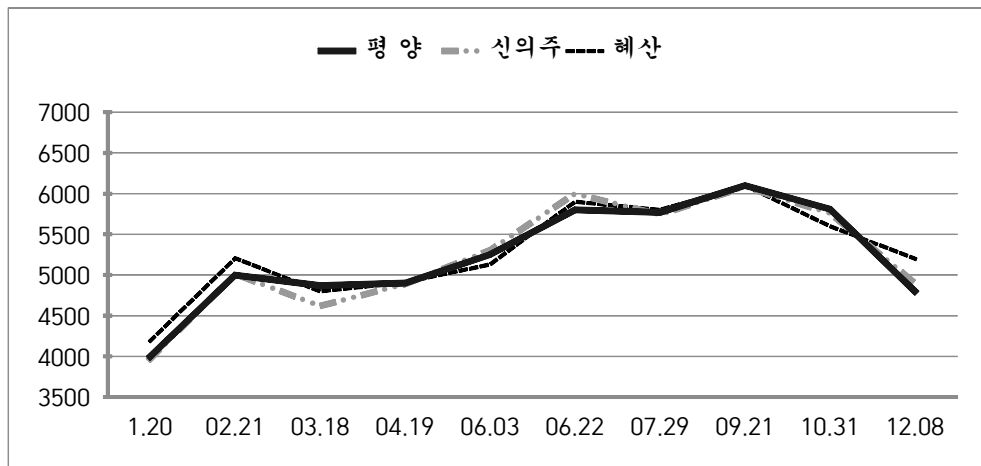
9) 「연합뉴스」, 「中, 대북 섬유제품 수출 10월부터 제한...北섬유제품 즉각 금수」, 2017. 9. 23.

10)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 금지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물량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수입수속을 마치도록 했다.

11) 임강택, 「2017년 북한시장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2월, pp.18~23. 여기에서 쌀가격의 관찰 수치는 일주일 평균치이며, 좌표에 표시된 날짜는 관찰 시작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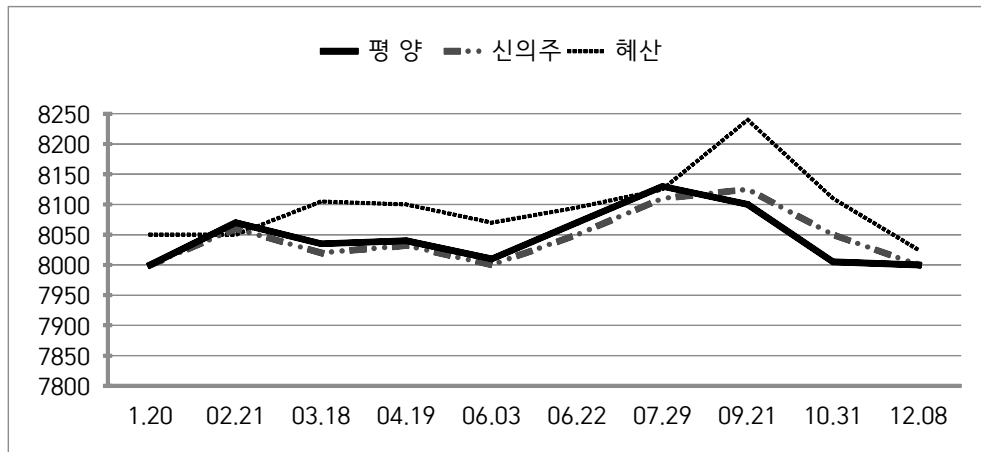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의 외환 부족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북한경제에서 외환거래의 일반화, 즉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상당 수준으로 진척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북한의 외환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2017년 북한시장의 쌀가격 변화 추이



자료: DaiyINK, 北장마당동향(www.dailynk.com, 접속일: 2018. 2. 11).

[그림 2] 2017년 북한의 시장 환율 변화 추이



자료: DaiyINK, 北장마당동향(www.dailynk.com, 접속일: 2018. 2. 11).

나. 석유류 제품가격의 변화 추이

2017년 북한시장에서 눈에 띄게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석유류라고 할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국제사회의 유류 관련 제재가 본격화된 9월 이전인 4월부터 휘발유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5월 10일 현재 양강도와 함경북도 내 도시의 유류 시장가격은 휘발유 1리터에 평균 1만 8천원, 경유는 1만 2천원이다.¹²⁾ 이는 3월 10일 가격인 1리터당 6천원에 비해 3배나 급등한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양한 원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유류분야 제재에 대비한 북한 당국이 선제적으로 유류 사용량을 줄이고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해 내린 조치가 유류 시장가격을 급등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5월 이후 북한의 유류 시장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9월 유류 공급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채택된 이후 급등과 급락으로 불안정한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유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유류가격은 10월 말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12월까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¹³⁾

[표 1] 2017년 북한의 유류가격 변화 추이

조사 시기	휘발유	디젤유	조사 장소
2017년 2월말	6,000원/1L	-	함경북도
2017. 05. 10.	18,000원/1L	12,000원/1L	양강도/함경북도
2017. 05. 31.	16,000원/1kg (22,000원/1L)	9,000~10,000원/1kg	-
2017. 09. 18.	18,750원/1kg	12,500원/1kg	-
2017. 10. 06.	17,000원/1kg	10,000원/1kg	-
2017. 10. 25.	21,780원/1kg	15,700원/1kg	-
2017. 11. 16.	18,450원/1kg	9,840원/1kg	평양시/양강도
2017. 12. 01.	15,990원/1kg	6,765원/1kg	양강도
2018년 1월초	26,000원/1kg	17,000원/1kg	양강도/함경북도

자료: 『RFA』, 「북 기름값 상승세 주춤, 큰 폭으로 떨어져,」 2017. 11. 18., 이외에도 2017. 3. 6, 5. 13, 6. 3, 12. 2, 2018. 1. 9. 등의 기사를 종합하여 작성함.

12) 『RFA』, 「북 북부 지방, 휘발유·경유값 급등,」 2017. 5. 13. 평양에서는 4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주유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3) 그러나 2018년 초 또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소결: 북한에서 경제제재와 시장가격의 관계

경제제재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품목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재가 북한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수출품보다 수입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며,¹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시장 거래에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북결의안 2397호의 채택(2017. 12. 22)에 따라서 산업기계·운송수단·금속류의 대북수출이 중단되고, 북한의 식용품·농산품·기계류·목재류 수입이 금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제재조치는 북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생산과 공급 능력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구매 능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경로로 최근 20년 가까이 시장을 통해서 구축되었던 북한경제의 확대재생산 구조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18년부터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력자강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북한 자체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원료·연료·설비 등을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석탄, 수산물, 섬유류의 수출을 중단시키는 제재조치는 북한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물품 공급 능력과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에서 석탄 수출은 계획부문이나 당과 군과 같은 권력기관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수출 금액과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의 경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주민들이 많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얻은 수입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간접적으로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당장 석탄의 수출이 중단되면 생산량의 일부가 북한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석탄의 시장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석탄 생산에 따른 수익 감소로 인해 생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일반 주민들의 경제생활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석탄의 수출금지 조치가 북한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거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고 증가로 생산은 감소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 감소 등을 초래하여 시장 침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4) 그 중에서도 휘발유와 중유처럼 대체하기 힘든 품목의 경우에는 바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섬유류 수출금지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석탄의 수출금지 조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섬유류 생산의 대부분은 임가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문이 중단되면 생산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내부 수요를 겨냥한 생산활동도 가능하겠지만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섬유류의 수출금지 조치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시장경제의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산물 수출금지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섬유류 보다는 석탄의 수출금지 조치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산물의 경우 채고 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시장공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고,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감소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수산물의 생산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북한시장의 제재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제재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품목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장·단기적으로 종합적인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2017년 한 해 북한시장에서 쌀을 중심으로 하는 식료품 가격이 안정세를 취한다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제재의 시장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할 수 있다.

III. 2017년 북한시장에서 발견되는 변화

1. 새로운 시장활동의 등장

북한의 시장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는가 하면 국영기업들이 시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2017년 북한 당국은 각종 공공서비스를 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식 등으로 재정을 보충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 자동차 관련 영업활동 급증

북한에서 차량운행이 빠르게 증가하여 이와 관련한 영업활동이 새롭게 생겨나는가 하면, 예외적인 현상들이 일반화되는 형태로 시장경제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첫 번째가 주유소와

세차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동안 주유소는 평양과 같은 대도시를 비롯하여 주요 도로 주변에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주유소와 함께 세차장 서비스도 유망 업종으로 부각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외부 관찰자에 따르면, 2017년 평양에만 세차장이 최소 10여 곳이 관찰되었다고 한다.¹⁶⁾ 세차장의 경우에는 2010년대 들어와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외화벌이 회사가 최신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기계세차장과 일반 돈주들이 전문 세차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손세차장이 있다고 한다. 손세차장은 세차장의 수익이 높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빠르게 증가했으며,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자 손님을 끌기 위해서 미모의 20대 여성을 세차원으로 고용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경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¹⁷⁾

[그림 3] 평양거리의 차량과 세차장 전경



자료: 뢰디거 프랑크 교수 기고문; 『연합뉴스』, “북한에 세차서비스, ...” 2017. 8. 25.

15) 물론 최근에는 유류제품 수입 제한으로 영업활동을 중단한 주유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 『연합뉴스』, 『북한에 세차서비스, 스쿠터 택시 등장... “지도부도 변화 못막아”』, 2017. 8. 25.

17) 『DailyNK』, 『北서 미모의 20대 여성이 청소해주는 ‘손세차장’ 인기』, 2015. 9. 18.

주차비를 징수하는 장소가 증가하는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석탄 수출을 위해 운행하던 트럭들이 식당이나 목욕탕 등의 봉사소를 이용하면서 ‘주차비’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한다.¹⁸⁾ 운전자들이 식사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차량 부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요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주차비 형태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평양과 같은 대도시 역전과 식당, 주택과 인접한 도로 등에서 당국이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식당 등에서 직접 징수했는데 요즘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직접 관리인을 고용하여 시간당 100원 정도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¹⁹⁾

나.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광고·홍보 활동의 증가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함께 경제생활 수준도 향상되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취향을 겨냥한 광고·홍보 활동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고객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택시손님을 불러 모으는 ‘몰이꾼’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실상) 개인택시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개인택시 업자가 채용한 일꾼들이 손님을 유치해 오도록 하고 일당을 지급한다고 한다.²⁰⁾ 개인택시가 급증하게 된 것도 시간이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사꾼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여기에 국영기업소가 직접 택시를 구입하여 개인택시와 경쟁하면서 택시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진 것이 ‘몰이꾼’을 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광고·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마당의 여성 상인들이 곱게 치장하고 판매에 나서는가 하면, 의류 매대에서는 젊고 날씬한 여성을 활용하여 의복을 선전하기도 한다고 한다.²¹⁾

2. 공식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현재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북한의 공식시장 숫자는 482개로, 2017년 3월 436개에서 8월에는 468개로 늘어나는 등 2017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²²⁾

18) 『DailyNK』, 「북한서 차부품 도난 방지 비용으로 주차비를 낸다」, 2014. 6. 9.

19) 『DailyNK』, 「北, 전기·교통 문제에 주민 세금징수 시스템 정비 中」, 2017. 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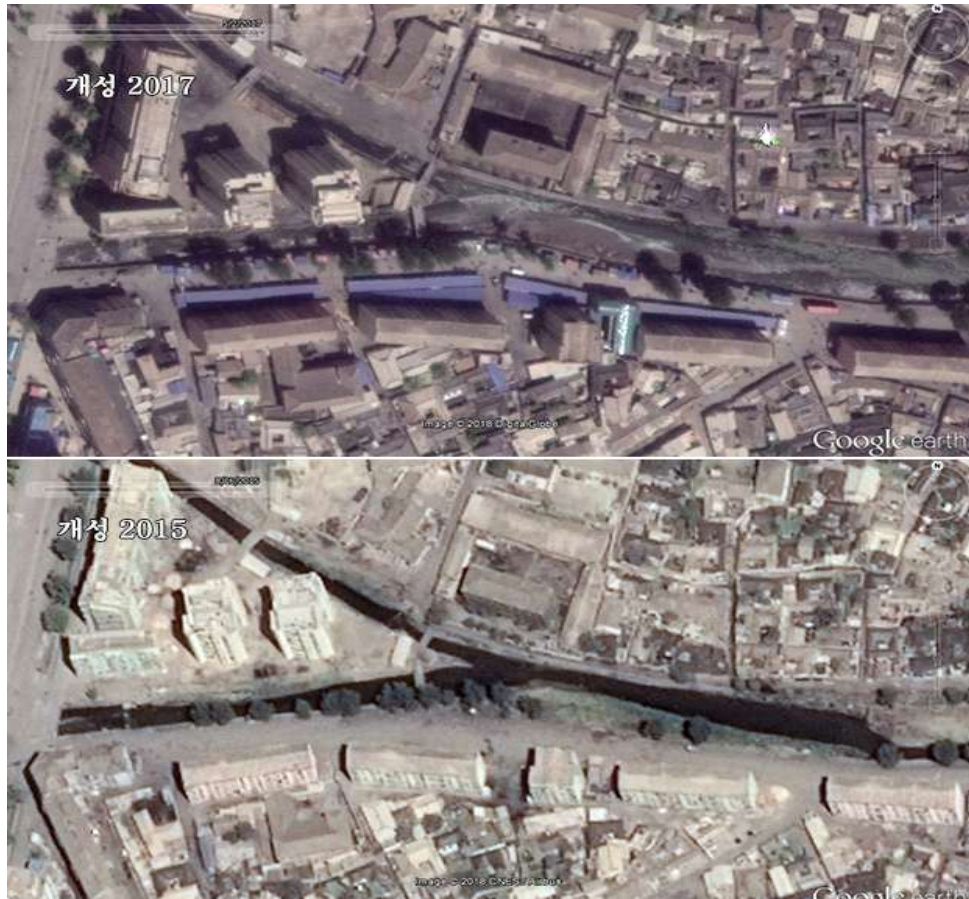
20) 『DailyNK』, 「北서 택시손님 이끄는 ‘몰이꾼’ 등장... 하루 최대 50달러 벌어」, 2017. 11. 1.

21) 『DailyNK』, 「북한판 패션모델 등장...시장서 직접 의류 착용해 판매」, 2016. 9. 1.

지난 1년 사이에 공식시장이 대략 46개가 증가한 것이다.

북한에서 공식시장은 숫자의 증가에만 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시장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내부 시설을 보수하여 시장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작업들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4] 개성시 관훈동에 새로 확장한 공식시장의 위성 사진



자료: 『RFA』, 「북 공식시장 꾸준히 증가, 480개 넘어」, 2018. 2. 3.

22) 『RFA』, 「북 공식 시장 꾸준히 증가, 480개 넘어」, 2018. 2. 3; 「북한 공식시장, 468개로 증가」, 2017. 8. 10.

3. 북한 주민들의 제재에 대한 반응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북한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북한의 시장은 참여 주체의 관점에서 크게 3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당국과 기업, 그리고 일반 주민 등이 그것이다. 시장활동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가장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경제계획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무역과 생산현장에서 제재효과를 절감하고 있을 북한의 기업 입장에서는 제재의 칼날을 피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최근 북한 당국이 기업들에게 허용한 자율적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반 주민들의 입장은 앞에서 언급한 당국이나 기업과는 약간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대북제재가 민생부문은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으며, 제재로 인해 수출하지 못한 상품들이 싼 가격에 내수시장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특히 수산물과 석탄의 수출이 금지되자 국내 시장에 해당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석탄 가격은 작년에 비해 1/2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²³⁾ 따라서 일반 주민들의 경우, 제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가운데 일부 상품의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이라는 호재를 만났으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공포감이 당국이나 기업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7년 한 해 동안은 식량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말로 가면서 시장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경지역을 필두로 시장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갈수록 심화되자 일반 주민들도 점차 피부로 그 효과를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현상으로는, 2017년 하반기에 들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자 북한 주민들 속에서 중국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⁴⁾ 북한 주민들의 반중정서가 증가하는 데에는 북한 당국의 부추김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⁵⁾ 대북제재로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자 “중국의 배신 때문”이라고 중국을 비난하는 주민교양과 중국을 비방하는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다.

23) 「RFA」, 「북한 석탄가격 작년의 반 토막」, 2017. 12. 13; 「대북제재로 북한 시장에 수산물 급증」, 2017. 12. 19.

24) 「RFA」, 「주민들 반중감정 확산」, 2017. 10. 9.

25) 「RFA」, 「북, 주민들에 반중감정 고취」, 2018. 1. 4; 「북, 경제제재가 중국 탓이라고 강조」, 2018. 1. 22.

IV. 2018년도 북한시장 전망

1. 북한시장의 예상되는 반응

현재의 대북제재 강도가 2018년 내내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대외경제관계에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과의 거래가 거의 단절되어 민생부문에 해당되는 물품 정도만 거래가 허용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먼저, 북한 당국의 주요 외화 수입원 대부분이 막히게 되고, 원유를 제외한 원부자재와 설비 대부분의 수입도 금지된 상태에서 북한경제는 점차 활력이 고갈되는 상태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 당국은 당분간은 재고물량이나 비축분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리 오랫동안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산업분야의 생산과 공급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경제의 물자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일차적으로는 공급량 감소와 구매력 하락이 상승작용을 한 결과로 시장 경기의 침체 현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물가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품의 공급 감소보다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가 더 크면 가격이 하락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시장에서 물가가 상승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상품의 생산 감소 속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물가는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2018년 북한시장은 경기침체 현상과 더불어 제재에 민감한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보호막이 없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대적으로 빈곤계층에 속하는 주민의 고통이 가장 극심할 가능성이 있다.

2.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 전망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은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하여 어떤 외풍에도 견딜 수 있는 자립적 경제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국산화와 물자절약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당국은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공업 분야의 정상화와 생산량 증대를 독려하고, 식량부문의 증산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력을 동원하여 쌀가격 등 주요 상품의 가격 상승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⁶⁾ 하지만 시장의 ‘실제 유통가격’이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과 격차가 클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국영기업들의 제재 상황에 대한 대응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존의 무역 거래가 막힌 무역 회사들은 기업 차원의 실적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입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민생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농산물과 생필품을 수입하여 북한시장에서 판매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시장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국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기존의 이러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해 온 일반 주민들, 특히 폐기발에 의지하여 생활해온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⁷⁾

종합하면, 강화된 제재 하에서 북한 당국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은 자칫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소결: 북한시장의 비중 증대

2018년 북한경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하여 전반적인 침체 국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전반의 침체 현상은 시장 경기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공식경제부문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맥락에서 북한경제에서 시장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시장도 침체될 것이나, 상대적으로 북한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영부문의 시장 활용이 증가하게 되면, 최근 기업소·협동농장에 대한 자율성이 제도적으

26) 『RFA』, 「북 당국 시장 쌀값 인상, 담합 통제」, 2017. 12. 11.

27) 『RFA』, 「북 당국, 무차별 농산물·생필품 수입으로 주민 생계 위협」, 2017. 11. 14.

로 강화된 부분과 결합하여 북한의 시장화가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제도화되고 있는 기업소의 경영상 자율권 확대는 생산품목과 거래가격, 그리고 대외무역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도가 도입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상의 자율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 공간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90년대 후반에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고, 이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장마당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시장이 진화를 거듭해서 현재의 시장으로 발전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를 다시 한번 시련으로 내몰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시장이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북한 정권과 북한 체제의 미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북한 당국의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경제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북한시장은 대북제재에도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의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북한시장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는 “앞으로 대북제재의 효과가 어떻게 가시화될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시장은 변화하게 될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3대 주체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 기업소와 협동농장, 일반 주민이 그것이다. 이들이 제재로 인해 느끼는 충격의 성격과 강도가 다르고, 선택지에서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반응하는 양상도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반응들이 상호작용을 거쳐서 북한시장의 집약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 예를 들면, 가격- 선택에 있어서도 품목별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품목과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품목들을 구별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상품목들의 성격에 따라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로 활용되었던 쌀가격의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중요시하는 가격지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의 시장가격과 그것을 중간재로 이용해 생산되는 품목의 가격, 또는 그 품목의 대체재 가격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로 시장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일반 주민들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해온 북한 주민들은 저소득층일수록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재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피해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유엔안보리가 시행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임강택, 「2017년 북한시장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2월, pp.18~23.

외교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2016. 12. 1.

_____,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2017. 8. 6.

〈언론 보도〉

『연합뉴스』, 2017. 2. 18; 2017. 5. 13; 2017. 8. 14; 2017. 8. 25; 2017. 8. 26; 2017. 9. 12.

『DailyNK』, 2014. 6. 9; 2016. 9. 1; 2015. 9. 18; 2017. 9. 23; 2017. 10. 31; 2017. 11. 1.

『KONASnet』, 2017. 1. 26.

『RFA』, 2017. 8. 10; 2017. 10. 9; 2017. 11. 14; 2017. 12. 11; 2017. 12. 13; 2017. 12. 19; 2018. 1. 22.

2017년 북한 농업 주요 동향과 전망

김영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yhoon@krei.re.kr

I. 머리말

북한은 예년과 같이 ‘2018년 신년사’에서도 농업 부문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농업과 수산 부문에서 큰 발전을 추구하고, 우량 종자와 다수확 농법과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적으로 농업을 영위하여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며, 축산물, 과일, 온실채소, 버섯의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농업 생산 증대를 목표로 매년 농정의 주안점을 다양하게 강조해 오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식량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식량 생산에서도 북한 농정 당국이 이룩하려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¹⁾ 2017년에는 북한의 기상 조건이 다소 불리해 곡물 생산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7년 농업 생산이 소폭 감소함에 따라 2018년 농산물 공급도 감소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생산의 감소로 적어도 2018년 북한의 식량과 농산물 공급 사정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한편 단기적으로 북한의 농업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대북 경제제재와 그 효과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다른 분야와 달리 농업 생산과 식량 공급은 인도적 사안에 해당되므로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없다. 그러나 제재의 간접적 영향은 나타날 수 있다. 전반적인 수출 감퇴로 외화가 부족해지거나 해외 거래와 운송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1) 2017년 북한 식량 생산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와 추정은 2018년 2월말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추정치를 이용한다.

그 영향으로 농산물과 농자재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미하지만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다소 위축될 개연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북한 농업 동향을 두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17년 북한의 식량 생산 감소와 정체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둘째로 이용 가능한 몇몇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농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최근 식량 수급과 전망

1. 2017년 북한의 곡물 생산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매년 말 다양한 농업 생산 여건²⁾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북한 지역의 곡물생산량을 추정·발표하고 있다. 2017년의 북한 곡물 작황 추정치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되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7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정곡(도정된 곡물) 기준으로 471만톤으로 추정된다. 이 양은 2016년의 481만톤에서 약 2%가 감소한 양이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인 쌀과 옥수수는 각각 219만톤과 167만톤이 생산되었고, 서류, 맥류, 두류, 기타 잡곡이 85만톤 생산되었다(표 1).

〈표 1〉 2017년 북한의 곡물생산량

구분		계	쌀	옥수수	서류	맥류	콩류	잡곡
재배면적(천ha)		1,869	571	711	343	85	131	28
수량(kg/10a)		-	384	246	160	187	122	70
2017년 생산량(만톤) (A)		471	219	167	53	15	15	2
2016년 생산량(만톤) (B)		481	222	170	55	17	15	2
2016년 대비	증감량(만톤) (A-B)	△10	△3	△3	△2	△2	-	-
	증감비율(%)	△2	△1	△2	△4	△12	-	-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17. 12. 21.

2) 여기에는 기상, 병충해 발생, 비료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 위성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분석결과 등이 포함된다(농촌진흥청, 2017. 12).

식량작물 작황에 대한 추정에는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하였으나, 각각의 작물 작황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발표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상 요인을 중시하여 생산량 변동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17. 12. 20).

- 쌀 생산량은 2016년에 비해 1%가 감소했다. 2016년에는 쌀 재배 기간 동안 기상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2017년에는 봄철 이앙기에 가뭄 발생으로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다.
- 옥수수 생산도 2% 감소하였다. 옥수수 생산 감소는 주 생육 기간인 5~9월 기간 동안 강우 부족에 주로 기인한다.
- 서류(주로 감자) 생산은 4% 감소했다. 이는 봄철 재배 기간의 가뭄과 여름철 재배 기간의 많은 강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맥류(보리, 밀) 생산은 비교적 큰 폭(12%)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전체 곡물에서 차지하는 맥류의 비중이 낮아 전체 물량 감소에는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맥류 생산 감소는 주 생육 기간 동안 기온이 높았고 가뭄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적으로 볼 때 곡물 생산의 감소는 주 작물(쌀, 옥수수) 생육 기간(5~9월) 동안 강수량이 다소 적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식량 수급 전망

2017년 하반기 주요 곡물의 북한 내 시장가격은 2016년 동기에 비해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2017년 북한의 곡물 생산 감소가 시장가격으로 즉각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 감소가 즉각 공급 감소로 귀결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선부르다. 2%의 생산 감소는 추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북한의 2018년 식량 수급 사정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수입 증대를 통해 메울 수도 있고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다른 부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5년간 북한의 곡물 생산이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³⁾ 이 사실은 2012년부터 북한 협동농장에서 농민의 생산 동기 유발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포전담당제’ 개혁조치의 효과가 거의 현실화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향후 북한의 농업 생산 향상에 대한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2012년 이래 강조되어 온

3) 2013년과 2014년 북한의 곡물 생산이 연간 480만톤 수준이었는데(농촌진흥청, 2014. 12), 2016년과 2017년의 생산량도 연간 480만톤 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다(농촌진흥청, 2017. 12).

북한의 농업개혁조치의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2012년 북한 농업 부문에서 도입되었다고 알려진 협동농장의 인센티브 부여 시스템은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기준식량소비수준(1인당 연간 260kg) 혹은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전 국민이 곡물을 소비해야 한다면 북한에는 매년 600만톤 이상의 곡물이 필요하다. 연간 500만톤 이하 수준에서 생산하여 부족하게 공급하고 있는 북한의 곡물 수급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농민들만 인센티브 몫을 취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협동농장에서는 계획을 초과하는 생산물 중 일부만 생산 농민에게 지급되고 있다. 더욱이 기준식량소비수준(260kg) 이상에 해당되는 농장원 배분 몫에 대해서는, ‘양곡전매방침’에 따라 ‘여유알곡’ 혹은 ‘미소비알곡’이라는 명목으로 초과분배분을 다시 정부수매에 응하도록 농민에게 협동농장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요컨대, 개혁적 조치가 협동농장의 분배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식량의 절대 부족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분배받은 사람에게 초과분배분을 내놓도록 사회적 압력이 가해진다면, 차등분배의 효과가 생산성 증대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이래 북한 농업은 날로 열악해지는 농업 생산기반, 필수농자재의 공급 부족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만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명백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이래 지금까지 북한의 농업 생산, 특히 곡물 생산의 증가 속도는 매우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 농업의 획기적인 생산 증대와 그것에 연유한 식량 수급 사정의 획기적인 호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의 농업개혁이 국제사회의 자본공급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도 북한 농업의 전망은 밝지 않다.

III. 북한 농업에 대한 제재 효과와 전망

1. 대북제재와 북한 농업

농업에 대한 제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 지표로 주요 농산물과 농자재의 대중 수입액 변화, 주요 농식품의 시장가격 변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변화를 선정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⁴⁾ 각 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곡물류, 과실류, 채소류, 유지류, 연초류, 기타 농식품류 수입액을 합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대중국 수입 농자재는 화학비료 수입을 대표치로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질소, 인, 칼리, 요소 수입금액이 이용되었다. 주요 농식품 시장가격적으로는 쌀가격을 대표치로 이용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으로는 유엔 인도지원사무국(UN OCHA)이 매월 발표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진 것은 2016년 3월에 의결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이전과 그 이후 여러 지표들의 변화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북한농업 부문에 대한 제재 효과를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2016년 3월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부터 2017년 9월에 의결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호’까지 5차례의 유엔 제재 전후의 지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농업에 대한 경제 제재의 영향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될 경우 북한의 상품 수입은 감소하고 북한 내 시장의 상품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박스 1, 박스 2 참조).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박스 1〉 농산물과 화학비료 수입에 대한 제재 효과 발생 경로

- 제재 강화 ⇒ 북한의 상품 수출 감소 ⇒ 외화 부족 ⇒ 수입액 감소
- 제재 강화 ⇒ 북한의 노동력 수출 감소 ⇒ 외화 부족 ⇒ 수입액 감소
- 제재 강화 ⇒ 북한의 국제교역 활동 위축 ⇒ 외화 부족 ⇒ 수입액 감소
- 제재 강화 ⇒ 북한의 국제운송 위축 ⇒ 수입 차질 ⇒ 수입액 감소

〈박스 2〉 북한 쌀 시장가격 변화에 대한 제재 효과 발생 경로

- 제재 강화 ⇒ 쌀 수입 감소 ⇒ 쌀 공급 감소 ⇒ 쌀가격 상승
- 제재 강화 ⇒ 농자재 수입·공급 감소 ⇒ 쌀 생산 감소 ⇒ 쌀가격 상승

4) 농업에 대한 제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지표를 선정해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 분석에서는 연도별 자료보다 분기별 자료나 월별 자료가 중요하다. 둘째, 분기별·월별 통계자료의 경우에도 농업의 특성에 따라 계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교역의 경우 금액과 물량 자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나 품목류별 통계자료를 이용해야 하므로 물량자료는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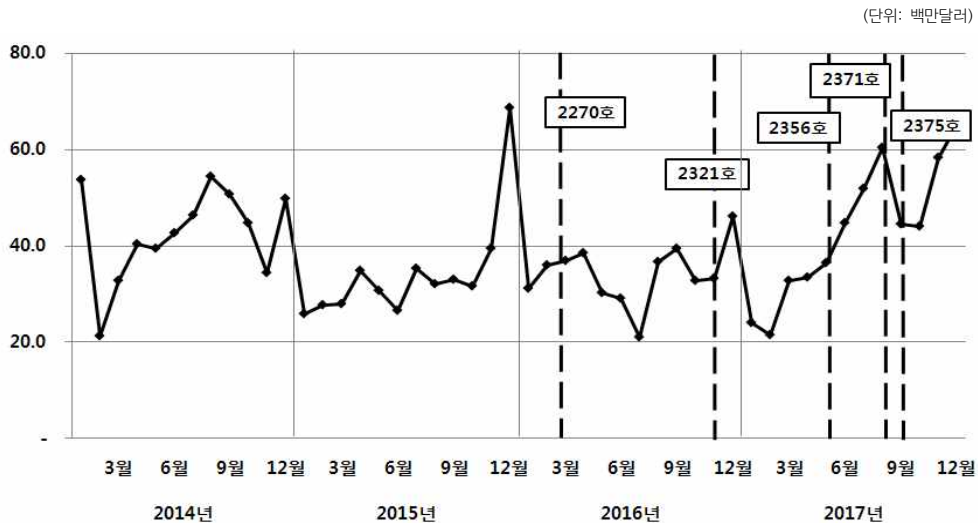
2. 제재 효과

2.1. 농산물 수입의 변화

2014년 이후 북한의 대중 농산물 수입액은 월별로는 부침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림 1). 2014년에 비해 2015년과 2016년에는 수입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들어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에 5차례에 걸친 제재 이후 단기적 변화를 보더라도 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 2321호, 2371호 직후에는 수입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356호와 2375호 직후에는 수입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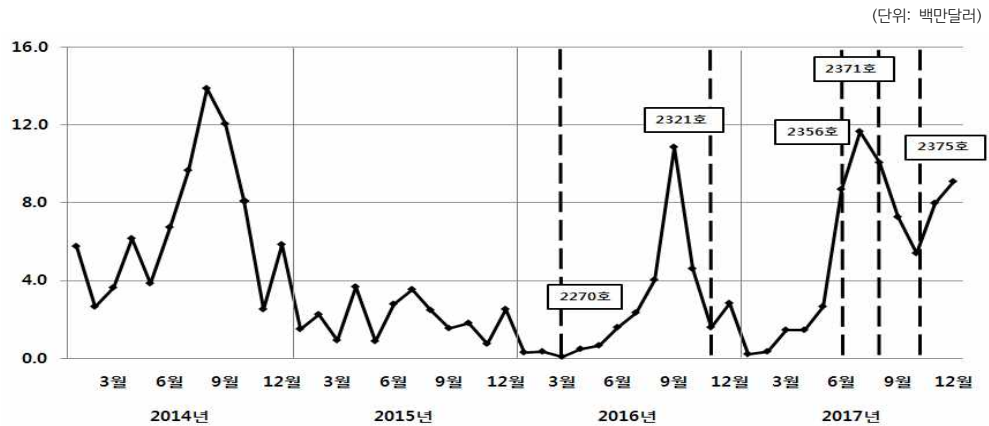
대중국 식량 수입액 역시 전체 농산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추세적으로는 2015년과 2016년에 식량 수입액이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재 결의 이후 나타나는 단기적인 양상도, 수입액이 감소하기 보다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표의 변화를 볼 때 단기적으로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농산물 수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림 1]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http://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접속일: 2018. 2. 12).

[그림 2]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중국 식량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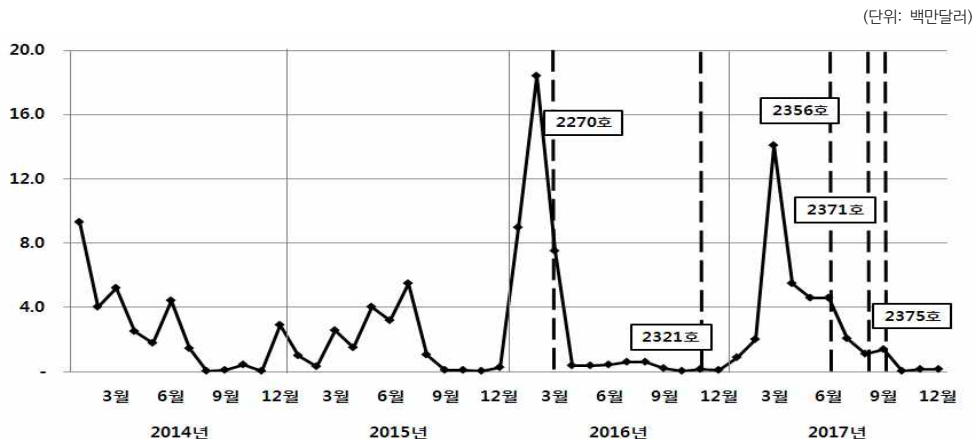


주: 수입 식량은 쌀, 옥수수, 대두, 보리, 밀가루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http://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접속일: 2018. 2. 12).

2.2. 비료 수입의 변화

북한의 비료 수입액 역시 유엔의 제재 전후 큰 차이가 없다. 2014년과 2015년에 비교해 다른 점은 2016년과 2017년의 비료 수입에 있어 계절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뿐인데, 이는 농업 생산의 계절성과 북한의 비료 생산·공급 사정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단기적으로 북한의 화학비료 수입에 있어서 제재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북한의 대중국 비료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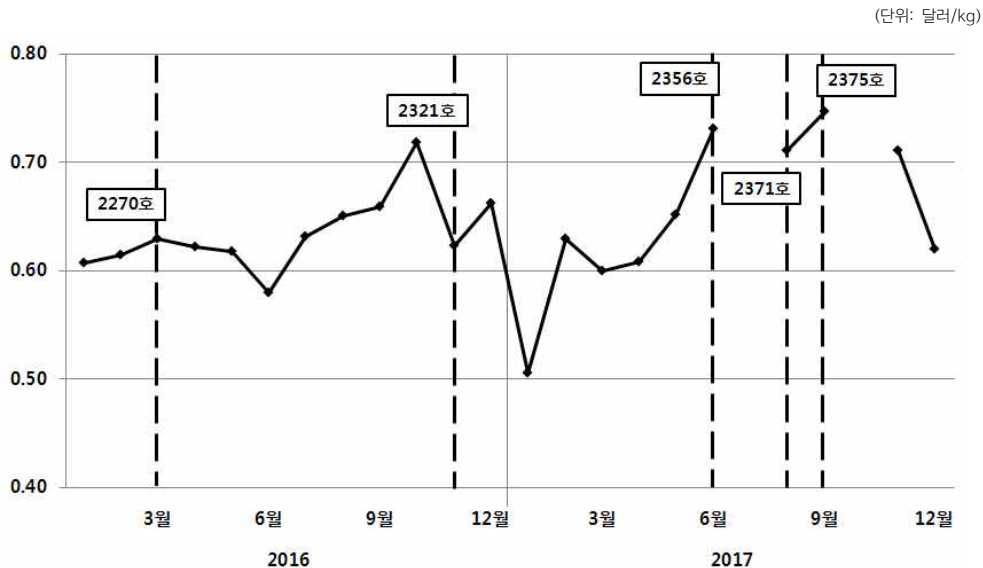


주: 비료에는 질소, 인, 칼륨, 요소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http://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접속일: 2018. 2. 12).

2.3. 쌀 시장가격의 변화

쌀 시장가격에서도, 종전과 같이 계절 변화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재 이후 시장가격의 특별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그림 3). 다만, 2017년 중반의 가격이 2016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름철 수확 곡물의 시장공급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된다. 제재 이후 오히려 식료품의 시장가격 하락 현상이 많이 관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대북제재가 북한시장의 농식품 공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북한시장의 쌀가격 추이



주: 북한 시장 내 월별 시장환율을 활용하여 쌀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였음.

자료: 데일리NK, 북장마당동향(<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접속일: 2018. 1. 12).

2.4. 국제사회 지원의 변화

2014년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꾸준히 감소해 연간 3,300만달러로 축소되었으나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 실효성 높은 대북제재가 연이어 발효되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이 2016년에는 4,600만달러, 2017년에는 5,500만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원 증가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보완해 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표 2〉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단위: 만달러)

구 분	실 적 (이행약속)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이행 약속)
2013	6,280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10, 한국 1,208, 스위스 1,057, 스웨덴 529, WFP 466, 러시아 300, 노르웨이 262, 독일 214, 호주 150 등
2014	3,322	한국 657,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650, 스위스 504, 스웨덴 489, 캐나다 360, 호주 219, 독일 156, 프랑스 104 등
2015	3,544	스위스 1,027,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828, 스웨덴 419, 한국 400, 호주 229, 노르웨이 218, 캐나다 215, 독일 115 등
2016	4,597 (219)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05, 스위스 1,038, 독일 365, 스웨덴 318, 러시아 300, 호주 219(219), 캐나다 202, EuropeAid 173 등
2017	5,538 (122)	WFP 2,243,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235, 스위스 502, 러시아 300, 스웨덴 167(110), 캐나다 149, 미국 100, 프랑스 49(11) 등

주: () 안 수치는 이행약속(Pledges) 금액임.

자료: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https://fts.unocha.org>, 접속일: 2017. 12. 30).

노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적 지원은 유엔의 제재 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강한 제재 국면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있다(표 2).

IV. 맺음말

2017년 북한의 식량 생산 결과를 볼 때, 2018년 식량 수급에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는 없다. 식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 부문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식량 생산에 배분하는 북한 농정을 고려할 때, 식량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의 공급 사정도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망할 수 없다.

또한 농업개혁의 효과가 농업 생산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농업에 관한 중장기적인 전망도 밝지 않다. 2012년 이래 북한의 농업 생산부문에 몇 차례의 생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혁조치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2017년까지 북한의 식량 생산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고 있다. 이는 농업개혁의 물적 토대가 여전히 취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북한 농업 부문의 생산 증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도 북한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다.

다행히 제재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측정지표의 변화를 비교·검토한 결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2017년 말 현재까지 농업 부문에서 제재의 부정적 효과가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제재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및 비료 수입액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북한 내 농식품의 시장가격도 대부분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일부 품목에서 하락하고 있다. 제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위축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재해에 대한 긴급구호사업의 영향으로 지원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들 분석 결과는 모두 단기적인 자료에 의존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 농업부문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농업 부문에 나타날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후 더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제재 효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농촌진흥청, 「북한 내년도 식량 수급상황 금년과 유사할 듯」, 보도자료, 2014. 12. 23.
농촌진흥청, 「북한 올해 곡물 471만 톤 생산... 전년대비 소폭 감소」, 보도자료, 2017. 12. 20.
데일리NK, 북한장마당동향'(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접속일: 2018. 1. 12).
외교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관한 보도자료」, 각호(2270호, 2016. 3. 3; 2321호, 2016. 11. 30; 2356호, 2017. 6. 3; 2371호, 2017. 8. 5; 2375호, 2017. 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북한농업동향」, 각호.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http://stat.kita.net/stat/istat/CtsMain.screen, 접속일: 2018. 2. 12).
FAO, GIEWS Country Brief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6. 6. 16.
FAO, GIEWS Country Bri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6. 12. 16.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https://fts.unocha.org, 접속일: 2017. 12. 30).

2017년 북한 군수산업 동향 및 2018년 전망

조남훈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chonh@kida.re.kr

I. 들어가는 말

2017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2016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정치는 2015년 대비 약 3.9%였다. 그런데 이는 1999년에 기록된 6.1%의 성장률 이후 최고의 성적이다.¹⁾ 특히 대북제재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이다. 그런데 2016년 북한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데에는 제조업이 기여가 컸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생산량 증가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6.7%에 달한 중화학공업의 성장률이 1.1% 성장을 기록한 경공업의 성장세를 압도함으로써 생산량 증가에 기여한 것이다.²⁾

이러한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을 통해서 우리는 2016년 북한의 군수산업이 상당한 성장세를 시현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중화학공업의 상당 부분이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를 생산하는 군수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 중화학공업의 성장률이 6.7%에 달했다면 군수산업의 성장률도 그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201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활동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데, 2016년에 이루어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개발 및 생산이 북한 군수산업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높았던 2016년 군수산업의 성장세는 2017년에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2017년에도 2016년처럼 활발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17년

1) 『중앙일보』, 「대북제재 장마당 효과? 북, 3.9% 성장, 17년 만에 최고」, 2017. 7. 22.
2) 한국은행,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7. 7.

북한은 한 번의 핵실험과 여러 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핵 및 탄도미사일의 개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즉, 2017년 9월 3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100~150kt에 육박하는 수소탄 급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11월 29일에는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통해서 탄도미사일의 미 본토 위협 가능성을 증명한 바 있다. 이에 전 세계는 생각보다 급격히 진전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또한 전 세계는 북한의 항공우주과학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으며 미사일 생산 기술 역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미사일 분야 군수산업의 생산 활동이 적어도 2016~17년 기간 동안에는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해서는 운반 차량이나 계측용 전자제품 등이 필요하므로 미사일 산업 전후방으로 연관된 다른 분야의 군수산업도 2016~17년 기간 동안에 상당히 활발한 실적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본격화된 대북제재는 군수산업을 포함한 북한의 산업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물론 원료와 에너지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군사경제 및 군수산업은 다른 민생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군사경제에 대한 영향도 커졌을 것이다. 특히 북한 전체 수요량의 약 30%를 점유하는 북한군 유류 수요를 고려할 때³⁾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바탕으로 연간 50만톤 수준으로 줄어든 정제유의 수입쿼터 상한은 북한군 유류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화성-15형 발사 성공 이후 발표된 김정일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미래 북한 자원배분에 대한 궁극증을 유발시킨다. 즉, 북한이 자신들이 공언했듯이 향후 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대량생산 대신에 민생경제로 자원배분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정책적 선택이 향후 한반도의 정세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2017년 북한 군사경제의 여건을 바탕으로 2017년 군수공업 현황을 살펴본 후 앞서 언급한 북한의 향후 선택에 중점을 두면서 2018년 북한 군수공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3) David von Hippel, Peter Hayes and Roger Cavazo, “An updated estimate of energy use in the armed forc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APSNet Special Report*, Nautilus Institute, August 4, 2015.

II. 2017년 대북제재와 북한군 군사경제

1. 2017년 대북제재와 북한군 훈련

모든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훈련을 통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북한군에도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군이 종종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특히 핵개발 와중에서 미국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강도 높은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훈련의 필요성은 2017년 김정은 신년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여든다섯 돌이 되는 올해에 군력강화의 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 당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전군에 당의 사상과 숨결만이 맥박 치게 하며 또 다시 올해를 훈련의 해로, 싸움준비 완성의 해로 정하고 전체 군중, 병중, 전문병 부대들에서 강도 높은 싸움준비 열풍을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그 어떤 침략무리도 일격에 격멸 소탕할 수 있는 펄펄 나는 일방백의 만능 싸움군, 백두산 호랑이로 키워야 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강도 높은 훈련을 강조한 바 있다.⁴⁾

그런데 현실은 김정은의 다짐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인민군 창건 85주년에도 불구하고 2017년 훈련이 예년보다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2017년 훈련 횟수 및 강도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관리 및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서 북한군 동계훈련 규모가 예년보다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⁵⁾ 북한군은 통상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동계훈련을 하는데 이번 동계훈련의 시작이 과거보다 늦고 규모도 줄었다는 것이다.

한편, 동아일보도 정부 당국의 말을 인용하여 최근 우리 군이 통신정보 등을 통해서 북한군의 야간훈련 축소 첩보를 입수한 것 같다고 보도하였다.⁶⁾ 동아일보에 의하면 “감청 등으로 확인한 결과 북한군이 에너지 사정을 언급하면서 야간훈련 축소 계획을 (예하 부대)에 통보하였으며 북한군이 이전보다 원유 및 석유 공급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북한이 2000년대 초반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했으나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훈련 규모를 다시 늘리거나 이전 규모를 유지하는

4) 『연합뉴스』, 「2017년 김정은 신년사 전문」, 2017. 1. 1.
5) 『연합뉴스』, 「WSJ, ‘북한군 동계훈련 규모 예년보다 축소’」, 2018. 1. 30.
6) 『동아일보』, 「북, 6년 만에 야간훈련 축소」, 2017. 9. 19.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약간 이례적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군 훈련 축소는 대북제재의 영향인 듯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미 전문가들은 북한군 훈련 축소가 유엔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믿고 있으며 정유제품 및 원유의 대북수출을 연간 각각 50만배럴 및 400만배럴로 제한한 안보리의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군이 유류절감을 위해 훈련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분석한다고 한다.⁷⁾

2. 북한군 경제활동에 대한 대북제재의 영향

북한군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유엔안보리가 북한군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수차례에 걸쳐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군은 유류 금수뿐만 아니라 원료 수입금지 및 광물 수출금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군의 훈련 횟수 및 강도에 영향을 주어서 북한군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북한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유류 금수 조치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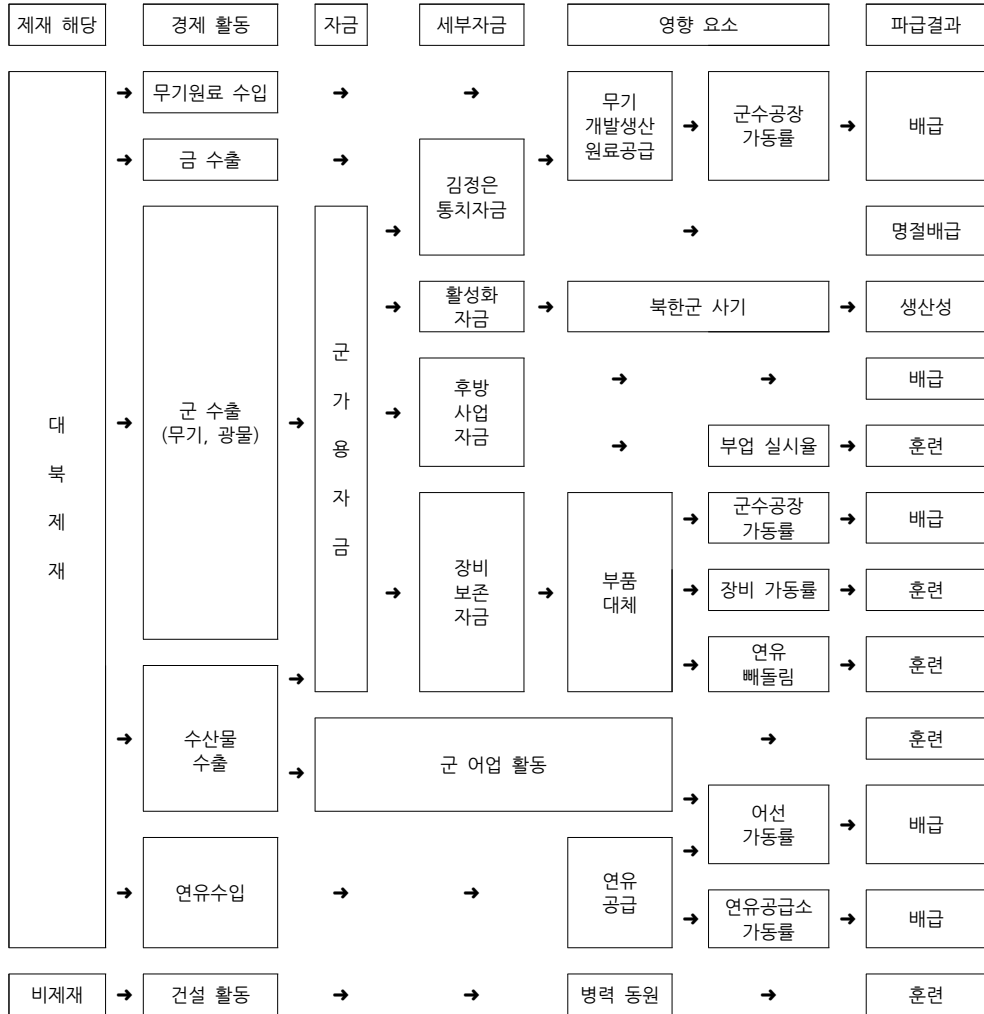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2016. 3. 3)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항공유(로켓엔료 포함)의 대북 판매·공급을 금지하였다. 또한, 결의안 2321호(2016. 11. 30)는 북한행·발제3국 기차 민간 항공기에 필요 이상의 항공유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결의안 2375호(2017. 9. 11)는 본격적인 대북 원유공급 제한을 규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원유 수입을 현 수준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정유제품의 수입도 동년 4분기 50만배럴, 2018년부터 연 200만배럴로 제한하였으며, NGL(Natural Gas Liquid)과 콘덴세이트의 대북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⁸⁾ 동 결의안은 2017년 12월 23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는데, 결의안 2397호는 대북 원유 공급을 연 400만배럴로 명시하였으며, 정유제품 수입도 연 50만배럴로 제한하였다.

이처럼 최근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제재에 집중함에 따라 북한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경제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대북경제제재가 북한의 군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종류 및 경로를 아래 [그림 1]에 도표화하였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대북제재가 심화되면 북한군의 훈련 및 배급이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7) 『연합뉴스』, 「WSJ, '북한군 동계훈련 규모 예년보다 축소」, 2018. 1. 30.

8) 김경술, 「북한의 석유산업과 유동」, 『KDI 북한경제리뷰』, 2018년 1월호, pp.43~63.

[그림 1] 대북경제제재가 북한군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료: 조남훈 외, 『대북제재 및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북한군의 전쟁지속능력 변화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 2018년 3월 발간 예정.

III. 2017년 북한 군수산업 현황

2017년 북한 군수산업의 실적은 북한의 핵무력·경제 병진노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핵무력 완성을 위한 북한의 빈번한 미사일 시험 발사가 북한 군수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 군수산업에 영향을 미친 북한의 구체적인 경제 및 산업 정책은 자력자강, 과학기술발전 및 공장현대화 등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은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전략 및 군현대화계획 등에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과 계획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2017년 김정은 신년사, 제8차 군수공업대회 김정은 연설 및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등, 외부에 공개된 세 가지 문건을 바탕으로 2017년 북한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고찰해보고 이 정책들과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을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1. 북한의 경제 및 산업 정책: 자력자강, 과학기술발전, 공장현대화

북한은 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2016~20년 대상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가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두 번째 해인데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5개년전략의 총력적 수행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 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자면 올해 전투 목표를 기어이 수행해야 합니다.”라며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5개년전략 수행을 위한 몇 가지 실행 방안을 강조하였다. 첫째는 ‘자력자강’이다. 자력자강이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원료, 부품 및 최종제품 등을 최대한 북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북제재 국면을 돌파하려는 북한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북한은 “경제적 봉쇄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현실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국산화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한다.⁹⁾

9) 지봉철, 「국산화를 중핵으로 한 우리 식의 현대화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중요 요구」, 『경제연구』, 4, 2016.

한편, 자력자강은 수입대체 개념과도 유사한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수입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해외로부터 수입되던 물품들을 자체 생산을 통해 조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이것이 새해의 행군길에서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입니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면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둘째는 ‘과학기술’이다. 자력자강 달성을 위해서는 대체 원료 및 에너지가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술이 확보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이 북한이 최근 과학기술발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이유이다. 이를 반영하여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 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생산단위와 과학기술연구기관 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며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 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세 번째는 ‘공장현대화’이다. 최근 들어 북한은 공장현대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경공업 및 기계공업 부문의 현대화 성과를 강조하며 “방직공장,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 부분이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여러 가지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힘 있게 벌여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계공업 부문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당이 제시한 새 형의 트랙터와 화물자동차 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인민주체의 경제화, 현대화와 … 더욱 힘 있게 다그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라고 말하였다.

2.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 및 현황

2017년 북한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은 군수산업 부문까지 이어졌다. 먼저 자력자강 정책을 살펴보면, 김정은은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무인전투장비 등 첨단무기와 전투기술기재 개발 등 국방공업 부문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주체적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역설한 바 있다.

한편, 군수산업 분야에서의 과학기술발전도 여러 번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지금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를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자평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국방부문의 일군과 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은 항일의 연길폭탄정신과 전화의 군자리혁명정신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져야 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군수공업 부문의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전략적 방침대로 병진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무기들과 무장장비들을 개발생산하며 군수산업의 주체적인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 공정들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현재 북한은 군현대화계획(2014~18)을 바탕으로 북한 육군, 해군 및 공군의 핵 타격능력 완비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핵탄두 소형화와 핵잠수함 건조 등이 포함되는데 북한은 주어진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수공장 현대화 및 신형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¹⁰⁾

한편, 김정은은 군수공장을 순시할 때마다 공장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장현대화가 미흡한 공장에 대해서는 강한 질책과 비난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북한 공장의 상당수는 오래 전에 건설된 공장들이기 때문에 설비와 시설이 노후화되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자동화 정도도 미미했기 때문에 북한은 김정일 정권 시절부터 몇몇 공장에 CNC 설비를 설치하는 등 공장현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군수공장 현대화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군수공장이 옛날 설비 및 수공에 의지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실정인데 김정은은 이와 같은 군수산업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집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공장현대화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군수공장을 순시할 때마다 공장현대화를 강조하였는데 태성기계공장(2016. 3. 2) 및 룡성기계연합기업소(2016. 3. 24) 방문 당시의 현대화 지시가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한편, 김정은은 2016년 8월에 미사일 프로그램의 부품, 탱크 부품 및 주요 동력장치 등을 생산하는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공장현대화 상태를 극찬한 바 있다.¹¹⁾

10) 북한은 9월 15일 평양에서 군현대화 5개년 계획(2014~18) 중간총화(중간결산 총회)를 개최하였음.

11) 『RFA』, 「북 군수공장 현대화 박차 ... 김정은 지시 따른 것」, 2016. 3. 3.

김정은의 1월18일기계종합공장 방문은 지난 12월 방문 이후 8개월만의 재방문으로, 김정은이 군수공장 현대화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¹²⁾ 당시 김정은은 “공장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 및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유연생산체제가 확립됨으로써 노력을 극렬 절약하면서도 생산주기를 단축하고 생산량을 늘렸다.”라며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의 공장현대화를 치하하였다.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USKI)의 멜빈연구원은 “이러한 북한의 군수공장 현대화 정책은 군사부문에 대한 집중투자정책의 연장선이라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정권은 육군, 해군 및 공군 등에 걸쳐서 재래식 군사기지에 대한 개보수 및 확장을 추진했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¹³⁾

이상에서 나타나듯 북한의 군수공장 현대화는 이미 상당히 진전된 듯하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2016년 전반기에 다양한 군수공장을 방문한 바 있는데, 그때 이미 공장 현대화를 지시하거나 현대화 완료를 치하했기 때문이다. 평양에 위치한 강동정밀기계공장, 미사일 및 탱크 부품 등을 생산하는 평안남도 1월18일기계종합공장 및 선박을 수리하는 해군 소속 10월3일공장 등이 현대화 작업을 이미 마쳤거나 현대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방문 당시에 김정은이 현대화를 지시했던, 미사일을 생산하는 태성기계공장과 미사일 운반차량 타이어를 생산하는 압록강 타이어공장 등도 공장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¹⁴⁾

이러한 공장현대화에 대한 김정은의 언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전략적 방침대로 병진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식의 위력한 전략무기들과 무장장비들을 개발생산하며 군수산업의 주체적인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 공정들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신규 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원자탄, 수소탄과 대륙간로켓트 ‘화성-15형’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들을 개발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이다. … 우리의 국방공업, 자위적 국방력은 상상할 수 없이 비상한 속도로 강화되고 우리 공화국은 세계 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승리적으로 전진·비약할 것이다. 주체적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싸워 나가자.”라고 말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핵무기 연구 부문과 로켓트공업 부문에서

12) 『KBS News』, 「북 김정은, '군수공장' 기계종합공장 8개월 만에 또 시찰」, 2016. 8. 10.

13) 『연합뉴스』, 「북, 북극성2형 시험 발사장은 구성형도공장 인근 군용차량시험장」, 2017. 2. 20.

14) 『TV조선 뉴스』, 「북 김정은 화성-15형 타이어 공장 방문 … 9월부터 9축 개발 지시」, 2017. 12. 3.

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고 말하면서 탄도로켓의 대량생산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3. 2017년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군수산업

2017년 북한은 약 20회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2016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나 화성-12형, 화성-14형 및 화성-15형 등의 성공적 시험 발사를 고려해 볼 때에 미사일 개발이 완성되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김정은은 화성-15형 발사 이후의 특별성명 발표와 2018년 신년사 등을 통해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아래 <표 1>에는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의 종류별 시험 발사 횟수가 나타나 있다. 김정은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은 2011~13년 사이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4년 이후 매년 20개 전후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수량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 군수공장 및 연구소가 2017년에 미사일을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였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1> 김정은 집권 이후의 미사일 시험 발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은하-3		2				1	
KN-02			6	4	10		
Scud-A							
Scud-B				4			
Scud-B MaRV							3
Scud-C				9	2	4	
Scud-C MaRV							1
Scud-ER						3	4
노동				2		5	
무수단						8	
북극성-1					3	3	
북극성-2							2
화성-12							6
화성-14							2
화성-15							1
종류 미상							1
계	0	2	6	19	15	24	20

자료: NTI, The CNS North Korea Missile Test Database(접속일: 2018. 2. 10).

미사일은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하부체계 및 부품으로 구성된다. 작게는 유도부품, 접합 리베트 및 연료 등으로부터, 크게는 미사일 본체, 탄두, 엔진 및 미사일 탑재차량까지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미사일 한 기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총 개수는 약 십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부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해야만 한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해서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대다수 물품의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생산 증대는 다양한 연관 부품의 국내생산 증대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동형 탄도미사일을 예로 들어보자. 이동형 탄도미사일 생산은 미사일 탑재차량을 생산하는 자동차 공장의 일감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탄도미사일의 이동을 위해서는 미사일 탑재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염소 및 암모니아 제조설비를 바탕으로 미사일 연료인 UDMH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들베리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가 말하였는데,¹⁵⁾ 이러한 미사일 연료 소비의 증대는 연료를 생산하는 화학공장의 가동률을 높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 북한 군수산업은 미사일 생산의 활성화로 인해서 전후방 연관 산업 역시 상당한 생산 실적 증대를 달성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 및 생산해 왔다.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미사일, 대공미사일 및 위성발사 미사일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액체 미사일과 고체 미사일 모두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북한에는 상당히 많은 미사일 공장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공장들의 2017년 가동률은 상당히 양호했을 것이다. 또한, 미사일은 상당히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과 전후방으로 연관된 생산 공장의 생산활동도 활발했을 것이다. 평양 산음동 미사일 공장, 잠진 미사일 공장, 구성 차량 공장(95호 공장), 압록강 타이어 공장, 함흥 비날론 공장, 3월16일공장 및 17호공장 등 모두가 미사일 생산과 연관된 북한의 군수공장들인데, 2017년에는 이러한 공장들 역시 상당한 생산 실적을 기록했으리라 추정된다.

15) 『연합뉴스』, 「북한, 함흥 섬유공장에서 미사일 로켓연료 자체생산 가능성」, 2017. 9. 28.

V. 2018년 이후 북한 군수산업 전망

북한의 무기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재래식 전쟁에 사용되는 전차, 야포, 항공기 및 함정 등의 재래식 무기체계이고 둘째는 대량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대량살상 무기체계(WMD)이다. 그런데 WMD는 실제 사용을 위한 무기체계라기보다는 전쟁억제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를 위한 정치적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량응징보복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대량응징보복능력을 보유한 국가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종말을 재촉하는 길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실제 공격용으로 쓰이기보다는 대미 억제용 및 국제사회에서의 발언력 제고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즉, 핵무기는 북한의 전쟁 수행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체계가 오히려 더 필요한 무기체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하여 대미억제력을 확보한 후에 'WMD와 재래식 무기 모두를 유지할 것인가?'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의 전략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북한이 앞으로도 '적화통일전략'을 유지한다면 북한은 WMD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면 대규모의 재래식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재래식 무기가 수행하던 대미억제 역할을 WMD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WMD가 없던 시절에는 대미억제를 위해서 다량의 재래식 무기가 필요했으나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를 보유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 보유 수준은 북한의 '적화통일전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국방예산만 충분하다면 북한은 WMD를 보유하면서 재래식 무기 수준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 보유 방식은 쉽지 않다. 특히 북한처럼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한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랫동안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주민들의 불만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WMD 모두의 획득을 추진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그 자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 포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은 2010년 제3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에 적시된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최종목표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¹⁶⁾ 노동당 규약의 서문이 아직까지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 부족상태에서 재래식 무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대남 ‘적화통일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체제의 중장기적인 안정이기 때문이다.

느리게나마 북한의 시장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북한 주민의 자유화 의식이 신장된다면, 민생경제를 도외시하는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이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적화통일전략’의 변화에 상관없이 북한이 실제로 재래식 무기의 대량 획득을 포기하고 그 자원을 민생경제로 전환시킬 날이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 문제가 북한의 정책이슈로 대두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金正은은 미사일 전력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공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이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첫째,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미사일 대량생산에 충분한 자원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가 미사일의 대량 실전배치의 필요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2018년 북한의 군수공업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18년에는 대북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전체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우선분야인 북한 군사경제의 상황마저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6) 『세계일보』, 「(한반도 리포트) 수령에 의한 ... 수령을 위한 ... ‘북 노동당 70년’」, 2015. 10. 6.

참고문헌

- 김경술, 「북한의 석유산업과 유통」, 『북한경제리뷰』, 2018년 1월호, pp.43~63.
- 조남훈 외, 『대북제재 및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북한군의 전쟁지속능력 변화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 2018년 3월 발간 예정.
- 지봉철, 「국산화를 중핵으로 한 우리 식의 현대화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중요 요구」, 『경제연구』 4, 2016.
- 한국은행,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7. 7.
- David von Hippel, Peter Hayes and Roger Cavazo, “An updated estimate of energy use in the armed forc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NAPSNet Special Report*, Nautilus Institute, August 4, 2015.

<언론 보도>

- 『동아일보』, 「북, 6년 만에 야간훈련 축소」, 2017. 9. 19.
- 『세계일보』, 「수령에 의한 ... 수령을 위한 ... '북 노동당 70년'」, 2015. 10. 6.
- 『연합뉴스』, 「2017년 김정은 신년사 전문」, 2017. 1. 1.
- 『연합뉴스』, 「WSJ, '북한군 동계훈련 규모 예년보다 축소」, 2018. 1. 30.
- 『연합뉴스』, 「북, 북극성2형 시험 발사장은 구성탱크공장 인근 군용차량시험장」, 2017. 2. 20.
- 『연합뉴스』, 「북한, 함흥 섬유공장에서 미사일 로켓연료 자체생산 가능성」, 2017. 9. 28.
- 『중앙일보』, 「대북제재 장마당 효과? 북, 3.9% 성장, 17년 만에 최고」, 2017. 7. 22.
- 『KBS News』, 「북 김정은, '군수공장' 기계종합공장 8개월 만에 또 시찰」, 2016. 8. 10.
- 『RFA』, 「북 군수공장 현대화 박차 ... 김정은 지시 따른 것」, 2016. 3. 3.
- 『TV조선 뉴스』, 「북 김정은 화성-15형 타이어 공장 방문 ... 9월부터 9축 개발 지시」, 2017. 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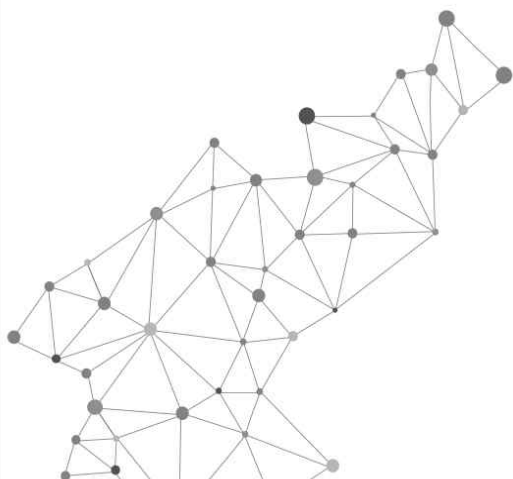
<웹사이트>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
- NTI, The CNS North Korea Missile Test Database <http://www.nti.org/analysis/articles/cns-north-korea-missile-test-database>(접속일: 2018. 2. 10).

경제 자료

북한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

| 최영운



북한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

최영윤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 yychoi@kdi.re.kr

본 자료에서는 북한경제동향 평가를 위한 제반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북한의 공식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외부기관의 통계들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대표적인 통계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공한다.

I. GDP 및 성장률

II. 무역

1. 남북교역

2. 북중무역

III. 환율 및 시장가격

IV. 식량

본 자료에서 제공하는 통계들의 구체적인 특징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되는 각 통계표에 각주를 달아 설명하였다.¹⁾

1) 각 통계 항목의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GDP 및 성장률(한국은행, UN 통계국 통계), 무역(통일부, 한국무역협회(KITA) 및 중국 해관 통계), 환율 및 시장가격(데일리NK 통계), 식량(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통계청 통계)

I. GDP 및 성장률

1. GDP

한국은행과 UN 통계국 모두 2016년 북한의 GDP(국내총생산)와 1인당 GDP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1-1〉 GDP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은행 (원화 기준)	GDP (10억원)	24,758	27,241	28,484	29,880	32,228	33,212	33,614	33,949	34,137	36,103
	1인당 GDP (만원)	104	114	118	124	133	136	137	138	138	145
한국 은행 (달러 기준)	GDP (1억달러)	266	247	223	258	291	295	307	322	302	311
	1인당 GDP (달러)	1,117	1,032	927	1,069	1,197	1,207	1,251	1,307	1,218	1,250
UN (달러 기준)	GDP (1억달러)	144	133	120	139	157	159	166	174	163	168
	1인당 GDP (달러)	597	551	494	570	638	643	666	696	648	665

주: 1) 본 자료의 한국은행 GDP와 1인당 GDP는 명목GDP를 의미함.

2) 한국은행 자료는 본래 한국 원화 기준으로만 되어있으나, 편의상 이를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로 전환한 수치 역시 제공함.

자료: 한국은행(<http://ecos.bok.or.kr/>), UN(<http://unstats.un.org/unsd/nationalaccount/>), 검색일: 2018. 2. 22.

2. GDP 성장률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2016년 GDP 성장률은 3.9%로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이 22.3%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6년 GDP 성장률 증가를 견인했다. 이어서 광공업과 농림·어업부문에서도 각각 6.2%, 2.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6년 한 해 성장세가 크게 두드러졌다.

〈표 1-2〉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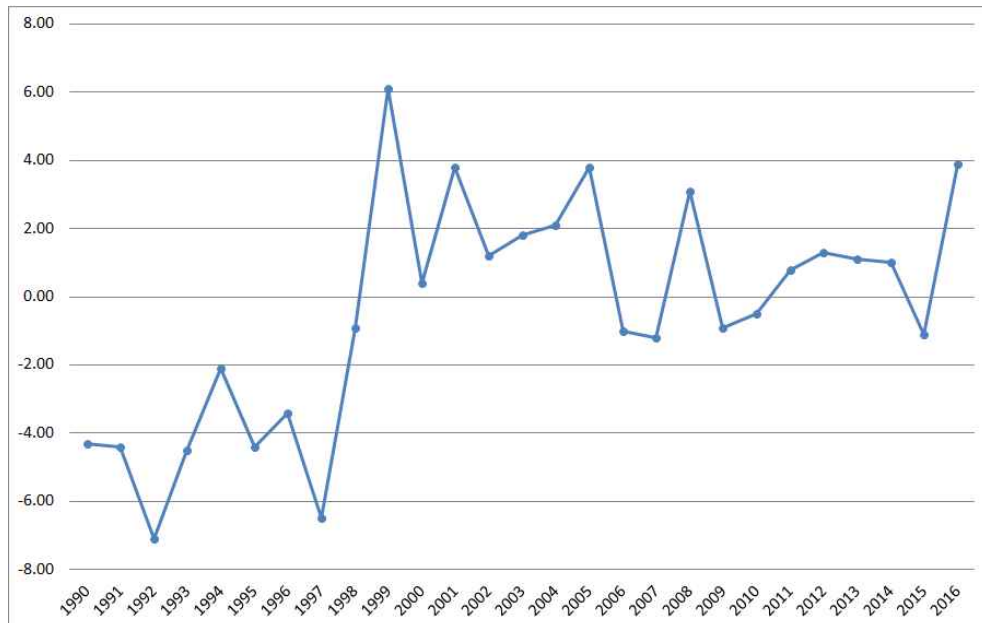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합		-1.2	3.1	-0.9	-0.5	0.8	1.3	1.1	1.0	-1.1	3.9
부 문	농림·어업	-9.1	8.0	-1.0	-2.1	5.3	3.9	1.9	1.2	-0.8	2.5
	광공업	1.0	2.5	-2.3	-0.3	-1.4	1.3	1.5	1.1	-3.1	6.2
	전기·가스 ·수도업	4.8	6.0	0.0	-0.8	-4.7	1.6	2.3	-2.8	-12.7	22.3
	건설업	-1.5	1.1	0.8	0.3	3.9	-1.6	-1.0	1.4	4.8	1.2
	서비스업	1.7	0.7	0.1	0.2	0.3	0.1	0.3	1.3	0.8	0.6

자료: 한국은행(<http://ecos.bok.or.kr/>), 검색일: 2018.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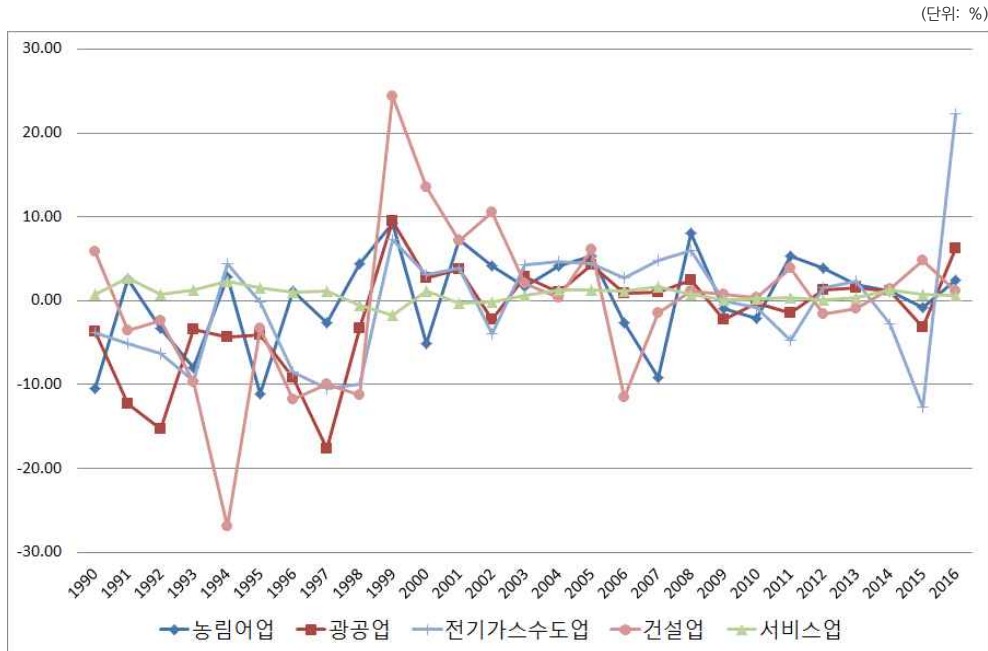
[그림 1-1]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http://ecos.bok.or.kr/>), 검색일: 2018. 2. 22.

[그림 1-2] 산업별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검색일: 2018. 2. 22.

II. 무역

1. 남북교역

2016년 1월에 발생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그 다음날 2월 11일에 북한은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고 공단 내 자산을 동결했다. 따라서 통일부의 「월간남북교류동향」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남북교역은 역대 최저치인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발간되던 「월간남북교류동향」은 현재 기준으로 2017년 7월호까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며, 2017년 1~7월 남북교역은 비상업적거래 목적으로 약 1백만 달러 규모의 반출만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2-1〉 남북교역

(단위: 백만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7월
반입	340 (31.9)	520 (52.7)	765 (47.3)	932 (21.8)	934 (0.2)	1,044 (11.7)	914 (-12.5)	1,074 (17.5)	615 (-42.7)	1,206 (96.1)	1,452 (20.4)	186 (-87.2)	- (-100)
반출	715 (63.0)	830 (16.0)	1,033 (24.4)	888 (-14.0)	745 (-16.1)	868 (16.6)	800 (-7.8)	897 (12.1)	521 (-42.0)	1,136 (118.3)	1,262 (11.1)	147 (-88.3)	1 (-99.5)
계	1,056 (51.5)	1,350 (27.8)	1,798 (33.2)	1,820 (1.2)	1,679 (-7.8)	1,912 (13.9)	1,714 (-10.4)	1,971 (15.0)	1,136 (-42.4)	2,343 (106.2)	2,714 (15.9)	333 (-87.7)	1 (-99.8)

주: 1)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간 내부거래로 보고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수입·수출이라는 용어 대신 반입·반출이라는 용어를 씀.

2)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월호, 검색일: 2018. 2. 22.

〈표 2-2〉 형태별 남북교역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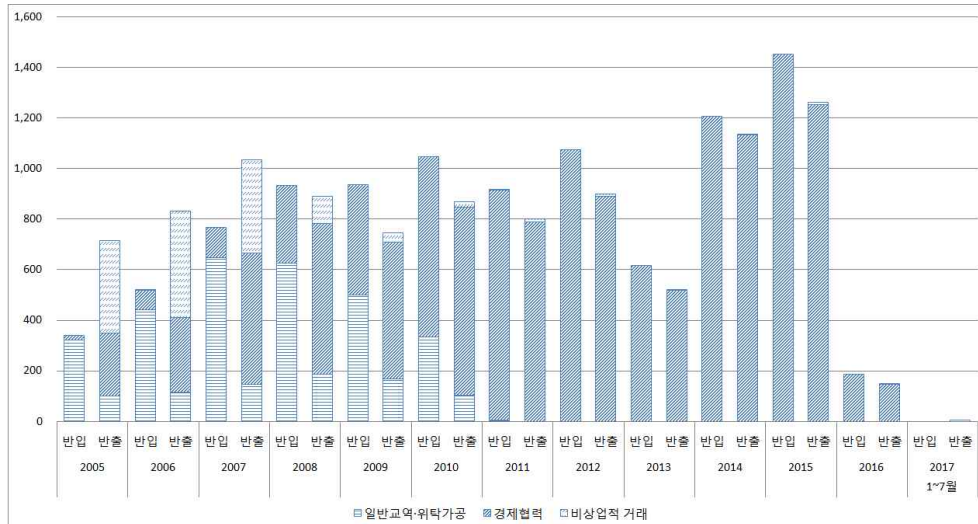
구분	남북교역 유형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7월
반입	일반교역·위탁가공	320	441	645	624	499	334	4	1	1	0	0	0	-
	경제협력	20	77	120	308	435	710	909	1,073	615	1,206	1,452	186	-
	비상업적 거래	-	1	-	-	-	-	1	-	-	0	0	-	-
	반입 합계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1,206	1,452	186	-
반출	일반교역·위탁가공	100	116	146	184	167	101	-	-	-	-	-	-	-
	경제협력	250	294	520	596	541	744	789	888	518	1,132	1,252	145	-
	비상업적 거래	366	421	367	108	37	23	11	9	3	4	10	2	1
	반출 합계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521	1,136	1,262	147	1

주: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및 기타경제협력을 의미함.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월호, 검색일: 2018. 2. 22.

[그림 2-1] 연도별 남북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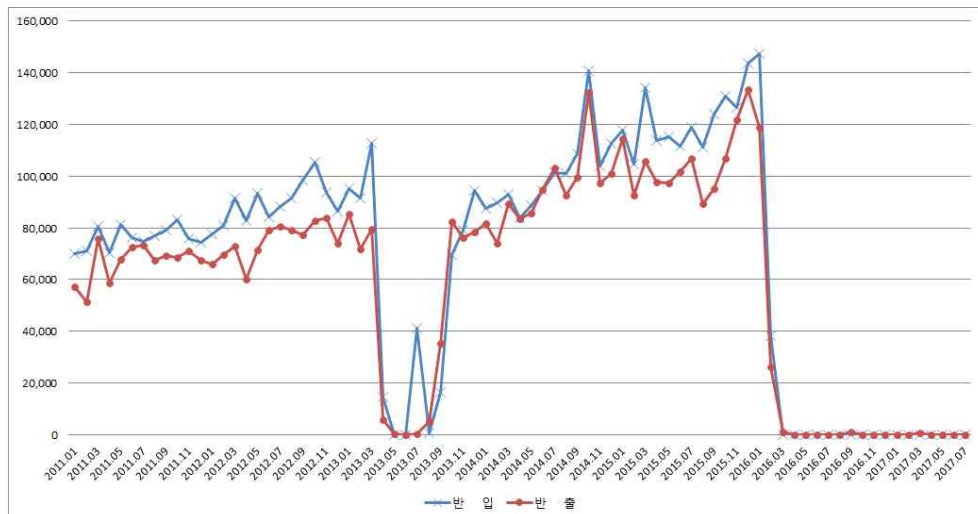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주: 경제협력(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 경공업협력 포함), 비상업적 거래(정부·민간 자원/사회문화협력/경수로 사업 포함).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월호, 검색일: 2018. 2. 22.

[그림 2-2] 월별 남북교역 추이

(단위: 천달러)



자료: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월호, 검색일: 2018. 2. 22.

2. 북중무역

가. 무역 동향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연이은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여 유엔안보리가 2017년 한 해에만 4차례의 초강경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중국도 제재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북중무역 동향에도 몇 가지 변화가 관찰되었다.

우선 한국무역협회(KITA)의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2017년 북중무역액은金正은 정권 이후 최저치인 총 49.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북한의 총 대중 수입액이 전년대비 4.3% 소폭 상승한 것에 반해 수출액은 37.3%로 크게 하락하며 1998년 이래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액 또한 총 16.8억 달러로 집계되어 1998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를 다시 분기별로 살펴보면 2017년 1~3/4분기에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수입액의 경우는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원유 및 정유제품 수입, 섬유제품 수출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9월 11일)와 중국 상무부 고시 52호(9월 23일) 발표 이후인 2017년 4/4분기에는 수출액의 감소폭이 2017년 중 가장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입액의 경우도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표 2-3〉 북중무역 - 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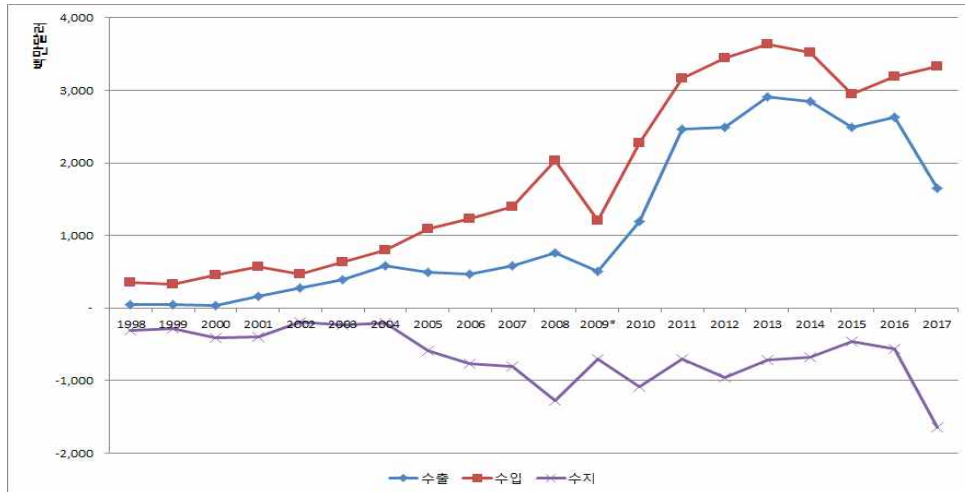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582 (24.3)	754 (29.7)	501 (-33.6)	1,188 (137.3)	2,464 (107.4)	2,485 (0.8)	2,912 (17.2)	2,841 (-2.4)	2,484 (-12.6)	2,634 (6.1)	1,651 (-37.3)
수입	1,392 (13.0)	2,033 (46.0)	1,210 (-40.5)	2,278 (88.3)	3,165 (38.9)	3,446 (8.9)	3,633 (5.4)	3,523 (-3.0)	2,946 (-16.4)	3,192 (8.3)	3,328 (4.3)
계	1,974 (16.1)	2,787 (41.2)	1,710 (-38.6)	3,466 (102.6)	5,629 (62.4)	5,931 (5.4)	6,545 (10.4)	6,364 (-2.8)	5,430 (-14.7)	5,826 (7.3)	4,979 (-14.5)

주: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그림 2-3] 연도별 북중무역 추이



주: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표 2-4> 북중무역 - 월간

(단위: 백만달러, %)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2015.01	184.8 (-16.9)	208.2 (-35.6)
2015.02	158.0 (1.3)	151.1 (52.9)
2015.03	202.7 (-10.5)	204.0 (-16.8)
2015.04	207.8 (-8.0)	272.2 (-9.6)
2015.05	201.0 (-14.0)	254.4 (-15.9)
2015.06	217.4 (-11.7)	243.0 (-21.9)
2015.07	239.3 (-10.6)	266.2 (-17.6)
2015.08	245.4 (-5.2)	238.0 (-24.0)
2015.09	245.4 (-18.3)	270.7 (-18.8)
2015.10	186.7 (-26.0)	247.0 (-25.7)
2015.11	190.9 (-8.3)	275.0 (-1.2)
2015.12	204.6 (-16.1)	316.8 (-12.1)
2016.01	177.5 (-4.0)	211.0 (1.3)
2016.02	161.9 (2.5)	161.5 (6.9)
2016.03	229.2 (13.1)	235.8 (15.6)
2016.04	161.4 (-22.3)	268.0 (-1.5)
2016.05	175.7 (-12.6)	239.4 (-5.9)
2016.06	210.5 (-3.2)	288.2 (18.6)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2016.07	227.3 (-5.0)	192.6 (-27.6)
2016.08	285.7 (16.4)	336.6 (41.4)
2016.09	228.3 (-6.9)	285.6 (5.5)
2016.10	229.8 (23.1)	286.6 (16.0)
2016.11	256.0 (34.1)	350.9 (27.6)
2016.12	291.0 (42.2)	335.9 (39.2)
2017.01	201.1 (13.3)	241.5 (14.5)
2017.02	172.8 (6.7)	151.9 (-5.9)
2017.03	109.3 (-52.3)	328.0 (39.1)
2017.04	92.9 (-42.4)	288.2 (7.5)
2017.05	115.89 (-34.0)	319.8 (33.6)
2017.06	152.43 (-27.6)	326.8 (13.4)
2017.07	150.4 (-33.8)	299.8 (55.7)
2017.08	282.9 (-1.00)	316.0 (-6.1)
2017.09	137.3 (-39.9)	266.3 (-6.7)
2017.10	85.1 (-63.0)	244.1 (-14.8)
2017.11	99.73 (-61.0)	287.8 (-18.0)
2017.12	50.8 (-82.6)	257.7 (-23.3)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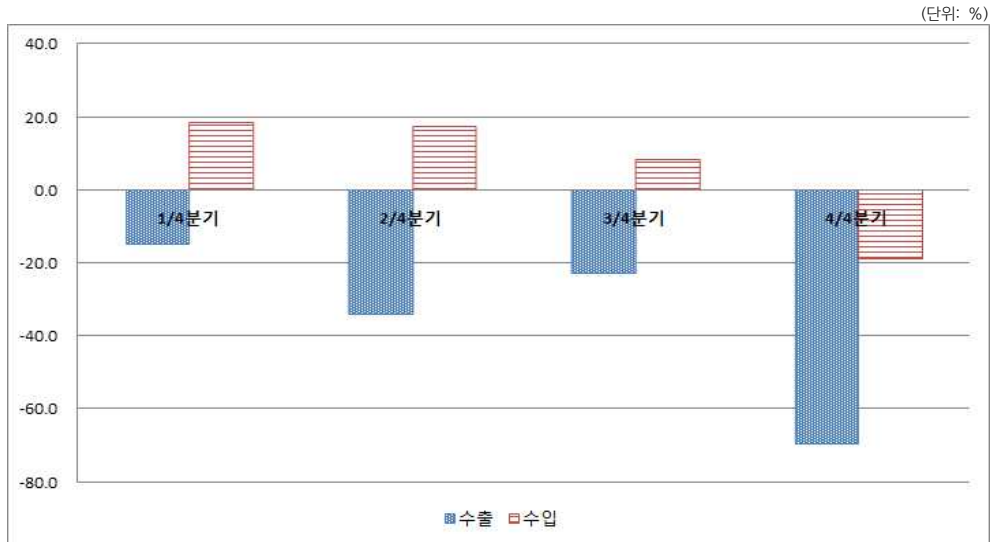
[그림 2-4] 월간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주: 점선은 수출액과 수입액의 12개월 이동평균선.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그림 2-5]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표 2-5> 북한의 대중국 무역 적자 추이 -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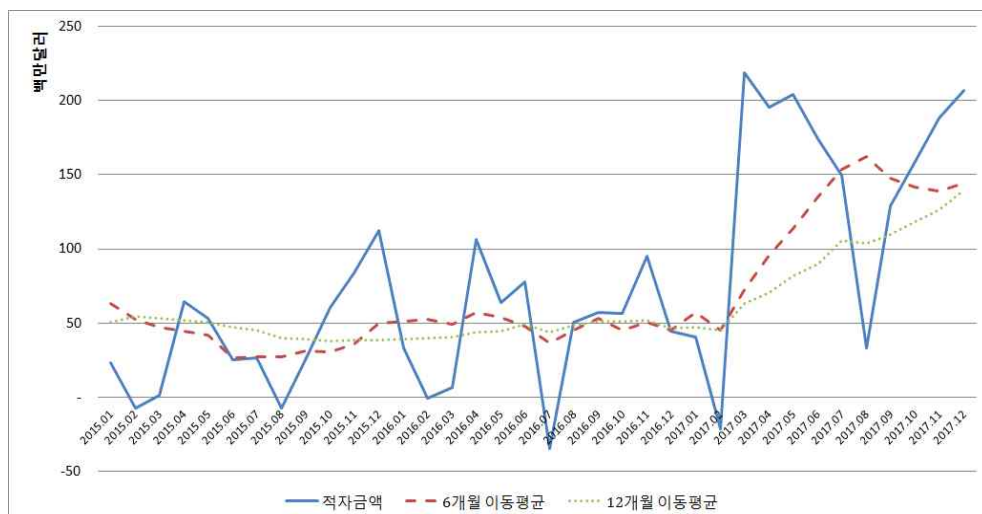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

	적자액	6개월 이동평균	12개월 이동평균
2015.01	23.3	62.9	50.3
2015.02	-6.9	52.7	54.5
2015.03	1.3	47.4	53.0
2015.04	64.4	44.8	52.1
2015.05	53.4	42.0	50.8
2015.06	25.6	26.9	47.6
2015.07	26.9	27.5	45.2
2015.08	-7.4	27.4	40.0
2015.09	25.3	31.4	39.4
2015.10	60.3	30.7	37.8
2015.11	84.1	35.8	38.9
2015.12	112.2	50.2	38.5
2016.01	33.5	51.3	39.4
2016.02	-0.4	52.5	39.9
2016.03	6.6	49.4	40.4
2016.04	106.6	57.1	43.9
2016.05	63.7	53.7	44.8

	적자액	6개월 이동평균	12개월 이동평균
2016.06	77.7	47.9	49.1
2016.07	-34.7	36.6	44.0
2016.08	50.9	45.1	48.8
2016.09	57.3	53.6	51.5
2016.10	56.8	45.3	51.2
2016.11	94.8	50.5	52.1
2016.12	44.9	45.0	46.5
2017.01	40.4	57.5	47.0
2017.02	-20.9	45.5	45.3
2017.03	218.7	72.4	63.0
2017.04	195.3	95.5	70.4
2017.05	203.9	113.7	82.1
2017.06	174.4	135.3	90.1
2017.07	149.4	153.5	105.5
2017.08	33.1	162.5	104.0
2017.09	129.0	147.5	110.0
2017.10	159.0	141.5	118.5
2017.11	188.1	138.8	126.3
2017.12	207.0	144.3	139.8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그림 2-6]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다음으로 수출입액 상위 5개 품목(HS코드 4단위 기준)을 중심으로 2017년 북중무역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출의 경우 과거 지속적으로 수출품목 1위를 차지한 석탄이(HS 2701) 2017년에도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석탄 수출액 자체는 총 4억 달러로 전년대비 66%나 감소했다. 석탄품목에서의 수출 감소액은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 감소액의 79.2%를 차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HS코드 62로 시작하는 3개 의류품목 (남성코트(HS 6201), 여성코트(HS 6202), 남성재킷(HS 6203))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기록됐다. 상기 3개 품목의 수출액은 총 3.7억 달러로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의 22.5%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에 속하는 연체동물(HS 0307) 품목이 총 1.3억 달러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HS 5407)이 2015~17년 연속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1위를 기록했으며 2017년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목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 상위 5개 품목에 포함되던 원유를 제외한 석유제품(HS 2710)이 2017년에는 5개 품목에서 제외 된 것인데²⁾, 이는 대북제재 2375호(9월)와 2397호(12월), 중국 상무부 고시 52호(9월)에서 원유 및 정유제품 교역을 제한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2-6〉 북한의 대중국 수출 상위 5개 품목(HS 4단위 기준)

(단위: 백만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석탄	201.3	석탄	208.6	석탄	390.4	석탄	1,140.9	석탄	1,198.5
철광	172.3	철광	48.5	철광	194.3	철광	324.5	철광	248.6
연체동물	36.1	선철	20.6	선철	64.4	남성재킷	111.4	남성재킷	95.2
선철	35.0	연체동물	19.3	연체동물	53.2	선철	105.8	연체동물	91.4
페로알로이	31.0	남성재킷	18.1	아연의 과	47.7	남성코트	85.3	남성코트	88.8

2013		2014		2015		2016		2017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석탄	1379.8	석탄	1,135.7	석탄	1,049.8	석탄	1,180.9	석탄	401.7
철광	298.7	철광	221.9	남성코트	168.5	남성재킷	157.7	남성코트	139.1
남성코트	126.7	남성코트	157.3	남성재킷	151.3	남성코트	152.2	연체동물	136.1
남성재킷	122.2	남성재킷	152.9	여성코트	130.5	연체동물	140.7	여성코트	128.6
여성코트	116.5	여성코트	137.1	여성재킷	96.9	여성코트	135.5	남성재킷	104.3

주: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2) 2017년 원유를 제외한 석유제품(HS 2710)은 대중국 수출 품목 중 상위 8위를 기록함.

〈표 2-7〉 북한의 대중국 수입 상위 5개 품목(HS 4단위 기준)

(단위: 백만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원유	414.3	원유	164.2	원유	325.8	원유	518.4	원유	577.9
석유제품	120.1	석유제품	46.4	석유제품	104.9	석유제품	192.4	석유제품	161.9
합성필라멘트 사의 직물	52.4	화물자동차	41.8	화물자동차	88.3	화물자동차	146.2	화물자동차	141.2
대두유	45.1	합성필라멘트 사의 직물	33.2	합성필라멘트 사의 직물	71.7	합성필라멘트 사의 직물	99.3	합성필라멘트 사의 직물	120.0
석탄	44.4	대두유	26.1	전화기	62.8	질소비료	94.2	전화기	93.2

2013		2014		2015		2016		2017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원유	598.1	석유제품	154.8	합성필라멘트 사의 직물	138.2	합성필라멘트 사의 직물	175.7	합성필라멘트 사의 직물	205.5
화물자동차	143.3	합성필라멘트 사의 직물	152.8	석유제품	116.5	화물자동차	147.2	대두유	111.4
합성필라멘트 사의 직물	136.8	전화기	112.3	화물자동차	108.1	석유제품	115.0	전화기	87.5
석유제품	104.5	대두유	112.2	대두유	104.0	대두유	98.1	텔레비전 수송기	78.8
대두유	85.0	화물자동차	108.7	전화기	73.5	사과, 배	82.0	화물자동차	70.1

주: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나. 주요 수출품목

(무연탄: HS 270111) KITA의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액은 전년대비 66% 감소한 총 4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월별로는 3~7월, 10~12월에 수출액 통계가 0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2017년 2월 18일 중국이 상무부 고시 12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무연탄 수출액이 0으로 기록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후 8월과 9월 두 달간 무연탄 수출액 통계가 집계 된 것인데 8월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2%나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표 2-8〉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 1: 무연탄(HS코드 270111)

(단위: 천달러, 천톤, 달러/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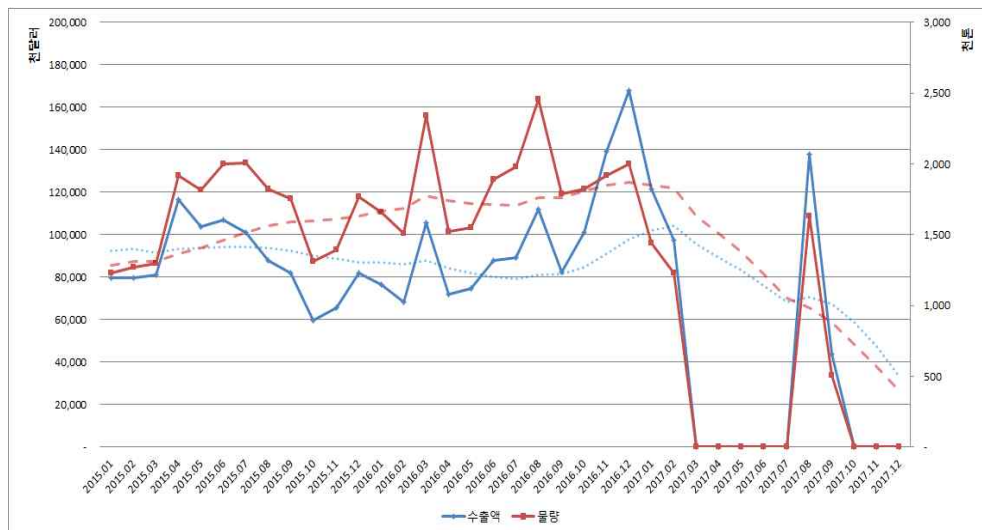
	수출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5.01	79,713	(-21.5)	1,227.14	(-1.4)	64.96	(-20.4)
2015.02	79,595	(10.4)	1,269.24	(37.7)	62.71	(-19.9)
2015.03	80,979	(-18.0)	1,297.32	(0.5)	62.42	(-18.4)
2015.04	116,617	(22.4)	1,915.00	(50.5)	60.90	(-18.7)
2015.05	103,915	(3.5)	1,813.16	(38.2)	57.31	(-25.2)
2015.06	106,826	(3.6)	1,998.53	(42.9)	53.45	(-27.5)
2015.07	100,869	(3.4)	2,008.54	(53.0)	50.22	(-32.5)
2015.08	87,961	(-5.8)	1,821.34	(41.7)	48.29	(-33.5)
2015.09	81,871	(-16.9)	1,757.34	(26.1)	46.59	(-34.1)
2015.10	59,647	(-32.6)	1,312.80	(3.5)	45.43	(-34.8)
2015.11	65,703	(-17.5)	1,392.94	(19.1)	47.17	(-30.7)
2015.12	82,095	(-20.6)	1,765.99	(13.1)	46.49	(-29.8)
2016.01	76,450	(-4.1)	1,660.14	(35.3)	46.05	(-29.1)
2016.02	68,274	(-14.2)	1,509.20	(18.9)	45.24	(-27.9)
2016.03	105,550	(30.3)	2,338.82	(80.3)	45.13	(-27.7)
2016.04	72,108	(-38.2)	1,525.61	(-20.3)	47.27	(-22.4)
2016.05	74,540	(-28.3)	1,551.17	(-14.4)	48.05	(-16.2)
2016.06	87,879	(-17.7)	1,889.20	(-5.5)	46.52	(-13.0)
2016.07	89,258	(-11.5)	1,981.54	(-1.3)	45.04	(-10.3)
2016.08	111,991	(27.3)	2,458.54	(35.0)	45.55	(-5.7)

	수출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6.09	82,380 (0.6)	1,787.21 (1.7)	46.09 (-1.1)
2016.10	101,145 (69.6)	1,819.94 (38.6)	55.58 (22.3)
2016.11	139,376 (112.1)	1,914.92 (37.5)	72.78 (54.3)
2016.12	168,056 (104.7)	2,001.98 (13.4)	83.94 (80.6)
2017.01	121,572 (59.0)	1,441.99 (-13.1)	84.31 (83.1)
2017.02	97,400 (42.7)	1,229.25 (-18.5)	79.24 (75.1)
2017.03	0 (-100.0)	0 (-100.0)	- -
2017.04	0 (-100.0)	0 (-100.0)	- -
2017.05	0 (-100.0)	0 (-100.0)	- -
2017.06	0 (-100.0)	0 (-100.0)	- -
2017.07	0 (-100.0)	0 (-100.0)	- -
2017.08	137,925 (23.2)	1,633.98 (-33.5)	84.41 (85.3)
2017.09	43,954 (-46.6)	509.49 (-71.5)	86.27 (87.2)
2017.10	0 (-100.0)	0 (-100.0)	- -
2017.11	0 (-100.0)	0 (-100.0)	- -
2017.12	0 (-100.0)	0 (-100.0)	- -

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증가율을 뜻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그림 2-7] 무연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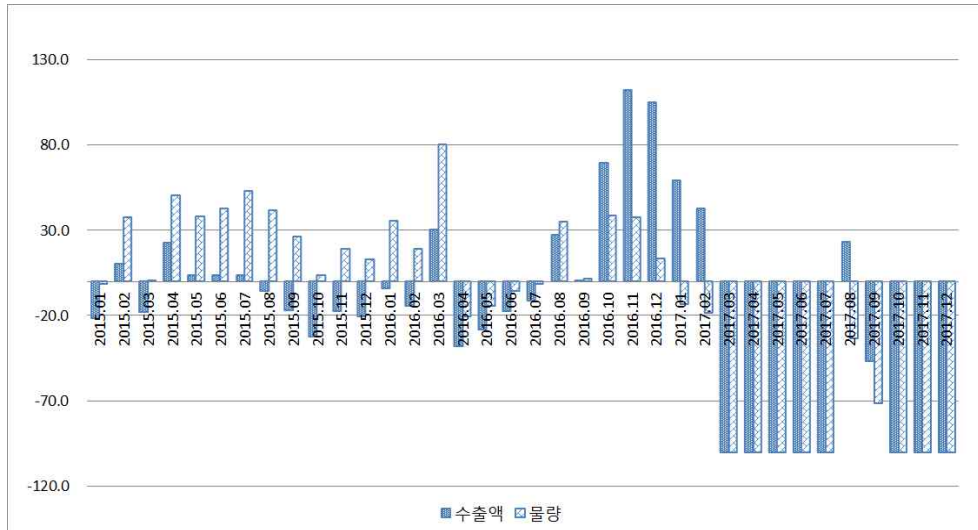


주: 점선은 수출액과 물량의 12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의미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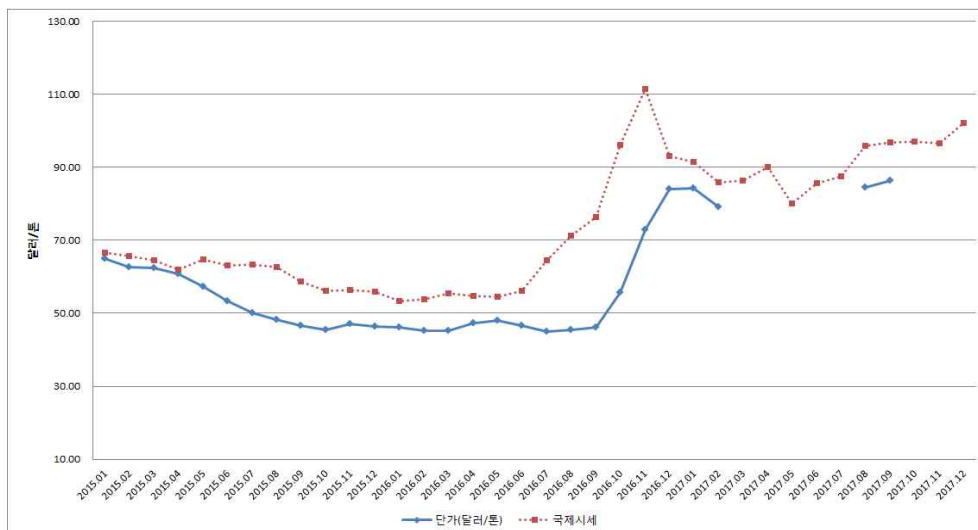
[그림 2-8] 월별 무연탄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변화

(단위: %)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그림 2-9] 무연탄 수출단가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IndexMundi(<http://www.indexmundi.com/commodities/?commodity=coal-australian>), 검색일: 2018. 2. 22.

(철광석: HS 260111) 2015~16년 북한의 대중 철광석 수출액은 2016년 5~7월 단기간 급등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7년에 들어와서는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당해 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6% 증가한 총 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 8월에 유엔 대북제재 2371호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를 통해 북한산 철광석 교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9월부터 다시 철광석 수출액이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10~12월 통계에서는 수출액이 0으로 기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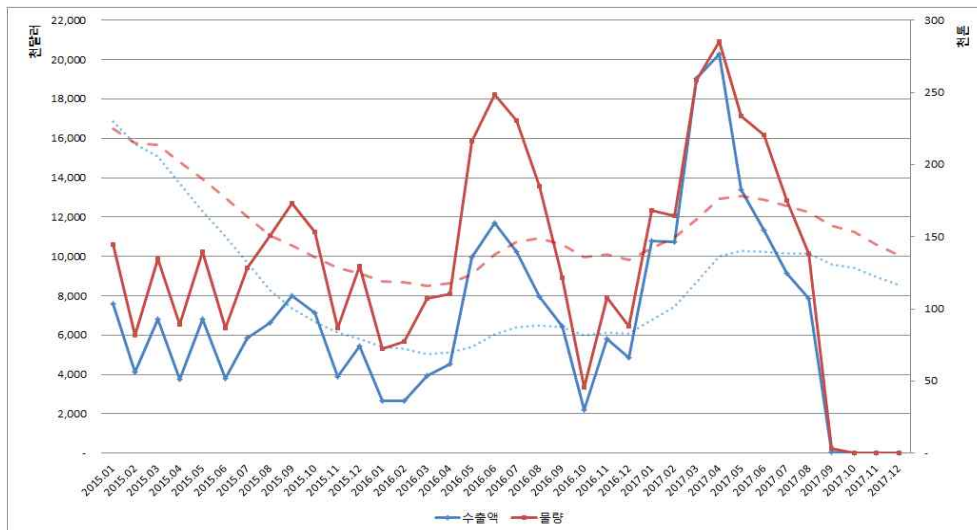
〈표 2-9〉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 2: 철광석(HS코드 260111)

(단위: 천달러, 천톤, 달러/톤, %)

	수출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5.01	7,568	(-68.0)	144.34	(-40.4)	52.43	(-46.3)
2015.02	4,126	(-77.3)	81.50	(-58.5)	50.63	(-45.2)
2015.03	6,799	(-52.5)	134.45	(-11.1)	50.57	(-46.5)
2015.04	3,752	(-81.4)	89.09	(-61.1)	42.11	(-52.2)
2015.05	6,822	(-71.3)	139.62	(-50.9)	48.86	(-41.6)
2015.06	3,809	(-80.4)	86.94	(-64.1)	43.82	(-45.5)
2015.07	5,860	(-72.7)	128.58	(-55.6)	45.58	(-38.5)
2015.08	6,640	(-72.2)	150.63	(-50.6)	44.08	(-43.8)
2015.09	8,011	(-56.6)	172.91	(-32.5)	46.33	(-35.7)
2015.10	7,120	(-54.1)	153.20	(-39.3)	46.47	(-24.4)
2015.11	3,913	(-62.0)	86.91	(-49.8)	45.03	(-24.3)
2015.12	5,455	(-41.8)	129.50	(-24.8)	42.13	(-22.6)
2016.01	2,660	(-64.8)	72.36	(-49.9)	36.76	(-29.9)
2016.02	2,645	(-35.9)	77.07	(-5.4)	34.32	(-32.2)
2016.03	3,945	(-42.0)	107.02	(-20.4)	36.86	(-27.1)
2016.04	4,536	(20.9)	110.27	(23.8)	41.13	(-2.3)
2016.05	9,977	(46.2)	216.09	(54.8)	46.17	(-5.5)
2016.06	11,703	(207.2)	248.52	(185.9)	47.09	(7.5)
2016.07	10,244	(74.8)	230.29	(79.1)	44.48	(-2.4)
2016.08	7,956	(19.8)	184.73	(22.6)	43.07	(-2.3)
2016.09	6,454	(-19.4)	121.53	(-29.7)	53.11	(14.6)
2016.10	2,196	(-69.2)	45.47	(-70.3)	48.31	(3.9)
2016.11	5,821	(48.7)	107.70	(23.9)	54.05	(20.0)
2016.12	4,832	(-11.4)	88.07	(-32.0)	54.87	(30.2)

	수출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7.01	10,77261	(304.9)	168.27	(132.5)	64.01	(74.1)
2017.02	10,722	(305.4)	164.32	(113.2)	65.25	(90.1)
2017.03	19,061	(383.2)	258.56	(141.6)	73.72	(100.0)
2017.04	20,260	(346.7)	285.49	(158.9)	70.97	(72.5)
2017.05	13,391	(34.2)	233.51	(8.1)	57.35	(24.2)
2017.06	11,311	(-3.3)	220.39	(-11.3)	51.32	(9.0)
2017.07	9,128	(-10.9)	174.78	(-24.1)	52.23	(17.4)
2017.08	7,877	(-1.0)	138.58	(-25.0)	56.84	(32.0)
2017.09	55	(-99.2)	3.04	(-97.5)	18.00	(-66.1)
2017.10	0	(-100.0)	0	(-100.0)	-	-
2017.11	0	(-100.0)	0	(-100.0)	-	-
2017.12	0	(-100.0)	0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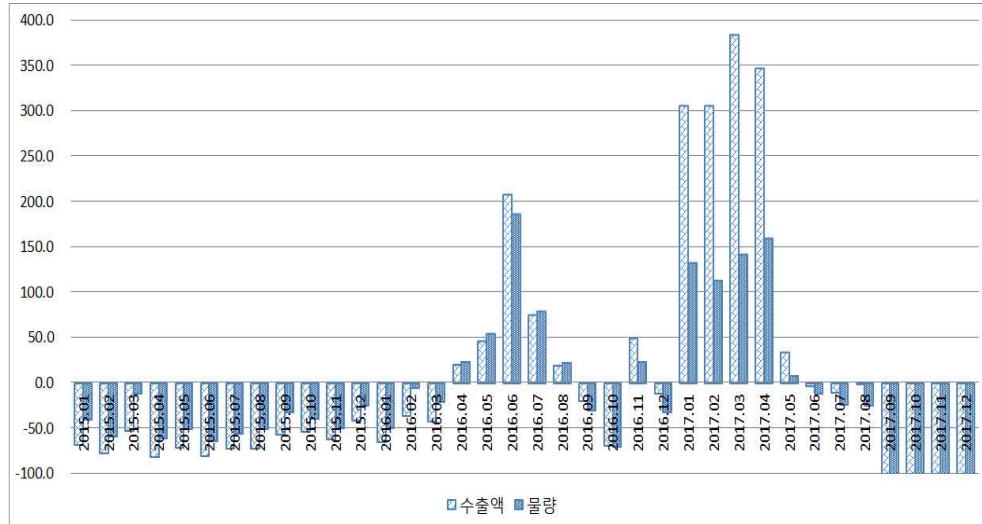
[그림 2-10] 철광석 수출



주: 점선은 수출액과 물량의 12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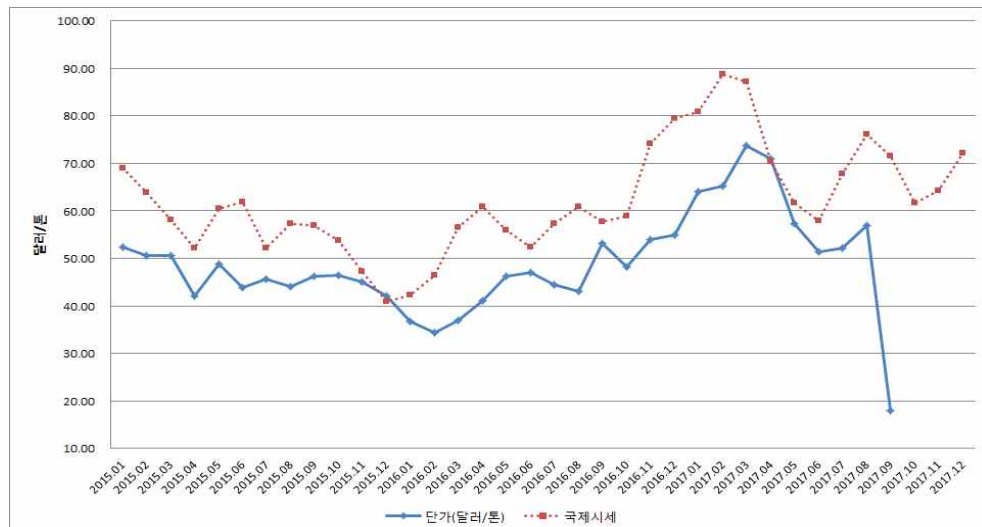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그림 2-11] 월별 철광석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변화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그림 2-12] 철광석 수출단가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IndexMundi(<http://www.indexmundi.com/commodities/?commodity=coal-australian>), 검색일: 2018. 2. 22.

(의류: HS 61 & 62) 2017년 북한의 주요 수출품(HS코드 4단위 기준) 상위 5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HS코드 62로 시작하는 의류 제품으로 기록됐으며 상기 3개 품목의 수출액은 북한의 대중 수출총액의 22.5%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년과 비교해보면 2017년 의류 품목(HS 61&62) 수출액은 총 5.6억 달러로 2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 해 동안 의류 품목 수출액은 4~9월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 금지 내용이 포함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9월)와 중국 상무부 고시 52호(9월)이후인 10월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표 2-10〉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 3: 의류(HS코드 61 & 62)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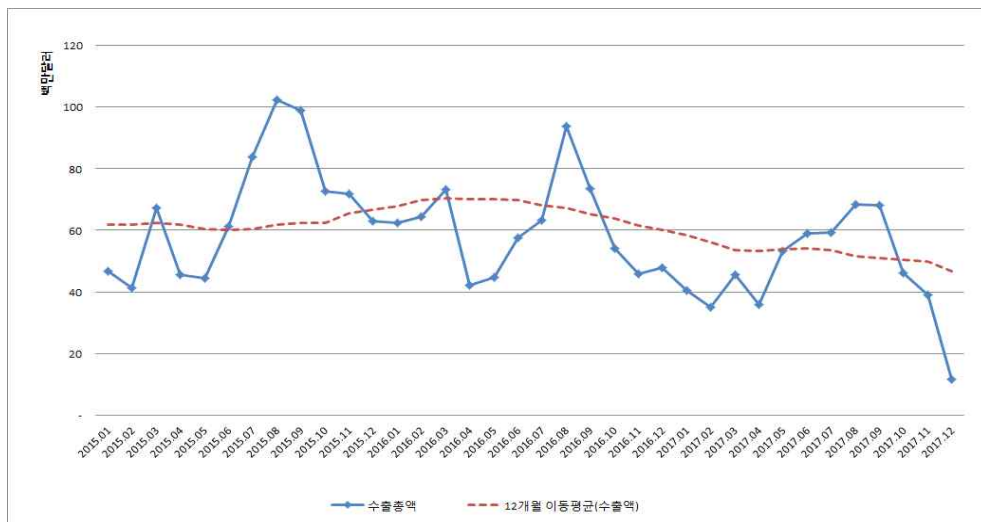
	HS 61 수출액 (증가율)	HS 62 수출액 (증가율)	HS 61 + 62 수출총액 (증가율)
2015.01	10,188 (41.1)	36,475 (-7.0)	46,663 (0.5)
2015.02	8,565 (57.0)	32,688 (-2.3)	41,253 (6.0)
2015.03	20,708 (43.1)	46,680 (0.5)	67,388 (10.6)
2015.04	14,562 (0.2)	30,991 (-19.6)	45,554 (-14.2)
2015.05	12,882 (35.9)	31,660 (-38.2)	44,542 (-26.6)
2015.06	13,133 (91.6)	48,035 (-18.4)	61,168 (-7.0)
2015.07	9,795 (20.3)	74,081 (3.1)	83,876 (4.9)
2015.08	17,390 (42.7)	84,943 (17.7)	102,333 (21.3)
2015.09	18,586 (22.7)	80,400 (2.0)	98,986 (5.3)
2015.10	13,529 (31.6)	59,050 (-2.3)	72,579 (2.6)
2015.11	14,841 (139.5)	57,020 (87.4)	71,860 (96.2)
2015.12	11,917 (32.2)	51,185 (26.3)	63,102 (27.4)
2016.01	10,069 (-1.2)	52,380 (43.6)	62,449 (33.8)
2016.02	16,395 (91.4)	48,022 (46.9)	64,418 (56.2)
2016.03	13,284 (-35.9)	59,887 (28.3)	73,171 (8.6)
2016.04	11,602 (-20.3)	30,482 (-1.6)	42,085 (-7.6)
2016.05	6,685 (-48.1)	38,170 (20.6)	44,854 (0.7)
2016.06	11,634 (-11.4)	45,965 (-4.3)	57,599 (-5.8)
2016.07	6,005 (-38.7)	57,283 (-22.7)	63,288 (-24.5)
2016.08	7,735 (-55.5)	86,143 (1.4)	93,878 (-8.3)
2016.09	7,578 (-59.2)	66,119 (-17.8)	73,697 (-25.5)

	HS 61 수출액 (증가율)	HS 62 수출액 (증가율)	HS 61 + 62 수출총액 (증가율)
2016.10	8,640 (-36.1)	45,602 (-22.8)	54,242 (-25.3)
2016.11	5,199 (-65.0)	40,551 (-28.9)	45,750 (-36.3)
2016.12	7,046 (-40.9)	40,896 (-20.1)	47,941 (-24.0)
2017.01	7,552 (-25.0)	32,944 (-37.1)	40,496 (-35.2)
2017.02	5,562 (-66.1)	29,569 (-38.4)	35,131 (-45.5)
2017.03	9,066 (-31.8)	36,411 (-39.2)	45,477 (-37.8)
2017.04	5,709 (-50.8)	30,310 (-0.6)	36,019 (-14.4)
2017.05	7,448 (11.4)	45,912 (20.3)	53,361 (19.0)
2017.06	6,600 (-43.3)	52,333 (13.9)	58,933 (2.3)
2017.07	6,030 (0.4)	53,292 (-7.0)	59,323 (-6.3)
2017.08	6,552 (-15.3)	61,914 (-28.1)	68,466 (-27.1)
2017.09	5,107 (-32.6)	63,004 (-4.7)	68,111 (-7.6)
2017.10	2,425 (-71.9)	43,626 (-4.3)	46,051 (-15.1)
2017.11	2,419 (-53.5)	36,667 (-9.6)	39,086 (-14.6)
2017.12	783 (-88.9)	10,758 (-73.7)	11,542 (-75.9)

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증가율을 뜻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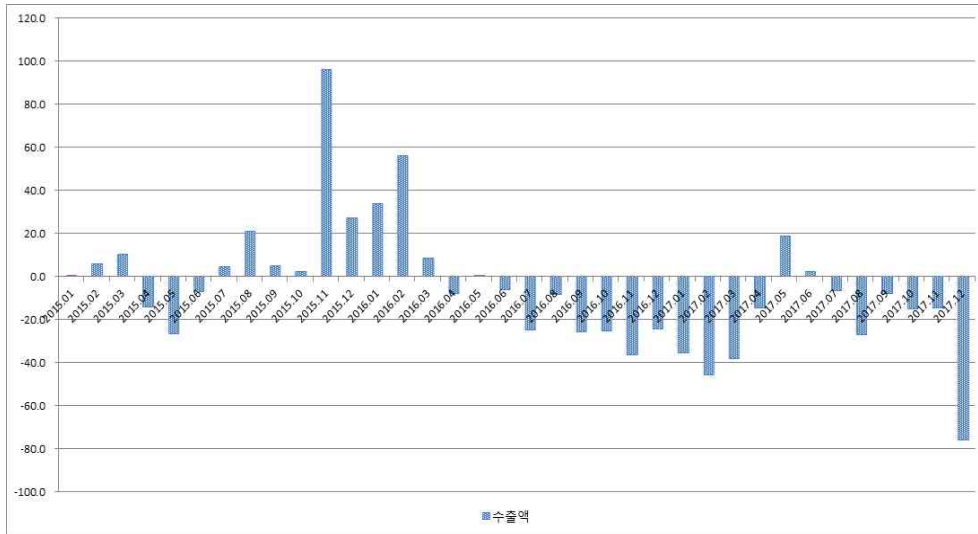
[그림 2-13] 의류 수출



주: 점선은 수출총액의 12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의미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그림 2-14] 월별 의류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수산물: HS 03)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산물 수출액은 총 1.6억 달러로 전년대비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6~7월에 수산물 수출이 가장 많았는데 이 두 달동안의 수출액이 2017년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5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유엔 대북제재 2371호(8월)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8월)를 통해 북한산 수산물 교역이 중단됨에 따라 9~12월 수산물 수출액 통계가 0으로 기록됐다.

<표 2-11>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 상품 4: 수산물(HS코드 03)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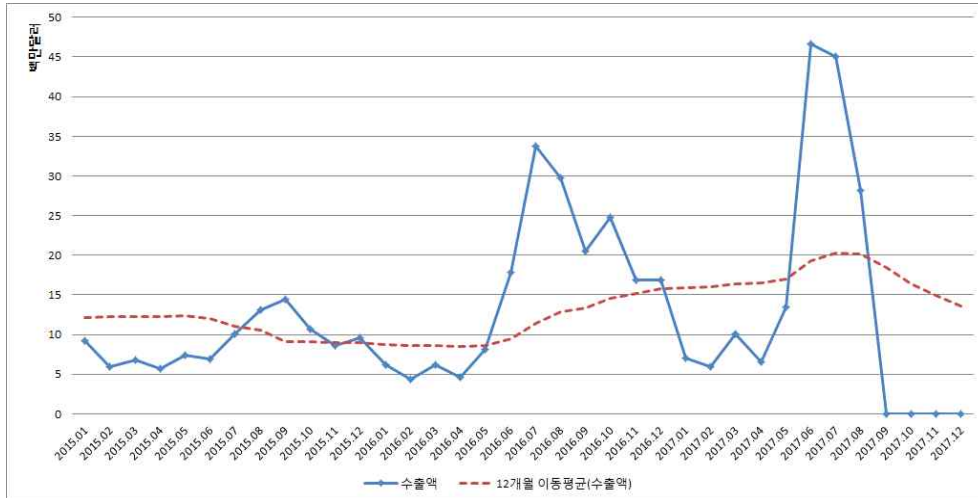
	수출액	(증가율)	12개월 이동평균
2015.01	9,269	(24.2)	12,088
2015.02	5,966	(64.3)	12,283
2015.03	6,817	(-7.6)	12,236
2015.04	5,666	(-0.3)	12,234
2015.05	7,436	(42.7)	12,420
2015.06	6,954	(-39.7)	12,038
2015.07	10,083	(-53.3)	11,079

	수출액	(증가율)	12개월 이동평균
2015.08	13,066	(-33.5)	10,530
2015.09	14,390	(-54.2)	9,109
2015.10	10,693	(5.8)	9,158
2015.11	8,579	(-14.2)	9,039
2015.12	9,557	(0.1)	9,040
2016.01	6,232	(-32.8)	8,787
2016.02	4,389	(-26.4)	8,655
2016.03	6,196	(-9.1)	8,603
2016.04	4,607	(-18.7)	8,515
2016.05	8,142	(9.5)	8,574
2016.06	17,883	(157.2)	9,485
2016.07	33,759	(234.8)	11,458
2016.08	29,788	(128.0)	12,851
2016.09	20,525	(42.6)	13,363
2016.10	24,804	(132.0)	14,538
2016.11	16,896	(96.9)	15,232
2016.12	16,872	(76.5)	15,841
2017.01	6,985	(12.1)	15,904
2017.02	5,882	(34.0)	16,028
2017.03	10,075	(62.6)	16,352
2017.04	6,555	(42.3)	16,514
2017.05	13,433	(65.0)	16,955
2017.06	46,663	(160.9)	19,353
2017.07	45,087	(33.6)	20,297
2017.08	28,141	(-5.5)	20,160
2017.09	0	(-100.0)	18,450
2017.10	0	(-100.0)	16,383
2017.11	0	(-100.0)	14,974
2017.12	0	(-100.0)	13,569

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증가율을 뜻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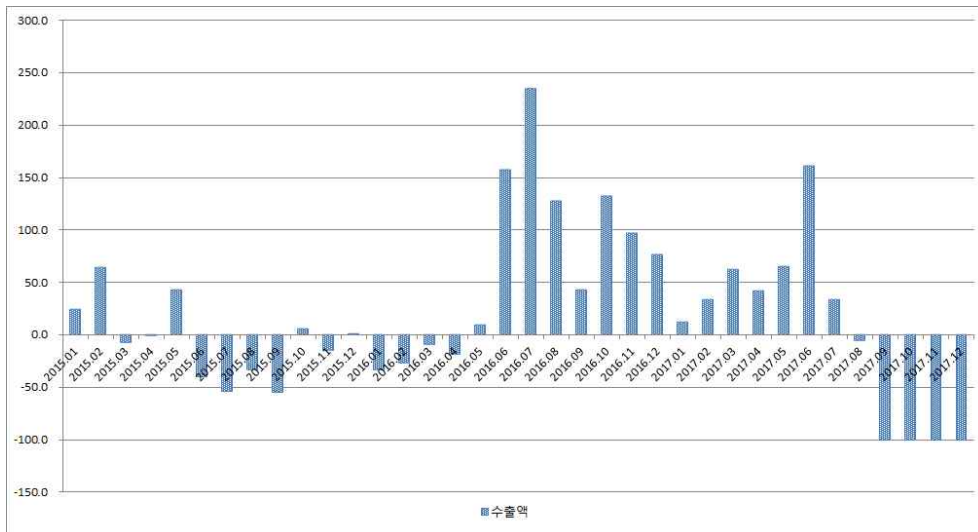
[그림 2-15] 수산물 수출



주: 점선은 수출액의 12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의미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그림 2-16] 월별 수산물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다. 주요 수입품목

(석유제품: HS코드 2710) KITA의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품목 중 하나인 (원유를 제외한)석유제품은 2017년 수출액과 물량이 각각 전년대비 58.0%, 6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9월)와 중국 상무부 고시 52호(9월)를 통해 석유제품 교역량이 제한됨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는 수출액과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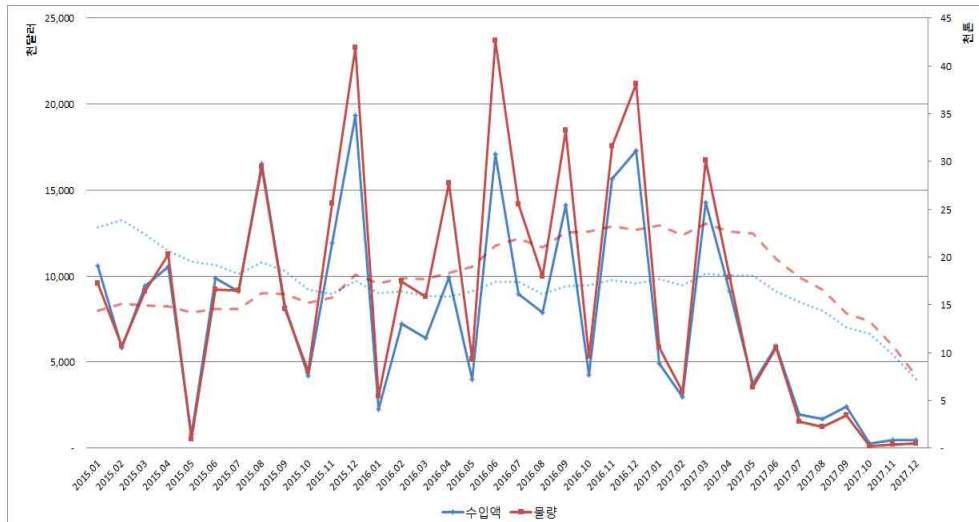
〈표 2-12〉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입 상품 1: 석유제품(HS코드 2710)

(단위: 천달러, 천톤, 달러/톤, %)

	수입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5.01	10,615	(-4.5)	17.26	(53.3)	0.62	(-37.7)
2015.02	5,829	(319.3)	10.70	(649.6)	0.54	(-44.1)
2015.03	9,419	(-51.1)	16.43	(-13.1)	0.57	(-43.7)
2015.04	10,569	(-51.4)	20.23	(-5.2)	0.52	(-48.7)
2015.05	760	(-90.5)	0.94	(-88.7)	0.81	(-16.7)
2015.06	9,867	(-23.4)	16.58	(32.0)	0.60	(-41.9)
2015.07	9,097	(-39.0)	16.50	(1.4)	0.55	(-39.9)
2015.08	16,544	(99.2)	29.43	(225.4)	0.56	(-38.8)
2015.09	8,257	(-43.3)	14.52	(-6.8)	0.57	(-39.2)
2015.10	4,230	(-75.3)	8.02	(-58.7)	0.53	(-40.1)
2015.11	11,941	(-22.2)	25.60	(36.9)	0.47	(-43.2)
2015.12	19,329	(89.8)	41.89	(215.1)	0.46	(-39.8)
2016.01	2,242	(-78.9)	5.45	(-68.4)	0.41	(-33.1)
2016.02	7,206	(23.6)	17.39	(62.5)	0.41	(-23.9)
2016.03	6,428	(-31.8)	15.87	(-3.4)	0.40	(-29.4)
2016.04	9,924	(-6.1)	27.75	(37.2)	0.36	(-31.5)
2016.05	3,997	(425.7)	9.29	(885.0)	0.43	(-46.6)
2016.06	17,074	(73.0)	42.67	(157.4)	0.40	(-32.8)
2016.07	8,977	(-1.3)	25.50	(54.6)	0.35	(-36.2)
2016.08	7,877	(-52.4)	17.94	(-39.0)	0.44	(-21.9)
2016.09	14,112	(70.9)	33.21	(128.8)	0.42	(-25.3)
2016.10	4,248	(0.4)	9.62	(20.0)	0.44	(-16.3)

	수입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6.11	15,640 (31.0)	31.56 (23.3)	0.50 (6.2)
2016.12	17,270 (-10.7)	38.15 (-8.9)	0.45 (-1.9)
2017.01	4,938 (120.2)	10.51 (92.8)	0.47 (14.2)
2017.02	2,999 (-58.4)	5.91 (-66.0)	0.51 (22.50)
2017.03	14,272 (122.0)	30.10 (89.6)	0.47 (17.1)
2017.04	9,095 (-8.4)	17.86 (-35.6)	0.51 (42.4)
2017.05	3,733 (-6.6)	6.41 (-31.0)	0.58 (35.4)
2017.06	5,944 (-65.2)	10.53 (-75.3)	0.56 (41.1)
2017.07	1,945 (-78.3)	2.82 (-88.9)	0.69 (95.8)
2017.08	1,700 (-78.4)	2.21 (-87.7)	0.77 (75.5)
2017.09	2,395 (-83.0)	3.46 (-89.6)	0.69 (62.8)
2017.10	245 (-94.2)	0.21 (-97.8)	1.16 (162.3)
2017.11	484 (-96.9)	0.41 (-98.7)	1.18 (137.4)
2017.12	480 (-97.2)	0.44 (-98.8)	1.09 (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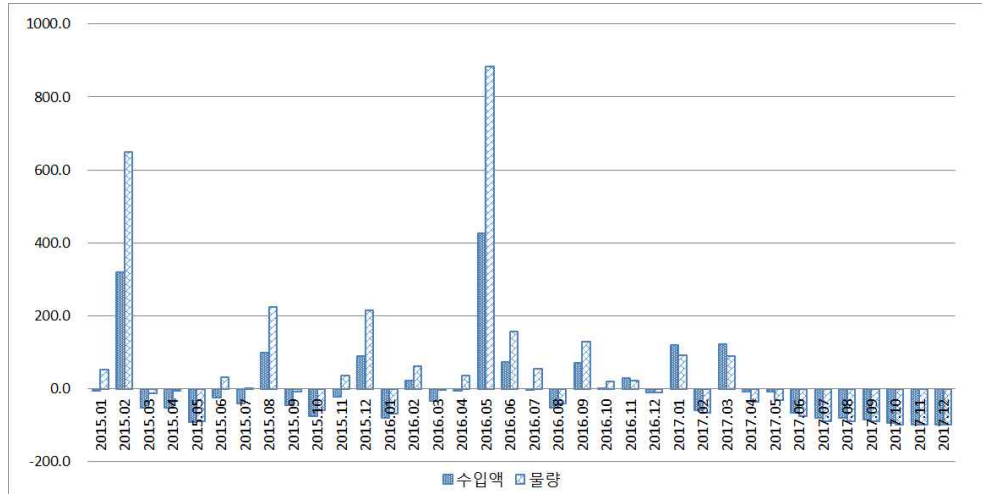
[그림 2-17] 석유제품 수입



주: 점선은 수출액과 물량의 12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의미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그림 2-18] 월별 석유제품 수입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쌀: HS코드 100630, 옥수수: HS코드 100590) 2017년 쌀과 옥수수 수입량은 총 8만 7천톤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했다. 특히 2017년 6~8월 3달 동안의 수입량이 가장 많았는데 이 기간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5.8% 증가한 것으로 2017년 전체 수입량의 78.9%를 차지했다.

〈표 2-13〉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입 상품: 식량(쌀·옥수수)(HS코드 쌀: 100630, 옥수수: 100590)

(단위: 천달러, 천톤, 달러/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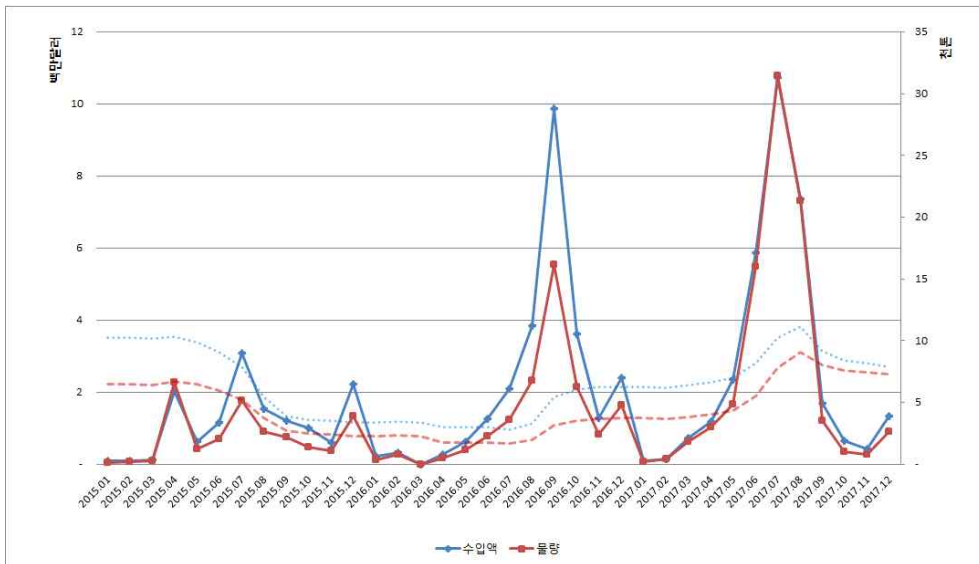
	수입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5.01	94	(-82.2)	0.16	(-83.2)	596.43	(5.6)
2015.02	104	(-)	0.18	(-)	580.00	(-)
2015.03	110	(-82.3)	0.28	(-81.5)	398.70	(-3.8)
2015.04	2,011	(45.7)	6.63	(115.9)	303.17	(-32.5)
2015.05	640	(-73.0)	1.26	(-67.8)	508.96	(-16.2)
2015.06	1,165	(-74.9)	2.05	(-73.9)	569.52	(-3.8)
2015.07	3,079	(-60.6)	5.19	(-64.3)	593.71	(10.4)
2015.08	1,547	(-86.6)	2.67	(-86.8)	579.48	(2.2)
2015.09	1,206	(-84.5)	2.20	(-85.0)	547.11	(3.6)

	수입액	(증가율)	물량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15.10	999	(-54.7)	1.42	(-67.2)	706.08	(38.0)
2015.11	610	(-8.7)	1.11	(-30.3)	550.22	(30.9)
2015.12	2,221	(-28.1)	3.90	(-35.8)	569.91	(12.0)
2016.01	229	(144.9)	0.37	(138.1)	613.35	(2.8)
2016.02	327	(213.2)	0.77	(325.0)	427.45	(-26.3)
2016.03	0	(-99.7)	0.00	(-99.8)	600.00	(50.5)
2016.04	267	(-86.7)	0.47	(-92.9)	567.34	(87.1)
2016.05	633	(-1.1)	1.20	(-4.5)	527.10	(3.6)
2016.06	1,271	(9.1)	2.26	(10.6)	561.91	(-1.3)
2016.07	2,089	(-32.1)	3.60	(-30.5)	579.80	(-2.3)
2016.08	3,854	(149.2)	6.75	(152.8)	571.21	(-1.4)
2016.09	9,875	(718.8)	16.15	(632.7)	611.41	(11.8)
2016.10	3,614	(261.7)	6.27	(343.0)	576.46	(-18.4)
2016.11	1,293	(111.9)	2.41	(117.0)	537.13	(2.4)
2016.12	2,401	(8.2)	4.75	(22.0)	505.30	(-11.3)
2017.01	109	(-52.6)	0.19	(-49.7)	578.53	(-5.7)
2017.02	142	(-56.6)	0.45	(-41.4)	316.59	(-25.9)
2017.03	739	(246,344.3)	1.84	(367,460.0)	402.29	(-33.0)
2017.04	1,193	(347.3)	3.05	(548.6)	391.30	(-31.0)
2017.05	2,344	(270.2)	4.87	(305.1)	481.72	(-8.6)
2017.06	5,878	(362.4)	16.00	(607.2)	367.42	(-34.6)
2017.07	10,735	(413.8)	31.48	(773.7)	340.97	(-41.2)
2017.08	7,374	(91.3)	21.36	(216.5)	345.26	(-39.6)
2017.09	1,688	(-82.9)	3.56	(-78.0)	474.83	(-22.3)
2017.10	654	(-81.9)	1.06	(-83.1)	617.91	(7.2)
2017.11	429	(-66.8)	0.77	(-68.0)	556.45	(3.6)
2017.12	1,334	(-44.5)	2.68	(-43.7)	498.50	(-1.3)

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증가율을 뜻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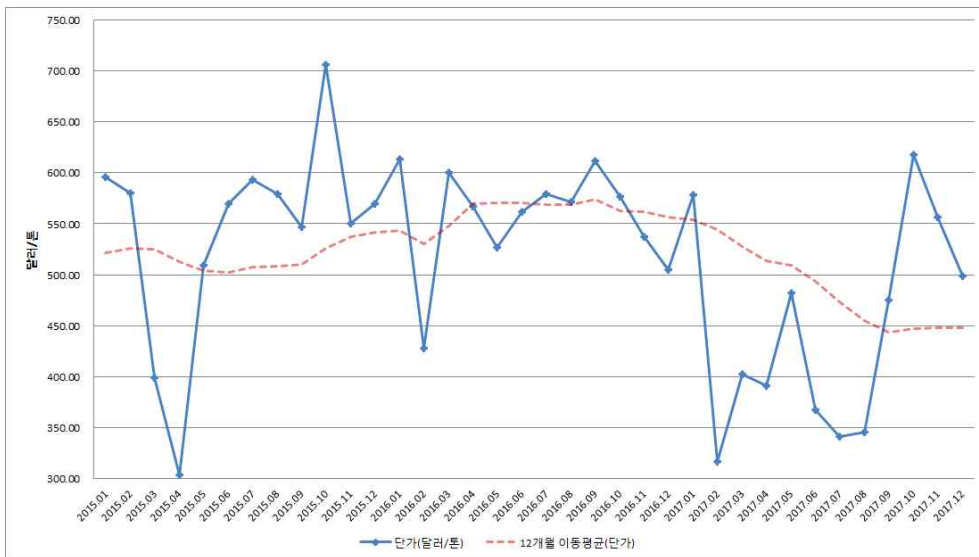
[그림 2-19] 쌀·옥수수 수입



주: 점선은 수입액과 물량의 12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의미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그림 2-20] 쌀·옥수수 수입단가



주: 점선은 단가의 12개월 이동평균 수치를 의미함.

자료: KITA/중국 해관(<http://stat.kita.net/>), 검색일: 2018. 2. 22.

III. 환율과 시장가격

1. 환율

2017년 북한의 시장 환율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8천원대 초반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며, 연간 최소 관측치(8,000원)와 최대 관측치(8,240원)의 차이가 240원에 불과할 정도로 변동 폭이 작게 나타났다.

〈표 3-1〉 환율

(단위: 북한원/달러)

	데일리NK 월간 전환치 환율			
	평양	신의주	혜산	관찰일수
2015.01	8,000	8,000	8,150	7
2015.02	8,100	8,170	8,390	7
2015.03	8,100	8,185	8,395	0*
2015.04	8,100	8,200	8,400	7
2015.05	8,180	8,250	8,490	7
2015.06	8,150	8,200	8,025	7
2015.07	8,200	8,200	8,155	2
2015.08	8,200	8,200	8,155	5
2015.09	8,260	8,200	8,320	7
2015.10	8,600	8,900	9,000	7
2015.11	8,620	8,830	8,900	0*
2015.12	8,640	8,760	8,800	7
2016.01	8,190	8,260	8,190	7
2016.02	8,190	8,260	8,210	7
2016.03	8,128	8,150	8,065	7
2016.04	8,100	8,250	8,100	7
2016.05	8,020	8,085	8,010	7
2016.06	8,400	8,417	8,515	7
2016.07	8,269	8,285	8,303	14
2016.08	8,215	8,205	8,230	2
2016.09	8,215	8,205	8,230	5
2016.10	8,051	8,039	8,070	9
2016.11	8,194	8,219	8,182	10
2016.12	8,081	8,050	8,228	8
2017.01	8,000	8,000	8,050	7

	데일리NK 월간 전환치 환율			
	평양	신의주	혜산	관찰일수
2017.02	8,070	8,060	8,050	7
2017.03	8,035	8,020	8,105	7
2017.04	8,040	8,032	8,100	7
2017.05	8,040	8,029	8,091	0*
2017.06	8,040	8,025	8,083	14
2017.07	8,130	8,110	8,125	3
2017.08	8,130	8,110	8,125	4
2017.09	8,100	8,125	8,240	7
2017.10	8,005	8,050	8,110	1
2017.11	8,005	8,050	8,110	6
2017.12	8,000	8,000	8,02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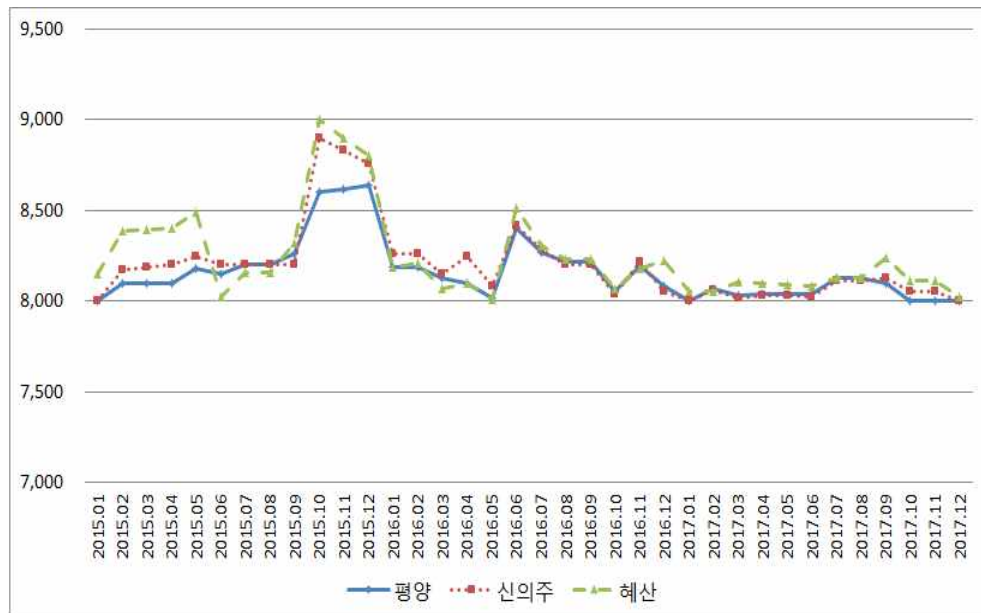
주: 1) 관찰일수가 0인 달은 임의로 바로 전 달과 다음 달 환율의 평균을 구함.

2) 데일리NK 환율은 관측기간과 일수가 매우 불규칙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자료에서는 이를 월간 단위로 환산하고, 이에 사용된 자료의 관측일수를 별도로 표시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8. 2. 22.

[그림 3-1] 북한의 시장환율 추이

(단위: 북한원/달러)



주: <표 3-1>에서 월간 단위로 전환된 환율을 사용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8. 2. 22.

2. 시장가격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시장 환율과 달리 2017년 북한의 쌀 시장가격은 1~9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10~12월에 크게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7년 1월에 쌀 가격이 1kg당 4,000원대로 급락한 이후 9월 6,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연중 단기변동이 컸던 것으로 관찰된다.

〈표 3-2〉 시장가격 - 쌀

(단위: 북한원/kg)

	데일리NK 월간 전환치 쌀 가격			
	평양	신의주	혜산	관찰일수
2015.01	5,000	5,000	5,300	7
2015.02	5,000	5,000	4,500	7
2015.03	5,000	5,000	4,250	0*
2015.04	5,000	5,000	4,000	7
2015.05	5,100	5,100	5,200	7
2015.06	5,100	5,100	5,500	7
2015.07	5,150	5,200	5,500	2
2015.08	5,150	5,200	5,500	5
2015.09	6,000	6,000	6,200	7
2015.10	5,400	5,300	5,100	7
2015.11	5,400	5,350	5,300	0*
2015.12	5,400	5,400	5,500	7
2016.01	5,019	4,970	4,980	7
2016.02	5,019	5,000	5,150	7
2016.03	5,150	5,090	5,080	7
2016.04	5,120	5,050	5,050	7
2016.05	5,000	4,900	5,000	7
2016.06	4,950	4,900	4,850	7
2016.07	5,165	5,265	5,500	14
2016.08	5,315	5,420	5,520	2
2016.09	5,315	5,420	5,520	5
2016.10	5,622	5,344	5,874	9
2016.11	5,270	5,100	5,508	10
2016.12	5,406	5,196	5,528	8
2017.01	4,000	3,970	4,190	7
2017.02	5,000	5,010	5,205	7
2017.03	4,870	4,820	4,800	7

	데일리NK 월간 전환치 쌀 가격			
	평양	신의주	혜산	관찰일수
2017.04	4,900	4,890	4,910	7
2017.05	5,213	5,271	5,213	0*
2017.06	5,525	5,653	5,515	14
2017.07	5,770	5,740	5,800	3
2017.08	5,770	5,740	5,800	4
2017.09	6,100	6,085	6,100	7
2017.10	5,810	5,760	5,600	1
2017.11	5,810	5,760	5,600	6
2017.12	4,800	4,900	5,200	7

주: 1) 관찰일수가 0인 달은 임의로 바로 전 달과 다음 달 쌀값의 평균을 구함.

2) 데일리NK 쌀값은 관측기간과 일수가 매우 불규칙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자료에서는 이를 월간 단위로 환산하고, 이에 사용된 자료의 관측일수를 별도로 표시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8. 2. 22.

[그림 3-2] 북한의 시장 쌀 가격 추이

(단위: 북한원/kg)



주: <표 3-2>에서 월간 단위로 전환된 쌀 가격을 사용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8. 2. 22.

〈표 3-3〉 달러 표시 쌀 가격

(단위: 달러/10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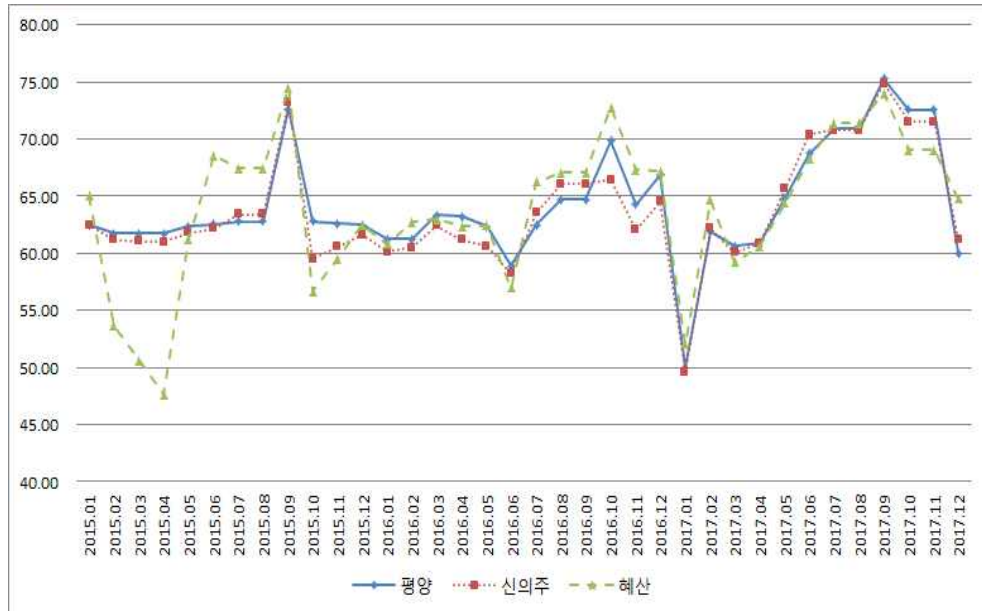
	달러 표시 쌀 가격		
	평양	신의주	혜산
2015.01	62.50	62.50	65.03
2015.02	61.73	61.20	53.64
2015.03	61.73	61.09	50.63
2015.04	61.73	60.98	47.62
2015.05	62.35	61.82	61.25
2015.06	62.58	62.20	68.54
2015.07	62.80	63.41	67.44
2015.08	62.80	63.41	67.44
2015.09	72.64	73.17	74.52
2015.10	62.79	59.55	56.67
2015.11	62.65	57.34	59.55
2015.12	62.50	55.33	62.50
2016.01	61.28	60.17	60.81
2016.02	61.28	60.53	62.73
2016.03	63.36	62.45	62.99
2016.04	63.21	61.21	62.35
2016.05	62.34	60.61	62.42
2016.06	58.93	58.22	56.96
2016.07	62.47	63.54	66.25
2016.08	64.70	66.06	67.07
2016.09	64.70	66.06	67.07
2016.10	69.84	66.48	72.79
2016.11	64.32	62.05	67.32
2016.12	66.90	64.53	67.18
2017.01	50.00	49.63	52.05
2017.02	61.96	62.16	64.66
2017.03	60.61	60.10	59.22
2017.04	60.95	60.88	60.62
2017.05	64.83	65.66	64.42
2017.06	68.72	70.44	68.23
2017.07	70.97	70.78	71.38
2017.08	70.97	70.78	71.38
2017.09	75.31	74.89	74.03
2017.10	72.58	71.55	69.05
2017.11	72.58	71.55	69.05
2017.12	60.00	61.25	64.80

주: 달러 표시 쌀 가격(100kg 당 쌀 가격) = 쌀 가격 / 환율 X 100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8. 2. 22.

[그림 3-3] 북한의 달러 표시 쌀 가격 추이

(단위: 달러/100kg)



주: <표 3-1>과 <표 3-2>에서 월간 단위로 전환된 환율과 쌀 가격을 사용함.

자료: 데일리NK(<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 검색일: 2018. 2. 22.

IV. 식량

1. 생산

FAO와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2016년도 식량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곡물별 생산량은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추정치를 제시했다. FAO는 2016년 북한의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30.4% 증가하고 옥수수는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 반면에, 통계청에서는 2016년 북한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 모두 전년대비 각각 10.3%, 3.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표 4-1〉 생산

(단위: 천M/T)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FAO	쌀	2,186	2,244	2,370	2,583	2,479	1,870	2,862	2,336	2,426	2,479	2,861	2,901	2,626*	1,945*	2,536*
	옥수수	1,651	1,725	1,727	1,630	1,750	1,587	1,411	1,705	1,683	1,857	2,040	2,002	2,349	2,288*	2,195*
	계	3,837	3,969	4,097	4,213	4,229	3,457	4,273	4,041	4,109	4,336	4,721	4,903	4,975*	4,233*	4,731*
통계청	쌀	1,734	1,720	1,795	2,024	1,895	1,527	1,858	1,910	-	-	2,037	2,101	2,156	2,016	2,224
	옥수수	1,636	1,710	1,674	1,630	1,751	1,587	1,544	1,301	-	-	1,732	1,762	1,722	1,645	1,702
	계	3,370	3,430	3,469	3,654	3,646	3,114	3,402	3,211	-	-	3,769	3,863	3,878	3,661	3,926

주: *는 비공식 수치를 의미함.

자료: FAO(<http://faostat3.fao.org/>), 통계청(<http://kosis.kr/bukhan/>), 검색일: 2018. 2. 22.

2. 원조

2015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곡물원조가 2만 2천톤에 이른 것으로 FAO는 집계했다. 다자간 대북식량원조는 2013년에 전년대비 91% 감소한 이후 2015년까지 3만톤 미만 규모로 지원되었다. 그 이후 년도 통계는 현재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표 4-2〉 원조

(단위: 천M/T)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곡물 (Cereals)	1,426	1,033	892	824	1,037	1.6	710	339	274	76	75	332	30	16	22	-

주: *는 WFP의 잠정 수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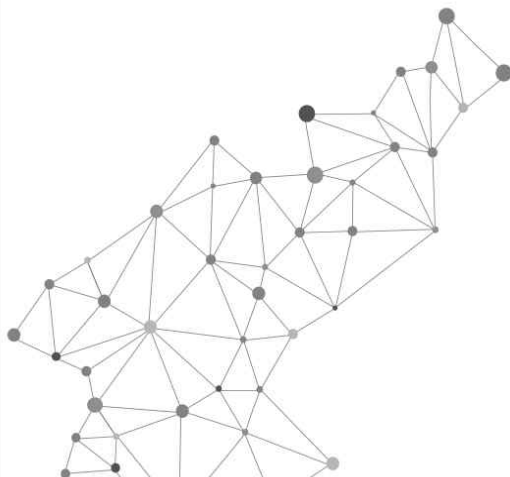
자료: FAO(<http://faostat3.fao.org/>), 검색일: 2018. 2. 22.

부문별 주요 기사

1월 1일~1월 31일

| 대내경제

|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1월 1일~1월 31일

대내경제 136

<공식경제>

北, 대북제재에 대응해 과학기술을 통한 자력갱생 강조
생산책임제 도입을 위해 인민반 중심으로 기층조직 재편

<전력>

시·군 단위 중소형 전력 발전소 복구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

<농업과 식량>

FAO, 올해 북한에 농업지원사업 진행

<보건>

북한서 신종독감 확산...8만여명 감염, 4명 사망

<생산 및 시장>

대북제재로 인해 생필품 및 휘발유 가격 급등
북한 타이어 생산 심각한 위기

<주민생활>

북한 내 반중감정 확산과 중국산 제품 판매 단속
신년사 관철 위해 북한주민 동원에 나서

.....

대외경제 141

〈대북제재〉

유엔대북제재위원회 활동과 회원국의 참여율 증가
유류 밀수와 해외 합작투자 지속으로 대북제재 허점 드러나
벤쿠버 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위한 국제사회 공조 확인

〈북중관계〉

대북제재로 지난해 북중 무역 큰 폭 감소
중국 상무부,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조치 발표
북한기업 폐쇄시킨 종료로 北무역회사 대부분 철수

대내경제

〈공식경제〉

매일경제(1.1), 데일리 NK(1.3), 조선일보(1.12), 한국일보(1.12), 동아일보(1.13), RFA(1.17), 연합뉴스(1.22)

北, 대북제재에 대응해 과학기술을 통한 자력갱생 강조

유엔안보리의 초강경 대북제재에 대응해 북한이 과학기술을 통한 자력갱생을 연일 강조함.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올해 첫 공개 활동으로 순수과학 연구소인 국가과학원을 찾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대북제재 돌파를 주문함. 김정은은 집권 이래 새해 첫 공개 활동으로 군 또는 민생시설을 번갈아 방문했으며 2017년에는 가방공장을 방문함. 따라서 올해 첫 공개 활동으로 과학 연구소를 시찰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대북제재 돌파뿐만 아니라 핵·경제 병진노선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또한 1월 22일자 노동신문에서도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하여도 위대한 당의

영도가 있고 믿음직한 과학자대군이 있기에 두려울 것도, 점령 못 할 요새도 없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과학기술 결사전에 총매진 하여야 한다.”며 경제 각 부문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주체화를 강조함.

생산책임제 도입을 위해 인민반 중심으로 기층조직 재편

북한은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생산목표를 정하는 ‘생산책임제’를 2014년부터 평양전선공장 등 일부 공장기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음. 그러나 올해부터 ‘생산책임제’를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시행한다는 소식임.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은 향후 공장기업소를 통한 국가 과제 하달 및 주민 동원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여 인민반을 중심으로 기층조직을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함경북도의 경우 새해에 “거름생산 과제를 공장기업소가 아닌 가정세대들에 부과하고 거름생산 총화도 인민반별로 짓도록 했다”고 소식통은 전함. 또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앞으로 당이나 근로단체를 통한 인원통제도 어렵게 되어 주민통제수단을 인민반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전함.

〈전력〉

데일리 NK(1.1), 중앙일보(1.1), RFA(1.31), 뉴데일리(2.1)

시·군 단위 중소형 전력 발전소 복구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2018년 북한의 전기부문 발전 계획을 발표함.

이와 관련하여 북한 내각 전력공업성이 각 시·군 단위의 중소형 발전소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가동 중단한 발전소들을 복구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소식통은 전함.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2004년에 전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 단위에 50kw이상의 전력을 생산 할 수 있는 소규모 댐이나 물레방아와 같은 설비를 중소형 발전소로 지정함. 이런 식으로 전국에 총 4,00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자, 2004년에 지방공업 공장들과 농촌양수장에 설치된 소형발전소들은 중소형발전운영사업소에 등록하여 남겨두고 나머지 발전 능력이 500kw 이하인 발전소들

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려짐.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지역의 경우 2004년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남은 중소형발전소들이 131개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올해 북한이 2004년에 생산 가동 중단된 중소형 발전소들까지 복구하여 전력생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임.

〈농업과 식량〉

RFA(1.22), 연합뉴스(1.23), VOA(1.25)

FAO, 올해 북한에 농업지원사업 진행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농업 환경 개선과 정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과 시설 지원 5건, 자금 지원 2건 등 모두 7건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지원 사업은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경사지를 농경지로 개간하거나 우수 품종의 채소 씨앗을 개발하는 등 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 밖에 북한은 오는 2021년 까지 아시아 태평양 식물 보호위원회(APPPC)가 집행 중인 환경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짐.

〈보건〉

뉴데일리(1.29), 연합뉴스(1.29), 조선일보(1.29), 동아일보(1.30), VOA(1.30)

북한서 신종독감 확산... 8만여명 감염, 4명 사망

국제적십자사(IFRC)는 1월 26일 발표한 ‘북한 A형 인플루엔자 발병’ 보고서를 통해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16일 사이 북한에서 8만 2천 여 명이 A형(H1N1)신종독감 감염되었으며, 이 중 4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신종독감은 현재 북한 전역에 퍼진 상태이며, 그 중 29%는 평양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연령별 감염자로는 17세 이상이 전체의 52.7%, 0~7세가 24.5%, 8~16세가 22.8%를 차지함.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를 위해 북한은 세계보건기구에 신종독감 백신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보건 관계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백신 3만 5천여 정을 지원하였다고 보도됨. 국제적십자사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IFRC

재난구호긴급기금 투입 여부를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짐.

〈생산 및 시장〉

RFA(1.1, 1.9), 중앙일보(1.5), VOA(1.26)

대북제재로 인해 생필품 및 휘발유 가격 급등

유엔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북한 시장의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임. 일본의 ‘아시아프레스’ 신문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북한 북부 3개 지역에서 실시한 연료 값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17년 12월초에 1kg 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5,990원과 6,765원(북한 원)으로 관찰되었음. 이는 전달인 11월에 비해 각각 25%, 60%이상 떨어진 가격임. 그러나 2018년 1월에 들어와서 휘발유 가격은 1kg 당 26,000원, 경유는 1kg 당 17,000원에 거래되며 전달보다 6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이에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연료 값 상승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보도임.

생필품의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한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평양 기준으로 2017년 11월에 북한 돈 51,000원에 거래 되던 식용유 5리터가 2018년 1월에는 57,000원으로 올랐으며, 옥수수 1kg의 경우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도함. 옥수수가 대부분 북한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이유로 도시지역 중하층 주민들이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묵은쌀을 소비하는데 최근 중국산 쌀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대체재로 쌀과 섞어먹을 수 있는 옥수수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 가격이 상승했다고 신문은 분석함. 이와 함께 유엔안보리가 원유수입 제한 조치 내용을 대북제재에 포함함에 따라 북한 내 유통비용이 상승하여 옥수수 가격도 오른 것으로 분석함.

북한 타이어 생산 심각한 위기

2015년 기준 북한의 자동차 대수는 27만대(인구 100명 당 한 대)로 알려져 있음. 북한 자체 생산 타이어 공장은 만포타이어 공장(압록강다이아공장)이 유일하며 북한은 타이어 생산을 위한 고무원료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17년 12월 26일 북한이 고무 수입을 하던 태국(북한과 네 번째로 큰 교역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북한 타이어 생산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북한과 태국의 교역규모는 150만 달러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실제로도 북한의 타이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17년 12월 15일 박봉주 내각 총리의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시찰 사진에 찍힌 대형 트럭의 타이어가 크게 손상된 모습이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만포타이어 공장을 방문하여 “각종 다이아를 우리 힘과 기술,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함.

〈주민생활〉

RFA(1.4, 1.16), 뉴데일리(1.16), 데일리 NK(1.24)

북한 내 반중감정 확산과 중국산 제품 판매 단속

최근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 사이에 반중정서를 고취시키고 있다는 보도임.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진시 동단위 여맹회의에서 주민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맹 간부가 “일본은 백년 숙적, 중국은 천년 숙적”이라고 까지 발언한 것으로 전해짐. 이와 함께 북한당국은 북중 국경지역에 러시아산 신형 전파탐지기까지 추가 설치하여 국경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이 신형 탐지기는 정보 외부 유출입 단속을 위한 것으로 북한 주민들의 통화 위치와 내용까지 즉시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이러한 분위기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자강력 제고와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한 반발로 전국 시장에서 각종 중국산 공산품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는 소식임. 이에 상인들이 중국 상표를 떼고 북한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며 중국산 물품 유통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던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임.

신년사 관철 위해 북한주민 동원에 나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들을 주민들이 일체 부담하게 한다는 소식임. 함경북도에서는 중앙에서 각 도마다 ‘로인요양시설’ 건설을 지시했으며 이에 세대원 당 1인당 10kg의 옥수수를 상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돈을 바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대외경제

〈대북제재〉

조선일보(1.3), RFA(1.4, 1.29), VOA(1.4, 1.12, 1.23, 1.30), 아시아경제(1.15), 이데일리(1.15), 헤럴드경제(1.16)

유엔대북제재위원회 활동과 회원국의 참여를 증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 활동 내역을 정리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보고 기간 말까지 대북 제재 관련 79명의 개인과 54개 단체 및 기관이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힘. 2016년 보고서에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례를 18건으로 추정하였으나 올해 보고서에는 명시하지 않음. 대북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전문가단의 회원국 방문과 회의 개최 및 서신 교환은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음. 위원회 활동 뿐 아니라 각 회원국의 참여율도 높아져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가 단일 이행보고서로는 처음으로 100개국을 넘겼으며, 이후 채택된 2321, 2371호에 관해서도 각각 94개, 43개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이행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들 역시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라오스는 북한과의 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합작사업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북한 노동자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지적되어 온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결의 2397호에 따라 2019년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할 계획임을 밝힘. 몽골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 신규 신청 및 갱신을 중단하고 오는 6월까지 1천여 명을 추방할 계획이며, 앙골라 정부도 북한 건설회사인 '만수대'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이 회사에 소속된 북한인 노동자들에게도 귀환 조치를 취할 예정임.

유류 밀수와 해외 합작투자 지속으로 대북제재 허점 드러나

공해 상 유류 밀수와 해외 합작투자 지속으로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사례가 재차 확인됨. 미군 등 각국 함정은 지난해 10~12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국적을 위장한 북한 선박이 러시아, 중국 등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유류 등을 넘겨받아 밀수한

정황을 포착함. 작년 말 북한과의 유류 밀수 혐의로 여수·평택항에 억류된 선박 2척의 소유주는 모두 중국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기타 선박들 역시 선적을 바꾸는 수법을 이용해 제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제재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의 기업들이 북한과 공동 사업을 지속하며 북한에 막대한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임. 해당 사례로는 북한 우편통신부와 합작투자한 모바일 자회사 '고려링크'를 두고 있는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북한에서 인터넷, 전화, 케이블 TV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태국의 '차룅 타이 와이어 앤드 케이블 컴퍼니' 등이 있음.

밴쿠버 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위한 국제사회 공조 확인

한국, 미국, 일본 등 20개국 외교장관이 모여 15~16일 이틀 간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에 내려진 모든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함. 미국 정부는 북한 선박이 국적을 세탁해 유류를 밀수하는 과정을 포착한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대북 석유제품 공급량의 90%를 제한하는 결의 2397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대북 해상차단 전력지원과 정보교환을 촉구함. 참가국 장관들은 기존의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일방적 제재와 추가적인 외교 행동을 고려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북한의 해상 밀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힘. 그러나 본 회의에는 북한의 주요 무역국인 중국이 참여하지 않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북중관계>

조선일보(1.8, 1.31), 문화일보(1.9), 동아일보(1.10, 1.11, 1.12, 1.15), RFA(1.15, 1.16, 1.29), VOA(1.29)

대북제재로 지난해 북중 무역 큰 폭 감소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12월 북중 무역액은 총 3억 1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5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대중 수출액은 전년 대비 81.6% 감소한 5천 434만 달러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냄. 북한의 대중 수출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수입은 늘어나면서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7년 만에 최저치를, 대중 무역 적자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지난해 2월 이후 급감했으며, 대중 수입액도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했으나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증감률을 나타내었음.

중국 상무부,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조치 발표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 관련 조치로서 6일부터 철강, 금속, 기계 및 차량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와 원유 및 정제유 수출 제한, 일부 곡식과 농산물, 광석과 목재 등의 대북 수입 전면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힘. 중국 철강 제품의 대북 수출은 물동량과 금액 측면 모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조치 시행 직후 단둥 현지에서는 양국을 운행하는 화물트럭의 수가 전례 없이 감소했다고 전해짐. 추가 제재 조치에 맞춰 접경지역 일대 부두들에서는 대대적인 북한산 수산물 밀수 단속도 시작되었다고 알려짐.

북한기업 폐쇄시킨 종료로 北무역회사 대부분 철수

‘120일 안에 각국 내 북한 기업 폐쇄’를 규정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자국 내 설립된 북한기업을 대상으로 공표한 폐쇄시한이 9일 종료되었음. 무역회사와 북한식당을 비롯한 상당수 북한기업이 본국으로 철수하였으며 일부 업소만 중국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편법을 이용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됨. 사이버해킹과 탈북단속 야지트로 쓰였던 칠보산호텔과 류경호텔도 폐쇄 대상이 되어 북한의 대외공작망이 치명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짐. 중국의 강경책에 대한 반발로 북한 당국도 무역기관들에 교역을 위한 중국진출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합작 금지’ 조항에 따라 북한 내 중국 기업들에게도 폐쇄조치가 내려져 북·중 우의의 상징이었던 금평자동차합영회사, 평진자전거합영회사, 백산담배합영회사 등도 예외 없이 모두 폐쇄·철수 대상에 포함됨.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RFA(1.2, 1.8, 1.17)

아래 표는 1월 한 달 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단체 (국가명)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카리타스 (독일 국제단체)	2018년(계획)	지원사업	노인복지, 온실건설	신의주 양로원 건설을 위한 건축자재를 확보했으며,

단체 (국가명)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공사는 봄에 시작될 예정 이라고 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미국 대북구호단체)	2018년(계획)	지원사업	식수·수도 시설 신설 및 개보수	식수 시설에 10만 2,000 달러 배당. 수도시설 개선 사업 지속할 것임을 밝힘.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프랑스 민간구호단체)	2018년(예정)	기술지원	양식장 기술 지원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한 양식장의 물고기 생산증량 과 더불어 농장 체계를 갖 추기 위한 기술 지원 사업 진행 예정임.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기사 원문 리스트

- [2018.1.01] 김정은, 대북제재에 부담 느꼈나…'절약·자립' 강조 **(매일경제)**
- [2018.1.01] 북한 신년사에 드러난 '발등의 불' **(중앙일보)**
- [2018.1.01] 유엔제재와 북한 타이어 생산 위기 **(RFA)**
- [2018.1.01] [전문] 2018 김정은 신년사 **(데일리 NK)**
- [2018.1.02] 카리타스, 북 노인복지·온실사업 확대 추진계획 **(RFA)**
- [2018.1.03] 북한과 거래의심 중국해운사 한국배까지 사들여 국적세탁 **(조선일보)**
- [2018.1.03] “北, 2018년 대북제재에 주민동원 ‘150일 전투’ 전개 가능성” **(데일리 NK)**
- [2018.1.04] 북, 주민들에 반증감정 고취 **(RFA)**
- [2018.1.04] 유엔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공개 **(RFA)**
- [2018.1.04] 유엔 대북제재위 “유엔기구들, 북한 관련 활동 제재 위반 우려” **(VOA)**
- [2018.1.05]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 생필품 가격 올라” 마이니치 **(중앙일보)**
- [2018.1.08] CFK, 간염·결핵 등 50만 달러 3대 새해 대북사업 **(RFA)**
- [2018.1.08] 중국, 대북 철강 수출 전면금지…원유, 경제유도 제한 **(조선일보)**
- [2018.1.08] 폐쇄 시한 D-1인데…베이징 北해당화 식당은 영업 중 **(조선일보)**
- [2018.1.09] 북한 연료값 한 달 새 60% 이상 폭등 **(RFA)**
- [2018.1.09] 중국내 北무역회사 대부분 철수 일부 식당만 문 열고 “정상영업” **(문화일보)**
- [2018.1.10] 중국내 ‘北공작원 거점’ 선양 칠보산호텔 폐쇄 **(동아일보)**
- [2018.1.11] 中 선양서 활동하던 北해커팀 철수 **(동아일보)**
- [2018.1.12] 북한 우방국 라오스 “북한과의 무역 없어…추가 노동자 허가도 안 해” **(VOA)**
- [2018.1.12] 해커-탈북단속 아지트 잇단 폐쇄…“北대외공작망 붕괴 수준” **(동아일보)**
- [2018.1.12] 北김정은, 국가과학원 시찰…“적들이 100년 제재해도 돌파 가능” **(한국일보)**
- [2018.1.12] 北 김정은 “적들이 100년 제재해도 뚫지 못할 난관 없어” **(조선일보)**
- [2018.1.13] 김정은 “100년 제재해도 뚫는다”… 풍계리선 새 강도 공사 징후 **(동아일보)**
- [2018.1.15] 북·중 교역 지난 달 ‘반 토막’…백악관 “환영” **(RFA)**
- [2018.1.15] “北, 아프리카 선적 선박으로 유류밀수…정기적으로 선박바꿔” **(아시아경제)**
- [2018.1.15] “北에 못 하나도 못 들어가요” **(동아일보)**
- [2018.1.15] “北, 해외 합작투자로 여전히 막대한 외화벌이”-WSJ **(이데일리)**
- [2018.1.16] 20개국 외교장관 공동성명 “남북대화 지지…외교해법 필수” **(헤럴드경제)**
- [2018.1.16] “미국이 이상한 모임 만들어 북핵 논의”…中, 밴쿠버회의 망비난 **(헤럴드경제)**
- [2018.1.16] 북, 요양시설 신축자금 주민에 떠넘겨 **(뉴데일리)**

- [2018.1.16] 북, 요양시설 신축자금 주민에 떠넘겨 (RFA)
- [2018.1.16] 새해 들어 북-중 무역 급감 (RFA)
- [2018.1.16] 틸러슨 美 국무, '대북 해상차단'위한 전력지원 촉구 (헤럴드 경제)
- [2018.1.17] 북, 생산책임제 도입으로 인민반 통한 주민통제강화 (RFA)
- [2018.1.17] 프NGO, 벨기에·베트남 대학과 협력해 북창양어장 지원 (RFA)
- [2018.1.22] FAO, 올해 북한에 7건 농업지원사업 진행 (RFA)
- [2018.1.22] 北매체, '과학기술로 대북제재 돌파' 연일 강조 (연합뉴스)
- [2018.1.23] "FAO, 올해 북한서 농업지원사업 7건 진행" (연합뉴스)
- [2018.1.23] 폴란드, 내년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 송환...새 제재로 시기 앞당겨 (VOA)
- [2018.1.24] 北, 제재 적극 동참에 반발?...“돌연 중국산 제품 판매 단속” (데일리 NK)
- [2018.1.25] FAO, 올해 북한에 7건 농업 지원 사업 (VOA)
- [2018.1.26] [평양은 지금] "휘발유 지난 봄보다 3.5배 올라...대외 금융거래 안 돼 어려움" (VOA)
- [2018.1.29] VOA "북한서 A형 독감으로 4명 사망...8만1천640명 감염" (연합뉴스)
- [2018.1.29] 몽골 “북 노동자 1천여명 추방 예정” (RFA)
- [2018.1.29] “북, 무역회사들의 중국진출 중단 선언” (RFA)
- [2018.1.29] 북한, 대중 수출 7년만에 최저...적자폭도 사상 최대 (VOA)
- [2018.1.29] 북한서 신종플루로 4명 사망...8만명 감염 (조선일보)
- [2018.1.29] 北덮친 '공포의 바이러스'...8만2천명 감염 (뉴데일리)
- [2018.1.30] 북한서 신종독감으로 4명 사망 ... 8만 2천여명 감염 (VOA)
- [2018.1.30] 앙골라 “북한 노동자 모두 내보내”...아프리카에서 북한 입지 축소 (VOA)
- [2018.1.30] 北에 신종독감 확산... 8만여명 감염 (동아일보)
- [2018.1.31] 북, 오래된 중소형발전소 복구 지시 (RFA)
- [2018.1.31] 중국 기업들, 유엔 제재 따라 북한서 짐쌌다 (조선일보)
- [2018.2.01] 북한도 '신재생 에너지'? 전력난에 폐쇄 수력발전소 재가동 (뉴데일리)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히 드립니다.